

바로 지금, 여행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해남



유유자적 해남 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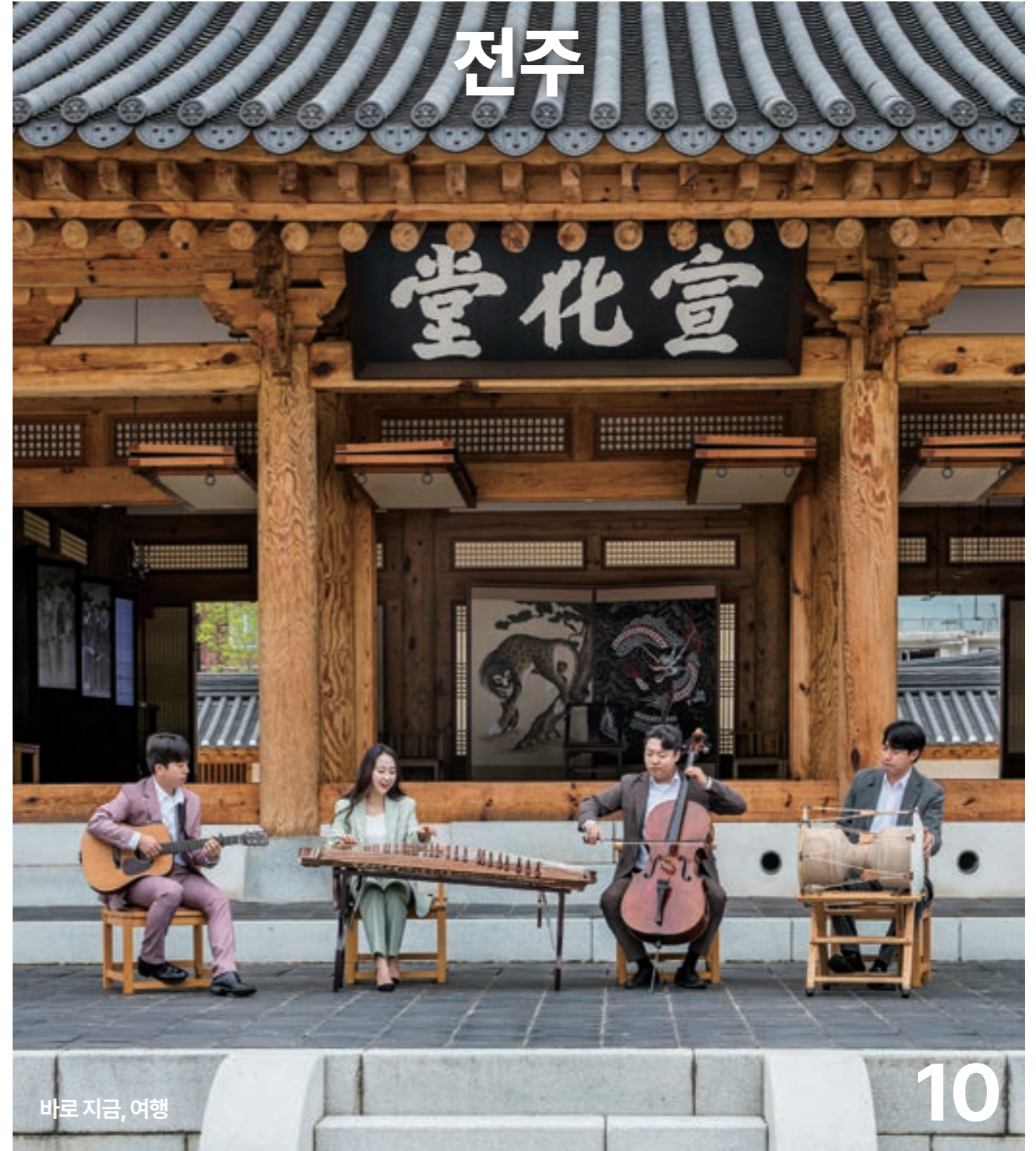
KTX 2024.10



온라인에서도
<KTX매거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전주



바로 지금, 여행

10

축제 같은 하루, 전주 24시 | 무등산국립공원으로 떠난 생태 여행 | 뿌리 깊은 맛, 홍천 인삼

축제 같은 하루, 전주 24시

02-799-9175





WITH YOU THROUGH
THE CRUX




ARC'TERYX



046 테마 여행 전주

경기전에서 오목대까지, 풍남문에서 전라감영까지, 덕진공원에서 팔복예술품장까지. 곧 축제 열기로 뜨거울 전북 전주 구석구석을 두 발로 누볐다. '전주페스타 2024'의 눈부시고 역동적인 무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AHILO

2024.10



012

잡학 사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하츠평'에 빠졌다. 요즘 주목받는 캐릭터의 모든 것을 파헤친다.

018

에디터 자유여행

마침내 대구간송미술관이 모습을 드러냈다. <훈민정음 해례본>과 '미인도'를 알현했다.

024

맛집 탐방

바로 지금, 북서울꿈의숲으로 떠날 시간이다. 산책하듯 찾기 좋은 공원 맛집에 다녀왔다.

064

이 계절 이 여행

너그러운 자연, 넉넉한 맛, 유구한 역사. 세 가지 색, 전남 해남을 유전자적 여행했다.

072

기차 타고

북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정수장이 '합'하다. 세종시 조치원에서 시간을 넘나들며 놀았다.

080

생태 여행

수많은 생명을 품은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그 아래 호수와 정자에 잠시 기대었다.

086

이색 여행

울산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키즈와 맘'에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청년 상인이 있다.

096

미식 기행

강원도 홍천의 드넓은 인삼밭에서 인고의 여정을, 수확의 기쁨을 엿보았다.



KORAIL INFORMATION

128

코레일 소식

134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136

열차 이용 안내

138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들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서 들려주며, 60여 개 언어로 번역도 지원합니다. 자동 번역기를 사용하기에 번역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브렌우드 대리점 개설 문의 : 02)3677-7209

코오롱인더스트리(주) FnC부문

경기·인천 시흥점 / 화성 봉담 트레보점 / 안양 플러스아울렛점 / 용인 죽전점 / 인천 앨리웨이 / 안양 명학점 대전·충청 대전 송촌점 / 세종 마크원 예비뉴점 / 예산 내포점 / 서산 중앙점 전라·제주 전주 평화점 전주 인후점 / 전주 메가월드점 / 군산점 / 광주 첨단점 / 광주 세정점 / 목포 하당점 / 여수 여천점 / 신제주 노형점 부산·경상 부산 대청점 / 대구 칠곡점 / 대구 호림점 / 경산점 / 김천 조이코오롱

들어가는 글



전남 해남 대흥사로 가기 위해 두륜산을 찾았습니다.
 짙은 녹음을 곁에 두고 그림 구경하듯 천천히 걸다가
 고려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절에 닿으려
 얼마나 많은 이가 흙길을 밟았을지 상상했습니다.
 상상 속 그는 한복을 입은 사람이었다가,
 승복을 입은 스님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탈문을 지나 대웅보전 앞에 당도했을 때
 계단 양옆으로 줄지어 늘어선
 소원초를 올려 두는 용기들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건강 기원’ 조그마한 연꽃 모양 초에 이름과 바라는 것을 적어
 불을 밝히는 간단한 행위지만, 이곳을 방문해
 사랑하는 이의 안녕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은
 시대가 다르더라도 분명 닮았겠지요.
 간절한 소원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그 누군가와 함께
 다시 이곳을 여행하길 조용히 응원했습니다.
 소망이 담긴 대흥사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듯합니다.

<KTX매거진> 기자 남혜림

KTX 바로 지금, 여행
OCTOBER 2024

2024년 10월호 제21권 제10호 통권 제244호
2024년 10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서울문화사 02-3785-0900
 서울시 용산구 새창로 221-19

편집인 심정섭

편집장 김현정 kimhj@seoulmedia.co.kr
부편집장 강은주 unddu@seoulmedia.co.kr
기자 남혜림 nhr@seoulmedia.co.kr
 김수아 ksau@seoulmedia.co.kr

교열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디자인
아트 디렉터 권영주 kyj@seoulmedia.co.kr
디자이너 임보영 lby@seoulmedia.co.kr

사진
 라이트팩토리(LIGHT FACTORY)
 070-4119-3014
디렉터 신규철
실장 이규열 조지영 이철 박정우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seoulmedia.co.kr
부장 심재우 jwshim22@seoulmedia.co.kr
사원 김수연 ktxad@seoulmedia.co.kr

배포 소장 이재우

경영지원실 본부장 정영기

제작팀 팀장 이수행
차장 정승현 **과장** 정수호

기획팀 팀장 임용욱
차장 박선주 **사원** 조소연

인쇄 (주)타라티피에스

<KTX매거진>은 KTX와 ITX-새마을, ITX-청춘 열차 내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보신 뒤에는 다음 승객을 위해 제 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편집 02-799-9338 광고 02-799-9175

2024 ACC 야외전시
 현장 속으로: 기억과 사건
 2024 ACC OUTDOOR EXHIBITION
 RECONSTRUCTING SEQUENCES
 2024.10.15. – 11.24.

김동희 DONGHEE KIM
 석운동 SEOKUNDONG
 오종 JONG OH
 이웅열 WOONGRYEOL LEE
 정소영 SOYOUNG CHUNG
 인사이드 아웃 프로젝트
 INSIDE OUT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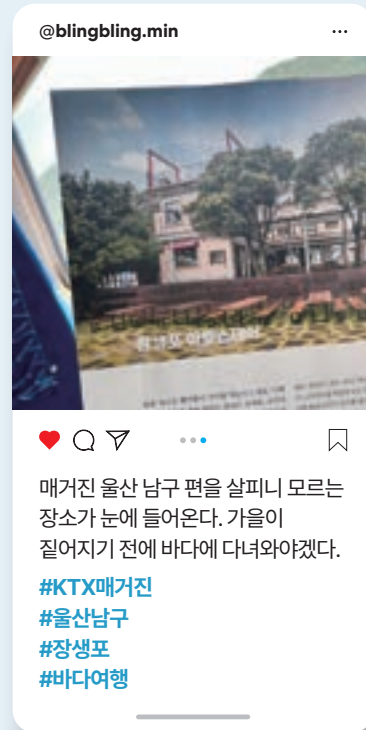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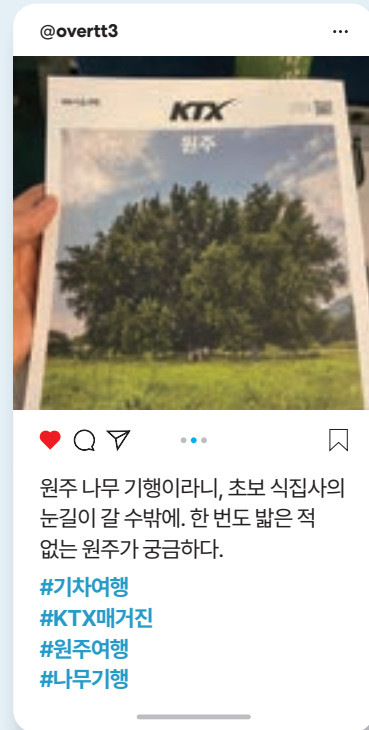
오비비에이 OBBA
 ACC 상호작용예술 연구개발
 ACC INTERACTIVE ART LAB





내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SNS에 #KTX매거진을 태그해 올려 주세요.



@ktxmagine

선물 받아 가세요!

기차 안 SNS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10주년 스카프'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제품으로, 꽃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스카프입니다. 심플한 코디에 화사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품 문의 02-2256-7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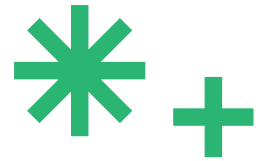
*당첨자에게는 인스타그램으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손안에 펼쳐지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KTX매거진>을 만나 보세요!



10월, 더 맛있는 전주



문화도시 전주, 10월 통합축제

전주페스타

2024

JEONJU FESTIVAL

함께 하Go!

- 오프닝&클로징축제
- 전주비빔밥축제
-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 전주독서대전
- 전주조선팝페스티벌
- 전주막걸리축제

먹Go!

- 달콤스토어(디저트페어)
- 전주페스타 맛잔치
- 전주페스타 맛자랑
- 전주페스타 술BOX
- 전주페스타 x 쿠키런

보Go!

- 지상최대 드론쇼(2,024대)
- 레트로클럽
- K-뮤지컬 마당창극
- 전주한바탕어울림공연
- 한복모델선발대회

즐기Go!

- 우리놀이터(전통놀이)
- 미션&미로체험
- 포토BOX(네컷사진)
- 우리한복 체험
- 전주페스타 붐업 이벤트



10월 한 달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charlevoix



가을의 절정, 샤를부아

'단풍국' 캐나다에 가을이 왔다.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는 경이로운 대자연 속에서 계절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샤를부아는 퀘벡시티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에 있다. 대서양을 향해 흐르는 강과 웅장한 산맥이 펼쳐져 캐나다 메이플로드의 하이라이트로 꼽는다.



4억 년 전, 150억 톤 운석이 캐나다에 떨어졌다. 샤를부아는 운석이 남긴 커다란 분지를 포함한 60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지역을 일컫는다. 국기에 단풍잎이 들어갈 만큼 화려한 가을을 자랑하는 캐나다의 가을 대표 여행지가 메이플로드다. 나이아가라폭포에서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퀘벡을 거쳐 이어지는 800킬로미터 길이 메이플로드의 하이라이트로 샤를부아 지역을 꼽는다. 대서양을 향해 흐르는 세인트로렌스강과 웅장한 로렌시안 산맥, 드넓은 초원과 바다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에 은색의 운슬까지 색색의 향연을 펼친다.

퀘벡과 자동차로 한 시간 거리지만 많은 사람이 그보다 두 배 넘는 시간이 걸리는 샤를부아 열차에 탑승한다. 두 량짜리 기차는 퀘벡시티 몽모랑시 폭포역을 출발해 라말베에 이르는 125킬로미터를 천천히 넉넉하게, 때로는 아슬아슬하게 달린다. 신비로운 대자연, 그 속의 마을과 목장 풍경이 눈을 못 떴게 한다. 첫 번째 정차역은 작은 마을 베생폴이다. 빼어난 경관에 사로잡힌 예술가가 모여들어 예술가의 도시라는 별명을 가진 이곳은 아기자기한 갤러리와 가게가 늘어서 마치 애니메이션 한 장면에 들어온 느낌을 선사한다. 그 유명한 공연 <태양의 서커스> 발상지이기도 하다. 종착역인 라말베는 아름다운 항구도시다. 조용한 산책은 물론, 자전거를 빌려 본격적인 하이킹도 가능하다. 강 주변을 따라가는 세인트로렌스 루트와 전망이 훌륭한 마운틴 로드 어느 쪽을 고르든 최고의 선택이 된다. 샤를부아에서 빼놓으면 아쉬운 것이 고래 탐방이다. 고래 13종을 비롯해 동식물 2000종이 서식하는 해양 보호구역 사계네세인트로렌스 해양공원 에서 11월까지 고래 탐방선을 운행한다.

기후 위기 때문에 갈수록 가을이 짧아지는 요즘, 그럼에도 자연이 가을을 잊지 않고 챙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다채롭고 강렬하면서도 서정 넘치는 계절이 지나간다. 가을의 절정은 겨울의 축제로 이어진다. 단풍의 색이 눈의 흰색으로 덮일 때 샤를부아는 스파와 겨울 액티비티 성지로 거듭난다. 여행자의 의무는 감탄한 만큼 자연을 보전하고 사랑하는 일이었다. **K**

Panasonic

전세계 사랑받는 인디애나
89
신선한 야가술잡약제

경험하지 못한 절대휴식

REAL PRO MAN1

가을맞이 EVENT

MAN1 50만원DC + 상품권20만원 + 숙박권 or 무선청소기 택1



안마의자 MAN1 구매고객 대상

50만원 DC + 상품권 20만원 + high 고객초대 이벤트

기간: 2024.10.01 ~ 2024.10.31

*기타 안마의자 전 제품 가격 할인 판매중

1 하이원 리조트 숙박권 + 조식뷔페 또는 워터월드 이용권



숙박권 + 조식or워터월드

- 객실당일 : 그랜드 호텔 또는 마운틴 리조트(35명)
- 조식 또는 워터월드 이용권 : 1인당 2매
- 유효기간 : ~ 2025년 5월 31일까지 (생수기 제외)

체크인 시 이용권을 프린트해 반드시 제품제 후시기 바랍니다



2 무선청소기

파나소닉 무선청소기 MC-A10 (249,000 상당) 택1

OR

*복합 컨디션



떠나요! 캐릭터 세계로

문구는 기본, 편의점·신용카드사·야구 구단도 캐릭터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한다. 요즘 사랑받는 캐릭터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어른 마음도 캐치 <캐치! 티니핑>



- 이름 하츄핑
- 특징 사랑과 배려의 아이콘
- 분류 애니메이션

2020년부터 방영한 한국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 시리즈 주인공이다. 이모션 왕국 공주 로미의 실수로 마음의 요정 티니핑이 모두 지구로 흩어질 때, 로미가 꼭 붙잡아 유일하게 헤어지지 않았다. 큰 눈망울과 귀여운 외모로 아이들에게 뽀로로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 8월에 개봉한 영화 <사랑의 하츄핑>은 100만 관객을 돌파할 정도. 아이 때문에 봤다가 티니핑의 매력에 빠지는 어른도 많다.


다섯 살 아이가 된 강아지 <마루는 강주>



- 이름 마루
- 특징 무한 에너지와 호기심
- 분류 웹툰

"언니, 나 사람 됐다. 짱이지... 이 손을 봐, 대박임." 자고 일어나니 키우던 강아지 마루가 다섯 살짜리 아이로 변했다. 이상한 말투는 덤. 개였을 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엉뚱한 행동을 일삼는다. 모조 작가가 네이버 웹툰에서 2022년 연재를 시작한 <마루는 강주>의 주인공으로, 언니 최우리와 함께 산다. 빌라 주민, 유치원 친구 등 이웃들과 보내는 일상이 주된 내용이다. 아이, 개의 시선으로 건네는 천진난만한 위로에 마음이 따스해진다.


모두의 첫 모습 도구리



- 이름 도구리
- 특징 열의 넘치는 신입사원
- 분류 캐릭터

2021년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너구리 캐릭터가 'K신입사원'이라는 설정으로 사회 초년생의 마음을 울렸다. 숲속에 살다 도시 회사에 취업한 도구리는 워튼 열심히 하지만 어수룩하고 실수도 잦다. "넌! 알겠습니까!" 호기롭게 대답하는 반면, '모르겠는디'라고 속마음을 비치는 등 직장인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 웃음을 자아낸다. 좋아하는 것은 퇴근과 야식, '월루(월급 루팡)'. 기특하고 짠 모습에 자꾸만 애정이 생긴다.

이모티콘계의 선두 주자 망그러진 곰



- 이름 망그러진 곰(망곰)
- 특징 치명적인 귀여움
- 분류 이모티콘

메신저 이모티콘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무렵, 카카오가 유량 작가의 망그러진 곰을 '올해의 이모티콘'으로 선정 한 뒤 편의점, 신용카드사 등 수많은 브랜드와 협업했다. 망가져도 괜찮다며 금세 시련을 극복하지만, 울 때는 '부양' 하고 콧물을 방울방울 흘리는 모습이 반전 매력. KBO리그 구단 두산베어스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출시한 '망곰 유니폼'은 뜨거운 인기로 늘 품절이다.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축제가 주렁주렁 풍성한 기장의 가을

기장 봉장어축제

10. 5(토) - 10. 6(일)
 기장 신암항 일원
 문의 051-724-1923

기장열린 음악회

10. 12(토) 기장 드림볼파크
 문의 051-709-4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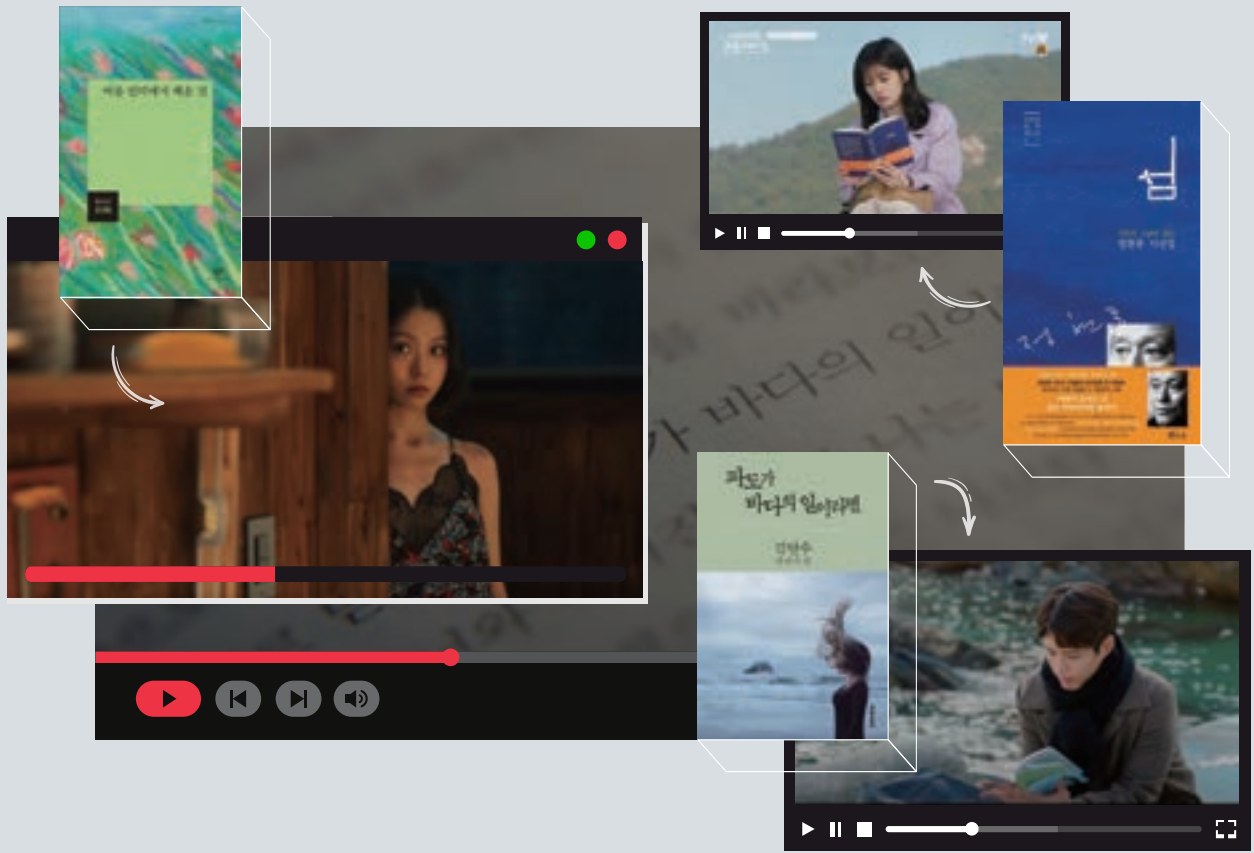
차성문화제

10. 12(토) - 10. 13(일)
 기장 드림볼파크
 문의 051-709-4062

정관생태하천 학습문화축제

10. 18(금) - 10. 20(일)
 정관 좌광천변
 문의 051-727-6444





이 책이 그 책, 그 책이 이 책

드라마를 보다 책이 등장하면 표지에 눈길이 가고, 제목을 알고 싶고, 펼친 쪽의 내용이 궁금해진다. 단순한 소품일까, 엄청난 복선일까. 영상 속 책은 우리를 상상하게 한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8월 말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는 의미심장한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주인공 성아의 모습이 이질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수상함을 풍기는 그가 수영장에 발을 담그고 한쪽에는 와인 잔을 든 채 여유롭게 책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낮익은 표지, 4년 전 출간된 **안희연의 시집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이다. 모란일 감독은 여름 분위기가 나는 책을 원했고, 호흡이 긴 소설보다는 짙막한 시를 선호할 듯한 인물의 특성을 고려해 선정했다.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로맨스 장르는 책 내용을 활용해 서사를 보충하기도 한다. 집주인과 세입자로 얽힌 두 인물이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는 시구절을 직접 언급한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로 운을 떼는 **정현종의 시 <방문객>**는 상대의 과거를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기는 지호의 복잡한 감정을 대변한다. 드라마 <남자 친구>는 바닷가 근처에서 주인공 진혁이 읽는 책을 보여 준다. 바로 **김연수의 소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한 진혁과 그의 연인 수현이 서로를

끌어안고, 의자에 놓인 책이 바람에 휘날리는 순간이 한 화면에 담긴다.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흘러나오는 내레이션이 둘이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듯하다. 드라마 <경우의 수>에서는 **최은영의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 속 밑줄 그어진 단락을 읽거나, **권민경의 시 <나와 너에 대한 예언>** 속 문장을 활용해 마음을 고백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휴대전화 화면을 쳐다보는 것보다 책을 읽는 일이 흔치 않아서인지 책 표지는 찰나에 스쳐 지나가도 한동안 시청자의 시선을 붙들어 놓는다. 정지, 뒤로 감기, 정지. 예능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아이유가 읽던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제목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팬들이 표지 그림으로 해당 책을 찾았고, 'Bubble Gum(버블검)' 뮤직비디오에서 뉴진스 멤버 민지가 손에 쥔 책 **이디스 워튼의 소설 <순수의 시대>**는 영상 공개 후 판매량이 여덟 배 증가했다. 책이란 물건에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는 건 내용뿐 아니라 표지, 디자인, 크기 등이 그만큼 매력적인 소품이라는 뜻. 책의 물성을 재확인한 시간, 과연 마음에서 쿵 소리가 났다. **K**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

SONOROUS	NOBLIAN BLACK
대한민국 18곳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하나를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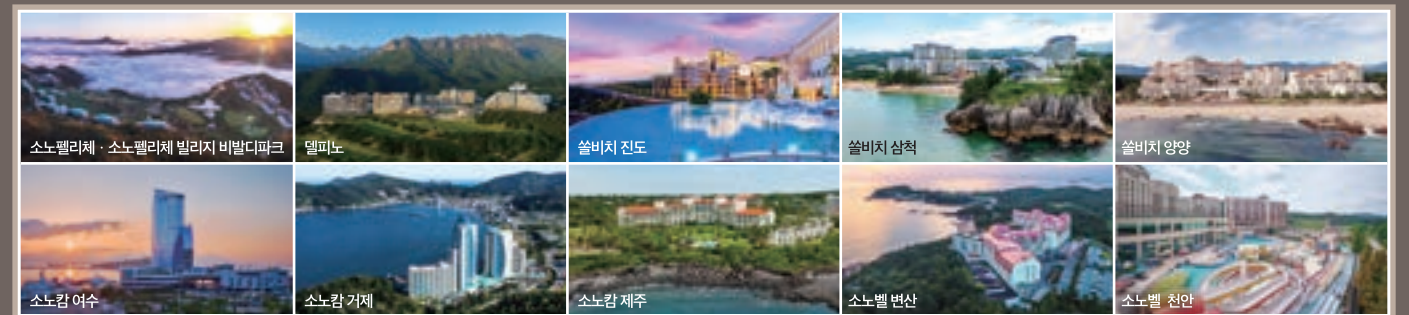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20%를 추가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쏟아져 남해가 2025년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있고, '경주'도 연이어 완전히 리뉴얼 오픈 예정입니다. 'SONO'는 지속적인 변화와 새로움으로 무한한 가치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쓸비치 남해 2025 그랜드오픈 예정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쓸비치 양양·삼척·진도 | 소노캄 고양·여수·거제·제주 | 소노벨 천안·청송·경주·부산·제주 | 소노론 단양·해운대 | 소노휴양평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02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03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04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05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06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07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08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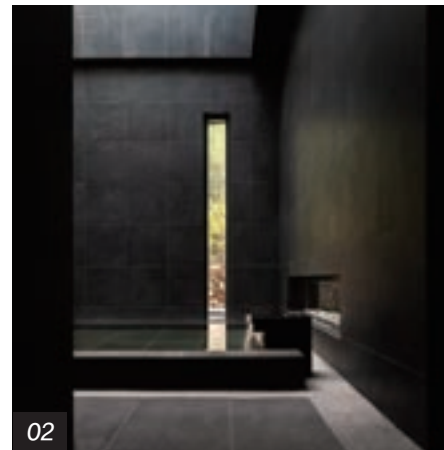
DATA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온,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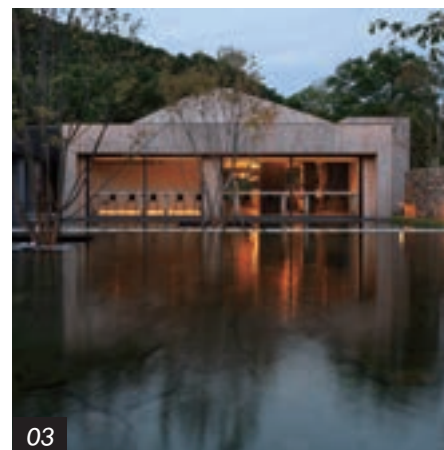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



02



03



04



05



06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마침내, 비로소, 눈앞에 - 대구간송미술관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유한 문화유산 40건 97점이 한낱한시에 공개됐다. 이전에도, 앞으로도 다시 없을 단 하나의 전시를 대구간송미술관에서 만났다.



818.0cm

심사정 필 '축산도관'의 가로 길이

유독 눈길을 끈 대작 '축산도관'. 오늘날 중국 쓰촨성에 해당하는 지역인 축으로 가는 길을 묘사한 관념산수화다. 가로 8미터가 넘는 화면임에도 풍경을 이루는 요소들이 리드미컬하게 대별되어 지루할 틈 없다. 서울 간송미술관의 아담한 전시실에선 펼치기 어려웠지만, 이곳에선 온몸을 활짝 열어 관객을 맞는다.

86



설립 이래 첫 분관이 생기기까지 헛수

16세기 화가 이징의 '설산심매', 즉 '눈 쌓인 산에서 매화를 찾다'는 관람객이 대구간송미술관에서 가장 처음 만나는 작품이다. 아마도 혹독한 시절에 봄날을 그리며 문화유산을 수집하던 간송 전형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간송미술관의 전신인 한국 최초 사립 미술관 보화각이 설립된 지 꼭 86년을 맞는 해, 간송미술문화재단의 유일한 상설 전시 공간인 대구간송미술관이 탄생했다.

대구간송미술관 총면적

간송의 문화보국 정신이 국제보상운동의 시작점 대구에 뿌리내렸다. 대덕산 자락, 지하 1층부터 3층에 이르는 연면적 8003제곱미터 규모의 대구간송미술관이 올라섰다. 경사진 지형이 경북 안동 도산서원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건축가 최문규가 계단식 기단, 터의 분절 등 한국 전통 건축 요소를 적용해 큰 그림을 그렸다. 덕분에 미술관 안팎은 하늘과 물과 산이 흐르는 풍경으로 이어진다. 나무와 돌 등 자연에서 온 따스한 재료가 수장고를 나온 문화유산을 보듬어 안는다.



다섯 개 전시실과 하나의 방

'월하정안'과 '야묘도추'가 이웃한 회화 중심의 전시실 1, 오직 '미인도'와 <훈민정음 해례본>을 위한 별도 감상 공간인 전시실 2와 전시실 3, 도자·서예·불교미술을 망라한 전시실 4, 이 모든 작품을 실감 영상 '흐름·The Flow'로 집약한 전시실 5, 위대한 컬렉터의 삶을 엿보는 '간송의 방'까지. 모든 공간, 모든 경험이 짜릿하다.



10000

<훈민정음 해례본> 수집 당시 가격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난 이듬해인 1943년, 간송은 <훈민정음>이 경북 안동의 서고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기와집 열 채 값인 1만 원을 지불해 입수했다. 이는 판매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의 열 배다. 간송의 신념은 확고했다. "귀한 물건은 제값을 치러야 한다." 6·25전쟁으로 피란길에 올랐을 때도 그는 책을 몸에 꼭 붙인 채 지켜 냈다. <훈민정음>에 해례가 붙어 있다 해서 해례본, 또는 원본이라 부르는 책. 가격 같은 문화유산을 눈앞에서 본다. 전시실 3에서 열리는 <훈민정음 해례본: 소리로 지은 집>전은 해례본 진본과 더불어 청각장애인·다문화가정 등 특정 환경에서 문자를 사용하는 이들의 풍경을 현대미술 작품에 담았다.

© 2024 김용관, 대구간송미술관

개관전에 출품한 국보·보물 합계

<훈민정음 해례본>, 신문복의 '미인도', 김홍도의 인물화와 정선의 진경산수화, 여기에 김정희의 글씨와 청자상감운학문매병까지 한자리에서 감상하는 기회가 우리 생애에 또 있을까? 조용필, 서태지, 임영웅, 아이유가 한 무대에 오르는 것보다 요원한 일일지도 모른다. 대구간송미술관 개관 소식에 모든 일을 제쳐 두고 KTX의 속도로 달려간 이유다. 개관전 <여세동보-세상 함께 보배 삼아>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유한 국보·보물 40건 97점을 소개하는 전무후무한 전시다.



8003m²

2024 THE 32nd YEONGDO BRIDGE FESTIVAL 영도다리축제

아미르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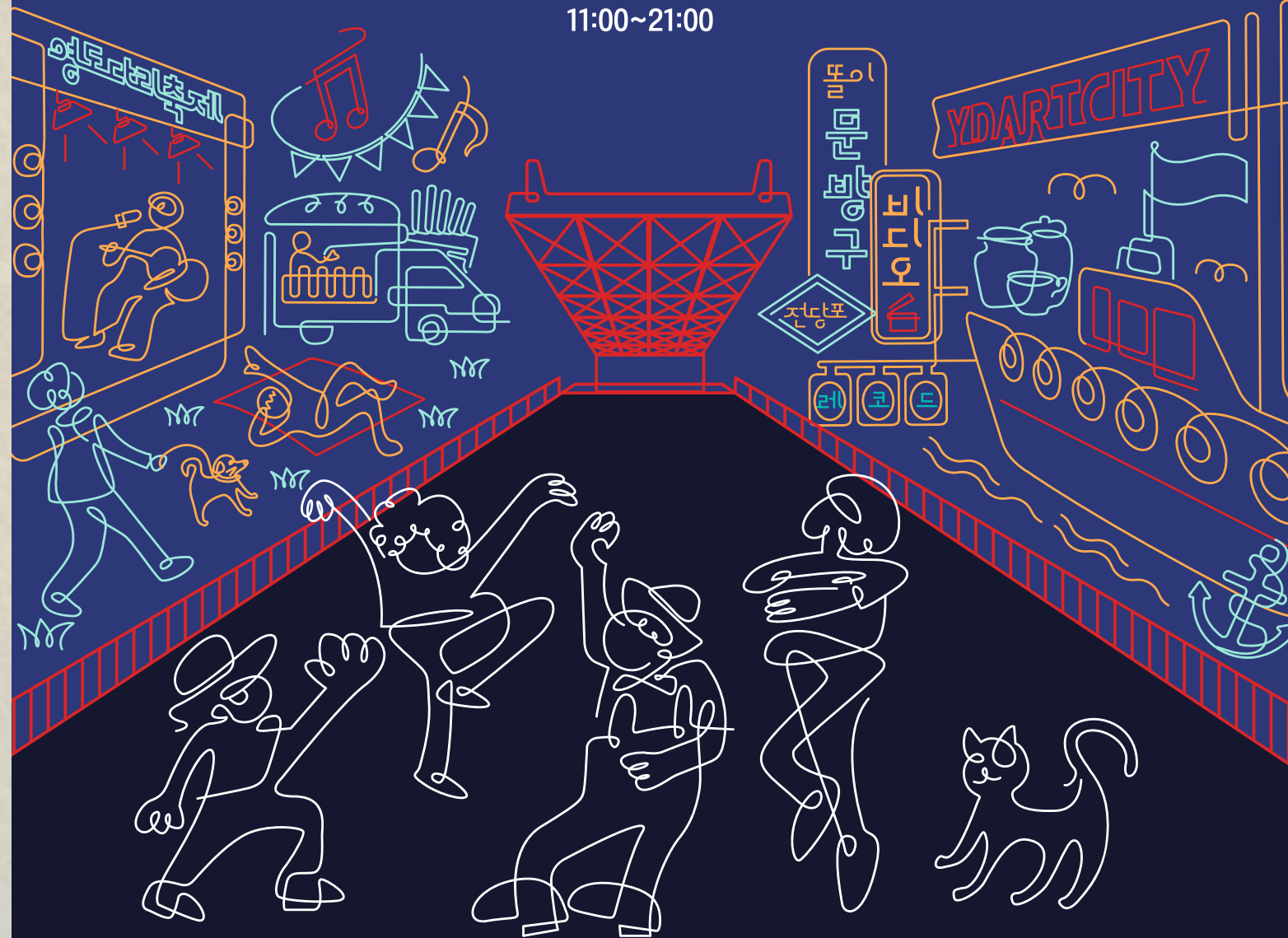
개막주제공연
해적탐험대
Local Star in 영도
영도 트롯 가왕

사람들 잇다
미래를 열/다

영도대교 일원

도개 퍼포먼스
시대부스
바지선 버스킹 공연
문화도시영도 브랜드관

2024년
10월 12일(토) - 13일(일)
11:00~21:00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10월 25일은 독도의 날.

경북 울릉군 울릉도와 독도를 마음속에 깊이 새길 소중한 굿즈를 소개한다.



울라

1— 울라 소금 미역칩

울릉도 북면 추산에 위치한 송곳봉을 모티브로 한 고릴라 캐릭터 '울라'. 소금 미역칩 패키지에도 모습을 드러낸다. 해양 심층수로 만든 프리미엄 소금을 사용해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고, 유기농 설탕과 프락도를 리고당을 넣어 건강한 단맛을 낸다.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워 바삭한 식감과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문의 @official.ulla

울릉브루어리

2— 울릉 다이빙 스타우트

울릉도의 청정한 산, 바다, 바람 속에서 액티비티를 즐긴 후 시원한 맥주로 마무리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 울릉 다이빙 스타우트는 울릉도 앞바다의 화사한 수중 환경을 표현한 흑맥주로, 다크 몰트의 고소함과 스타우트 본연의 풍미가 일품이다. 은은한 과일 맛과 흡의 쌀쌀함이 조화로운 울릉 하이킹 페일에일도 인기가 높다.

문의 @ulleung.brewery

헤타몽

3— 수중발레 강치 마그넷

헤타몽은 울릉도에 사는 일러스트레이터다. 저동여객선터미널 2층 입구 앞 카페 '저동커피'에서 헤타몽의 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엽서, 마그넷, 포스터를 판매한다. 수중발레 강치 마그넷은 유튜브 채널 '할명수' 영상에도 등장했다. 코끼리바위, 악어바위처럼 울릉도의 여러 바위를 모은 포스터와 마그넷 등 구매욕을 자극하는 제품이 많다.

문의 @hetamong

독도문방구

4— 어린이 독도 양말, 독도 스포츠 양말
2014년 울릉도 최초의 독도 굿즈 숍이 문을 열었다. 지금은 멸종한 독도 강치를 비롯해 독도의 상징물을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한다. 티셔츠는 인증 사진을 찍을 때 말곤 일상에서 활용하기 어렵다는 손님 의견을 반영해 스포츠 양말을 출시했다. 독도를 영어로 새긴 스포츠 양말이 호응을 얻으면서 어린이 양말도 내놓았다.

문의 @dokdo_munbanggu

ULLEUNGDO & DOKDO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4 Public Design Festival

2024.10.25.-11.3.

포용으로 피어나는 공공디자인

Public Design for Embracement

대전광역시 및 성수 코사이어티

전국 공공디자인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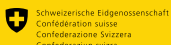
publicdesign.kr/festival



주최·주관



후원·협력





부드럽고 쫄득한 도삭면을 우리 집 주방에서 요리하다

풍무원 **더블식감 짜장 도삭면** 4.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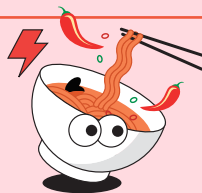
김현정 언제나 짬뽕파로서 자장 맛은 오랜만의 도전이다. 한 입 넣은 순간, 잊고 살던 자장면의 맛과 추억이 밀려왔다. 그래, 이 맛이야. 소스가 제대로고 도삭면은 장인 정신이 느껴져요. ★★★★★ / **강은주** 서울, 1999년 겨울, 대학로의 한 손자장집을 기억한다. 투박한 듯 다부진 수타 면과 심심한 소스. 그때 그 맛을 다시 만났다. '도삭면'이라니 가우뚱하지만, 누구나 아는 옛날 자장면 맛. ★★★★★☆ / **남혜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나 쫄깃한 면에 눈이 커졌다. 감기에 걸려 둔감해진 후각과 미각 때문에 슬픈 마음을 도삭면 식감이 달래 주는 느낌. 소스에 채소, 고기도 실하다. ★★★★★☆ / **김수아** 달짝지근한 소스에 굵기가 균일하지 않은 면의 조합이 꽤 매력적이다. 체험기를 위해 여러 면을 먹어 봐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차별점이 있어 반갑다. 제법 중국집 자장면 같아요. ★★★★★☆

2.5점 **오투기 보들보들 치즈볶음면 매운맛**

김현정 매운맛 '정파'로서 치즈에 반대한다... 치즈 분말 수프가 치즈 맛을 낸다기보단 매운맛을 방해하는 느낌이었는데, 단맛까지 합세해 매움을 2차로 휘방. 저는 순수한 매운맛 세계로 갈게요. ★★☆☆ / **강은주** 이것이 정녕 K매운맛입니까? 매운맛이 익숙지 않을 세계인들이 화들짝 놀랐을 듯. 청양고추처럼 청량한 매운맛이 아니라, 오직 매운맛을 위해 설계된 매운맛이라 아쉬울 따름이다. 치즈도, 매운맛도 좋아해서 기대가 컸는데... ★★ / **남혜림** '보들보들'이라고 했다. 수출용 제품이라기에 더 안심했다. 어렵듯한 라볶이 냄새에 하나도 안 맵겠다고 생각했는데, 세 입 먹고 물을 벌컥 들이켰다. 진짜 맵다! ★★ / **김수아** 볼*볶음면에 치즈 가루 뿌려 먹는 익숙한 맛... 풀무원 더블식감 짜장 도삭면과 함께 먹어 매운맛을 중화했다. 평범하지만 허가 아릿해지는 제품이다. ★★☆☆



수출에 특화된 치즈볶음면의 뜨거운 맛을 역수입하다



사랑한다면, 너뿐이라면

차갑게도 뜨겁게도 즐길 수 있는 하이브리드 비빔면부터 K매운맛의 진가를 전 세계에 떨친 볶음면까지, 면 요리의 신세계를 맛봤다.



간장 소금, 후추로 감칠맛을 낸 하이브리드 비빔 라면

팔도 **팔도비빔면 II** 3.4점

김현정 한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으로서, 따뜻하게 먹는 비빔면 출시를 환영한다. 간장 양념이지만 매콤함이 감돌아 더욱 환영. 굵은 면발은 씹는 맛이 좋아 세 번 환영. ★★★★★ / **강은주** 팔도의 야심작이 누적 판매 300만 개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이 칼럼을 기획했는데, 과연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새로운 맛이다! 대후추 시대, 비빔면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 / **남혜림** '하이브리드 비빔 라면'이라길래 따뜻한 비빔면에 도전. 기관지가 온전하지 않은데도 후추 향이 바로 코를 자극한다. 건더기가 충실해서 좋았으나, 매워도 너무 맵다. ★★ / **김수아** 먹기 전 코끝을 찌르는 진한 후추 향. 익힌 면에 라면 수프를 비빈 느낌이다. 추석이라 건강을 챙길 겸 나물을 얹어 먹었다. 그나저나 비빔면 면발이 이렇게나 쫄깃했구나. ★★☆☆

4.4점 **키다리식품 세이먼 진실의 미간 잔치국수**

김현정 기름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 비선호자로서 컵면계에 나타난 생면이 반갑다. 건더기 블록에 달걀지단은 물론 요즘 그 비싸다는 애호박까지 들었다. 이름만 아니고 내용까지 진짜 국수네요. ★★★★★ / **강은주** 뜨거운 물을 붓고 나면 면과 고명이 갓 삶은 것처럼 탱탱해진다. 고작 10초 만에 탄생한 이 뜨끈한 한 그릇이 마감인의 처지를 위로한다. 아아, 허끝부터 미간까지 신실해지는 맛. ★★★★★☆ / **남혜림** 핫핫해진 속을 달래 줄 녀석이 반가웠다. 물을 붓자마자 먹는 방식이 특이한데, 고명부터 국물까지 신경 쓴 티가 난다. 기다리지 않아서 행복이 두 배. 염도는 낮춰도 되겠다. ★★★★★☆ / **김수아** 간이 알맞은 국물과 애호박의 식감 덕에 단번에 만족했다. 양념장을 넣으면 라면 국물과 비슷해지니 처음에는 오리지널 잔치국수 맛보기를 추천한다. ★★★★★☆



국내산 멸치와 다시마의 개운한 맛이 돋보이는 한 그릇



여수·순천 10.19 사건, 그 날을 기억합니다.

■ 여수사건 개요

- '여수·순천 10·19사건'이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희생자 및 유족 심사·결정, 명예회복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 여수·순천 10·19사건이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합동 추념식 개요

- 일시: '24.10.19.(토) 10시
- 장소: 한국차문화공원(보성군)
- 참석: 유족, 정부대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군수 등
- 내용: 헌화·분양, 추념사, 추모공연, 부대행사 등
- 주최: 여수전국유족총연합,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 주관: 전라남도, 보성군

공원 산책도 식후경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 산책하기 좋은
서울 북서울꿈의숲 근처에서 배를 든든하게
채울 맛집을 찾았다.



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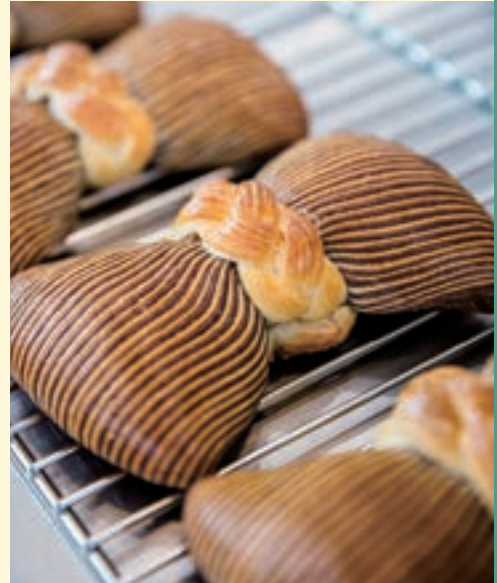
☞ 수제 애플파이 7000원 프렌치 크루아상 4500원
📍 서울시 성북구 들곳이로 205 @muet_coff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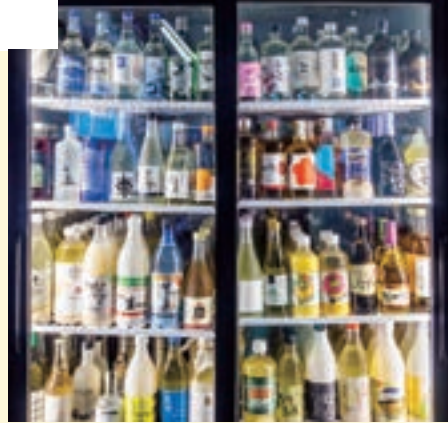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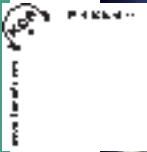
위에 진열대에 놓인 빵의 정교한 결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빵과 커피 향이 가득한 이 공간은 나옹지 대표의 장위동을 향한 애정에서 출발했다. 나 대표가 학창 시절을 보낸 고향 같은 동네지만 '위에'가 문을 열기 전만 해도 베이커리 카페를 찾기 어려웠다. 퀄리티 높은 빵과 커피를 이 동네에도 들여오고 싶어 아내 김지혜 대표와 함께 창업에 도전했다. "까다로운 제 입맛을 만족시킬 만큼 맛있어야 했어요." 그는 프랑스 현지 맛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지금도 수업을 들으며 연구한다. 프렌치 크루아상은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으로, 1년에 한번만 생산하는 버터를 사용한다. 향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해, 깊고 진한 맛의 코코넛 라테와 잘 어울린다. 콩포트를 듬뿍 넣은 수제 애플파이도 자부심을 갖는 메뉴 중 하나. 직접 손질한 사과에 바닐라 빈을 넣은 콩포트가 맛의 비결이다. 플라워 페이스트리는 달콤한 바닐라 크림에 상큼한 라즈베리 잼을 더해 맛이 조화롭다. 시간과 노력이 겹겹이 쌓인 페이스트리를 자를 때마다 바삭한 소리가 기분 좋게 정신을 깨운다. 가을을 맞이하며 플라워 페이스트리 꽃잎을 하나씩 떼어 먹는다.

위에 대표가 추천하는 북서울꿈의숲 맛집 장위동 토박이만 아는 식당 '들쌈'을 추천합니다. 저는 간장 베이스 제육 쌈을 좋아해서 찾아가지만, 이 집의 포인트는 제철 식재료랍니다.



TRAVEL TIP
북서울꿈의숲 2009년 놀이동산 드림랜드 자리에 녹지 공원을 조성했다. 월드컵공원과 올림픽공원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공원으로, 폐장한 드림랜드를 기억하기 위해 '꿈'을 넣어 이름 지었다. 단풍 숲에서 낙엽을 밟으며 산책해도 좋고, 대형 연못인 월영지나 월광폭포 앞에서 '물멍'을 해도 괜찮다. 꿈의숲 아트센터에서는 다양한 장르 공연을, 상상특목미술관에서는 주로 어린이를 위한 전시를 진행한다.





👍
지화자 대표가 추천하는
북서울꿈의숲 맛집
어쿠스틱 공연과 다
양한 위스키, 와인과
함께 분위기에 취해
보는 건 어떤가요?
잔잔한 음악이 흐르
는 바 '나뽕벗'을 방
문해 보세요.



지화자_임상수 대표는 전국 곳곳에서 빛은 여러 종
류의 술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 주점 한쪽에 놓인 냉
장고에는 희석식 소주 대신 80종 이상의 전통주가
모습을 비친다. 임 대표는 취향이나 안주 궁합에 따
라 손님에게 술을 제안하는 것은 물론, 주문 전 시
음할 기회도 제공한다. 가볍게 먹을 수 있어 2차 안
주로 제격인 청어알 두부 샐에는 목 넘김이 묵직하
고 상큼한 청포도 향이 느껴지는 해남 찹쌀 생막걸
리 9도를 추천한다. 안주의 상큼한 매력을 배가하려
면 찹쌀 함유량이 높아 달지만 끝에 자두 향이 새콤
하게 올라오는 조오탁을 권한다. 인기 메뉴인 치즈
감자전은 느끼함을 중화해 줄 너드 바질 스파클링과
궁합이 좋고, 피자처럼 포장도 가능해 나들이 음식
으로도 적합하다. 임 대표는 직접 술을 빚는 자신의
모습을 꿈꾼다. 2년 전 전통주 인터미디에이트 소믈
리에 자격증을 받아 한층 목표에 가까워졌다. 비나
눈이 내리는 날 테라스 자리는 인기 만점이다. 빗소
리를 듣고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며 술을 마시는 순간
은 낭만 그 자체. "치열한 하루를 보낸 나에게 주는
선물 같은 공간이었으면 해요." 지화자, 잔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마치 응원처럼 들린다.

☞ 청어알 두부 샐 2만원 치즈 감자전 2만 2000원
📍 서울시 성북구 들꽃이로 197 📞 @jihwaja_0531



지화자



서해안의 푸른 보석
바다와 숲이 함께하는 가을정원

2024 천리포수목원

책바스름

북 페 어 10.19. - 10.20.
가을축제 10.19. - 11.03.



천리포수목원 북페어 및 가을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큐알코드로 확인하세요.

주관



후원





온
랑

스파이스 로제 파스타 1만 8000원 나시고랭 슈림프 필라프 1만 7000원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41가길 14-8 @onryang_restaurant



온랑 2018년 서울숲 근처에 처음 문을 연 후 2019년 석촌호수점, 2022년 북서울꿈의숲점 영업을 시작하며 점차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양식 전문점 '온랑'. 앤티크하고 아늑한 인테리어와 주요 메뉴는 모든 지점이 동일하다. 시그너처 메뉴 스파이스 로제 파스타를 돌돌 말아 먹어 보니 녹진한 크림과 함께 얼얼한 매운맛이 입안을 채운다. 부드러운 로제 소스만 느끼고 싶은 경우 맵기 조절이 가능하다. 동남아 대표 소스인 삼발 소스를 온랑만의 스타일로 만들어 활용한 나시고랭 슈림프 필라프도 반응이 좋다. 밥에 얹은 달걀 프라이는 반숙이 기본이지만, 완숙으로 골라도 된다. 여러 메뉴를 주문할 때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꼭 포함해야겠다. 강원도 고성에서 재배한 북분자로 드레싱을 만들어 달콤하고, 요구르트처럼 상큼한 리코타 치즈가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 즐거웠던 마음이 식당에서도 이어지길 바랐어요." 최연길 대표가 공원 근처에 가게를 연 이유다. 단풍으로 물든 북서울꿈의숲에서 눈이 즐거웠다면, 온랑에서 입이 행복해질 차례. 트러플 화이트 라구 파스타, 치오피노 파스타는 북서울꿈의숲에서만 판매한다.



👍
온랑 대표가 추천하는 북서울꿈의숲 맛집 북서울꿈의숲 자리에 드림랜드라는 놀이공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름을 빌려온 분식집 '드림랜드'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데다 맛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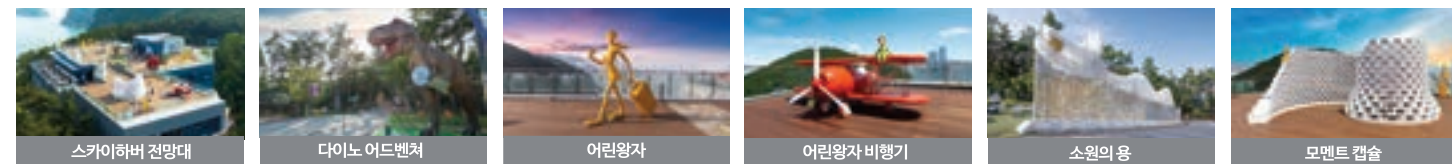


www.busanaircruise.co.kr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근원이 되는 땅, 원주 문화 기행

소설가 박경리가 강원도 원주 땅에서 <토지>의 대단원을 마무리한 지 꼭 30년을 맞는 해. 원주시청 함은희 문화예술과장이 책 향, 흙 내음 짙은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신규철

WONJU

1 위대한 작가, 향기로운 자취

박경리문학공원

소설가 박경리 선생은 원주를 '근원이 되는 땅'이라 했지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장장 25년간 대하소설 <토지>를 완성한 선생은 한창 집필 중이던 1980년 작업실을 원주로 옮겼습니다. 그의 삶과 사상을 기리는 박경리문학공원은 거처이자 집필지를 보존한 '옛집', 유품과 자료를 전시한 '문학의 집', 공원의 전망대 역할을 하는 '카페 서희'와 테마 공간 세 개로 이루어집니다. 테마 공간은 소설 배경인 평사리 마당과 흥이동산, 용두레벌을 재현한 것인데 주인공 서희와 평사리 사람들이 용정을 거쳐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상상하게 합니다. 공간을 살핀 뒤엔 카페 서희의 시그니처 메뉴 '광복' '토지' '서희'를 음미해 보세요. 카페 2층 테라스에서 공원 전경을 조망할 때 문학과 자연이 주는 위로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2 반짝반짝 가을 축제

원주 댄싱카니발 & 원주 만두축제

<토지> 완간 3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에 이어, 10월에도 원주는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먼저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명륜동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펼쳐지는 원주 댄싱카니발을 눈여겨 보세요. 올해는 세계적 인기를 구가하는 K팝을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콘텐츠형 축제를 보여 드릴 거예요. 중앙동 전통시장 일대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릴 원주 만두축제는 벌써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중이죠. 담백한 김치만두와 칼만(칼국수와 만두)은 농쳐선 안 될 별미예요. 올해는 '원주만두로(路) 맛지순례'를 테마로 준비한 60여 곳의 만두 먹거리 부스, 갖가지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여행 안내자]



함은희
원주시청 문화예술과장
"문학과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 원주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해 보세요."



3 산천에 살어리랏다

뮤지엄산 & 소금산 그랜드벨리

"내가 원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산천을 사랑한다는 얘기다." 박경리 선생의 문장을 또 한 번 인용합니다. 유서 깊은 도심도 좋지만 원주의 진가는 산 좋고 물 맑은 자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고장의 산천을 즐기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복합 예술 공간 뮤지엄산은 그 이름처럼 품 넓은 산자락에 안긴 건축물로, 자연과 유려한 조화를 이룹니다. 웰컴센터부터 제임스터널관까지 이어진 오솔길을 걷는 동안 정신이 고양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울창한 숲길이 이어진 소금산 그랜드벨리는 원주의 새로운 랜드마크입니다. 등산로 뱃을 오르면 간헐을 한눈에 조망하는 출렁다리와 울렁다리가 나타나거든요. 깎아지른 듯한 계곡과 시원스러운 하늘을 두 눈 가득 담을 시간입니다.

4 노랗게 물드는 계절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 강원감영

문막읍 반계리에 가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라 손꼽히는 생명체를 맞닥뜨립니다. 높이 32미터, 둘레 16.27미터, 추정 수령 800년에 달하는 거대하고 신령한 은행나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은행잎이 샛노랗게 물드는데, 그 모습을 감상하기 위해 전국의 단풍객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누구라도 이 나무에 매혹되지 않을 도리가 없죠. 비슷한 시기, 강원도 관찰사의 집무 공간 강원감영에서는 국화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감영 곳곳에 식재한 형형색색의 국화를 감상해 보세요. 다도 체험, 국화 심기 등 행사와 공연이 계절의 정취를 끌어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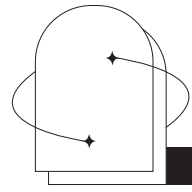


5 걷고, 보고, 느끼다

원주걷기여행길

풍성한 축제가 원주의 역동적인 매력을 보여 준다면,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원주걷기여행길은 자연의 힘을 깨닫게 합니다. 무실동 중심부에서 신림면 황둔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나가는 400킬로미터의 원주굽이길, 자연과 삶이 공존하는 139.2킬로미터 길이의 치악산 둘레길. 울가를 두 곳의 걷기 길을 권하고 싶네요. 굽이마다 상쾌한 숲 내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진답니다. 모험가에게 도전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코스부터 누구나 가벼이 나설 법한 산책 코스까지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에 마음 가는 대로 발을 디디면 그만입니다. 마침 10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제30회 원주국제걷기대회가 댄싱공연장 일원에서 열리니, 원주에서 걷는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what's up



© 김선우

• EXHIBIT •

2024 ACC 야외 전시 <현장 속으로: 기억과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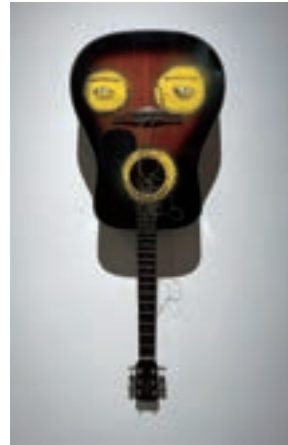
→ 광주 → 10.15~11.24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역사 현장에 들어선 문화 공간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예술의 영원한 주제인 인간을 말하고 사색하는 데 이만큼 적절한 '광장'이 있을까. 장소에 켜켜이 쌓아 온 기억을 소재 삼아 국내외 여덟 작가(팀)가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옛 전남도청 폐기물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하는 등 환경과 지속 가능성도 고민한 전시다.

장소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외 일대 문의 1899-5566



© Banksy - Ariel, 2017;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CA



© Os Gêmeos - Untitled Guitar, 2013; Courtesy of the artist and MUCA

• EXHIBIT •

<어반아트: 거리에서 미술관으로>

→ 서울 → 10.02~2025.02.02

뱅크시, 카우스, 제이알 등 세계 최고 어반아트 작가의 작품이 한국을 찾는다. 어반아트란 건물 벽, 도로, 다리 같은 공공장소를 캔버스 삼아 펼치는 예술이다. 독일 어반아트 미술관인 MUCA와 협력해 기획한 전시로,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뱅크시 '훼손된 전화 박스(Vandalised Phone Box)'를 비롯해 72점을 모았다.

장소 서울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신당 문의 1533-2738



M U

BANKSY — BARRY MCGEE — INVADER — JR
KAWS — OS GEMEOS — RICHARD HAMBLETON
SHEPARD FAIREY — SWOON — VHILS

ICONS OF URBAN ART



©Swoon

어반아트: 거리에서 미술관으로

C A

24.10.2 — 25.2.2
충무아트센터 갤러리 신당

what's up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세계태권도연맹

• FESTIVAL •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4

→ 전국 → 10.25~11.03

도시 미관과 생활 복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공공디자인이다. 놀이터, 벤치, 표지판처럼 공공디자인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녹아 있다. 국내외 디자인 트렌드와 진흥 사업을 알리기 위한 축제의 장 '공공디자인 페스티벌'의 올해 주제는 '포용으로 피어나는 공공디자인'. 협력 도시 대전을 포함해 전국 거점에서 최신 디자인을 만난다.

장소 전국 공공디자인 거점 문의 02-550-2518



• FESTIVAL •

춘천 2024 세계태권도주니어선수권대회

→ 춘천 → 10.01~06

태권도 중심 도시 춘천에 전 세계 국가대표 주니어 선수가 모인다. 2004년 순천 대회 이후 20년 만에 태권도 종주국인 한국에서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150개국 선수 2000여 명이 참가해 승부를 겨룬다. K팝 콘서트 등 신명 나는 부대 행사도 준비했다. 대회 기간에 마임축제, 인형극제 등 다른 축제도 열려 볼거리가 풍성하다.

장소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일원 문의 033-245-5618



함께하는 삶의 향기
제14회 동서커피클래식
DONGSUH COFFEE CLAS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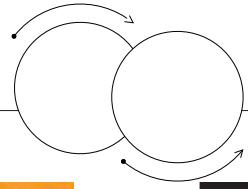
DAEJEON



대전예술의전당 아트홀

2024.10.30(수) 오후 7시

연주 공주시충남교향악단 | 지휘 정나라 | 협연 조재혁/피아노 | 김다미/바이올린 | 김순영/소프라노 | 박현수/크로스오버아티스트 | 김성현/테너



what's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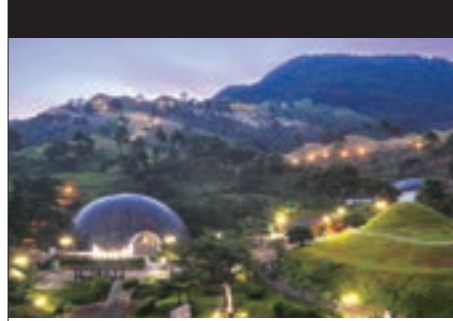
• FESTIVAL •

2024 대한민국 국향대전

▶ 함평 ▶ 10.18~11.03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2024년 축제 관광 부문 대상을 받은 '대한민국 국향대전'. '함평국화의 겨울 이야기'를 주제로 꾸민 올해도 낭만이 가득하다. 국화 향기 맡으며 꽃길을 걷고 종소리 게이트, 마법의 성 등 대형 조형물 앞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사람도 가을에 물든다.

장소 전남 함평엑스포공원
문의 061-320-2238



• FESTIVAL •

2024 세계유산축전

▶ 고령 ▶ 09.23~10.06

지난해 9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대가야 지배층이 묻힌 지산동 고분군이 자리한 고령에서 역사적 가치를 기념하고 가야를 알리는 축전을 기획했다. 가야금의 본고장답게 가야금 대병창 공연과 추리 게임 형식의 고고학 탐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장소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
문의 054-950-6426



• FESTIVAL •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 부산 ▶ 10.04~08

부산이 영화 도시에 이어 연극 도시로 발돋움한다. 시민 축제형 마켓인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비팜)' 참가작 200편이 관객과 만난다. 국내외 공식 초청작 40편, 미래의 공연 예술 작품을 발견하는 비팜 넥스트 스테이지 40편 등 작품의 향연 속에서 '인생작'을 찾을 기회다.

장소 부산문화회관, 경성대학교 등
문의 051-745-7275



• FESTIVAL •

서울동물영화제

▶ 서울 ▶ 10.17~23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단순히 귀여운 대상으로만 삼진 않았는지. '서울동물영화제'는 동물과 비인간 존재를 새로운 시각으로 포착한 작품을 소개하는 영화제다. 전 세계 출품작 808편 가운데 본선 진출작 15편을 비롯해 동물·생태 영화 50여 편을 상영한다.

장소 서울 메가박스 흥대, 온라인
문의 02-3482-0999

프로모션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에서 가을 속을 걷다

단풍으로 물든 경복 포항, 압도적인 자연경관과 소중한 문화재를 한 번에 만난다.

지난해 경북 포항 내연산은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이란 새 이름을 얻은 데 이어 보경사의 입장료를 폐지했다. 이제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과 보경사의 문화재가 한결 가까워졌다는 뜻이다. 포항을 찾은 이들 앞에 내연산 12개 폭포와 기암절벽이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더 그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본다.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는 공원

포항과 영덕에 걸쳐 자리한 내연산에는 청하골을 따라 12개 폭포가 발달했다. 한자리에 다양한 형태의 폭포가 형성됐다는 점

에서 특별하다. 신라 진평왕 시절 지명스님이 창건했다 전하는 보경사를 지나 산길을 계속 오르면 상생폭포, 보현폭포, 삼보폭포가 차례로 눈앞에 나타난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것은 연산폭포로,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커다란 물줄기가 쏟아지는 광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보경사부터 연산폭포를 찍고 돌아오는 왕복 코스는 약 6킬로미터. 넉넉히 2시간가량 걸으면 원점으로 회귀한다. 등산로를 잘 조성해 두었으니 트레킹에 자신 없어도 도전해 볼 만하다. 산을 오르는 뿌듯함이 전부는 아니다. 우렁찬 폭포 소리와 붉게 물든 풍경이 가을 한가운데에 다다랐음을 알려 준다. 문의 054-262-2371(보경사 관광안내소)



프로모션



POHANG FESTIVAL 포항의 예술적인 가을



2024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01



철의 도시 포항이 철을 예술로 승화한 축제를 연다. 단순한 소재로서 철이 아닌, 예술과 융합하며 그 가치를 모두와 공유해 온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이다. '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전시는 물론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도 충실하게 준비했다. 올해 눈에 띄는 점은 이전 페스티벌 참여 작품을 다시금 되짚도록 기획했다는 것. 아카이브 전시 <스틸, 지금도 움직이는(Steel's still moving now)>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참여한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철의 변화를 탐구하고, 철이 스틸 아트 작품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과거 출품작 200여 점 가운데 SNS에서 투표를 실시해 가장 인기 높은 다섯 작품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스틸 픽 TOP 5>도 관심을 끈다. 요즘 대세인 '망'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다. <스틸 망>은 바다를 눈앞에 둔 채 고요한 시간을 향유하는 '씨(sea)망' 등 세 가지로 구성했다. 금고 안 스틸 보물을 훔쳐 감옥을 탈출하는 '스틸 프리즌 브레이크', 프린지 공연 같은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축제 내내 이어진다. 포항의 바다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예술과 함께 놀기. 아름다운 가을을 축제처럼 보내는 방법이다.

기간 10월 19일~27일 장소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문의 054-289-7851~4



2024 포항국제음악제

02

계절의 낭만에 음악 축제가 정점을 찍는다. 회를 거듭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로 성장해 온 포항국제음악제의 올해 주제는 '바다의 노래, SONG OF THE SEA'. 특히 올해부터는 이름을 '포항음악제'에서 '포항국제음악제'로 바꾸고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더욱 화제를 모은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 중인 포항 출신 첼리스트 박유신이 예술감독을 맡고, 한국인이 사랑하는 피아니스트 백혜선·선우예권에 이어 바리톤 강형규, 호른니스트 김홍박, 아로드 콰르텟, 바이올리니스트 토비아스 펠트만 등 화려한 라인업을 꾸렸다. 11월 1일 첫 공연에서는 윤한결이 지휘하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플루티스트 김유빈의 협연이 축제의 서막을 알리며, 7일에는 차웅의 지휘로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을 들려준다. 이를 포함한 총 8개 메인 공연과 '포커스 스테이지' '아티스트 포항' '찾아가는 음악회' '마스터클래스'가 포항을 음악과 낭만으로 물들인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축제 기간 내 네 번에 걸쳐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 시립미술관 등에서 열리는데 전석 무료이니 메모해 두자. 음악이 있어 가을이 한층 풍요롭다. 기간 11월 1일~8일 장소 포항문화예술회관, 포항시 일원 문의 054-289-7822, www.mfph.kr



10.19. SAT
10.27. SUN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2024

주최/주관 포항시 8
포항문화재단
후원 경상북도 01
GYEONGSANGBUK-DO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POHANG STEEL ART FESTIVAL

MUSIC
FESTIVAL
POHANG

포항국제음악제
바다의노래

예술감독 박유신

SONG of
the SEA

2024.11.1~11.8

www.mfph.kr



포항문화예술회관 및 포항시 일원

주최 경상북도 01 포항시 8 주관 포항문화재단

무대, 객석, 열기 대한민국은 지금 뜨겁게 공연중!

가을바람에 마음 설레는 계절,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기획한 공연 예술 축제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즐기러 나선다.



대한민국이 공연 예술로 들쭉인다. 서울아트마켓과 서울국제공연 예술제, 웰컴대화로 등 대규모 문화 행사가 이어지는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힘을 모아 공연 예술 축제 '대한민국은 공연중'을 아심 차게 마련했다. 전국 각지에서 연극·무용·클래식 음악에 이르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니 마음껏 보고 듣고 경험할 기회다.

서울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명동예술극장 등 주요 공연장은 물론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청와대 헬기장, 서계동 국립극단터 등 지에서도 각각각색 야외 행사가 열려 흥을 돋운다. 여덟 곳의 지역 예술 단체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리:바운드 프로젝트'를 통해 더 큰 무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지역 곳곳에서도 행사가 활발히 이루어진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경남 일대에서는 국립합창단·국립국악원·국립부산국악원이 공연을, '2024 문화의 달' 개최지인 전북 남원에서는 김화숙&현대무용단 사포가 간 이역 서도역을 춤으로 해석해 선보인다.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을 만나는 무대, '대한민국은 공연중'이 관객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기다린다. 문의 www.kstagefesta.kr

+ 더 자세한 공연 일정을 확인하려면 국립 및 시·도립 예술 단체 공연, '2024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공모' 선정작, 광역문화재단이 추천한 지역 대표 공연 정보는 인스타그램(@kstagefesta)에서 열람할 수 있다.

+ 더 알차게 공연을 관람하려면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공연을 즐기도록 철도 여행 상품도 출시했다.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명동예술극장에서 열리는 대표 공연을 최대 2만 원까지 할인 받을 기회다.

10월은 날마다 축제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또 한 번 빛나는-연극'	10월 4일~11월 10일
서울 서계동 국립극단터 '꿈을 잇다'	10월 12일, 19일, 25일
서울 청와대 헬기장 '청와대 가을음악회'	10월 19일~20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또 한 번 빛나는-무용'	10월 22일~11월 9일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K-클래식'	10월 22일~23일, 25일~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야외 공간 플래시몹 '프로젝트 손'	10월 26일
서울 명동예술극장 '별들의 낭독회'	10월 30일~11월 2일
서울 종로 일원 '웰컴대화로 프린지'	10월 12일~27일
경남 거창문화센터 '청년교육단원 공연'	10월 15일
경남 김해문화의전당 '경성유행가-판을 나온 소리'	10월 18일
경남 밀양강변 특설 무대 '지역 무형유산 축전'	10월 19일
전북 남원 서도역 일대 '공간 탐색 프로젝트'	10월 18일~19일



강릉에서 후루룩, 누들축제

새콤한 막국수부터 얼큰한 장칼국수까지, 강릉의 모든 면 요리가 누들축제에 모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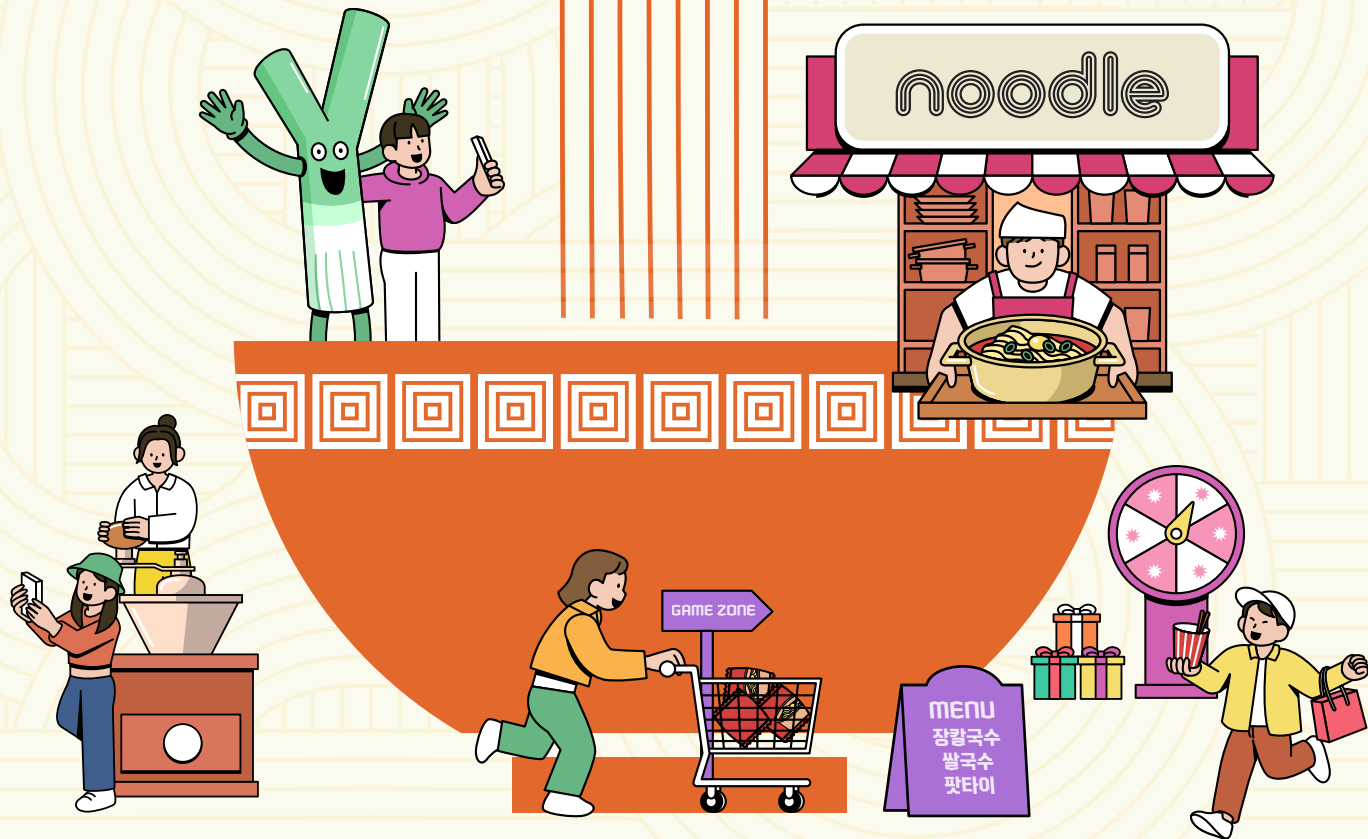
국수, 파스타 등 면 요리를 사랑하는 이에게 희소식이다. 월화거리 일원에서 '강릉누들축제'가 열린다.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축제는 장칼국수, 웅심이칼국수 등 강릉 대표 면 요리를 선보이고, 파스타·쌀국수·팟타이 같은 세계 누들, 오리지널 면 요리 외에도 새로운 누들을 맛볼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체험 존도 알차게 준비했다.

대형 제면 틀을 이용한 퍼포먼스가 시작되고 축제의 막이 오르면 월화거리는 누들 천국으로 변모한다. 흥을 끌어올리는 것은 단연 체험 존의 누들 요리 경연대회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가지고



즉석에서 겨루는 누들 레시피 대회와 빨리 먹기, 수타 대회 등이 흥미진진하다. 나만의 누들 밀키트나 나무젓가락을 제작하는 프로그램, 누들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축제의 열기에 뛰어들어도 좋다. 강릉 버스킹 전국대회와 연계한 누들 플리 버스킹으로 맛있는 음식에 음악을 더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축제 기간에는 누들맵을 이용해 강릉 전역의 로컬 음식점을 직접 방문한 후 음식을 맛보고, 스탬프를 적립할 시 상품을 지급하는 누들로드 투어도 진행한다. 맛있는 면 요리로 강릉의 맛과 흥을 만끽할 기회다.

문의 033-640-5130



향긋한 양양, 송이연어축제

강원도 양양이 울가를 상식한 먹거리로 여행자를 부른다. 2024 양양 송이연어축제가 돌아왔다.

산속 소나무 뿌리 근처에서만 자라고, 인공 재배가 어려운 송이버섯은 예부터 귀한 식재료로 여겨졌다. 특유의 은은한 향과 쫄깃한 식감이 일품인데, 그중에서도 최상품이라 소문난 것은 강원도 양양 송이버섯이다. 풍미 가득한 양양 송이와 더불어 남대천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주인공인 '2024 양양 송이연어축제'가 올해도 남대천 둔치를 찾는다.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펼쳐지는 축제의 슬로건은 '우리 함께, 자연스럽게'다. 단순히 양양 특산물 송이와 연어를 맛보는 행사로 끝을 맺지 않는다. 식재료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는 데에도 초점을 맞췄다. 빛 거리 축제에서 그 진심이 도드라진다. 강



을 거슬러 온 연어를 환영한다는 뜻에서 남대천 근처를 빙글 돌고, 자연이 선사한 선물인 송이버섯 조형물을 곳곳에 놓았다. 송이버섯과 연어의 생태가 궁금한 이는 전시관을 찾아가자. 생태 해설 전문가가 상주해 그들의 세계를 상세히 설명하는 데다 현미경으로 관찰할 기회가 주어진다. 남대천 일대를 탐방하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도 연다. 축제장 내 코스를 돌거나 국화원, 송이공원, 갈대 덕 길을 지나며 온몸으로 자연을 만끽한다. 송이연어 키링 만들기, 풍선 아트 체험, 연어알 뽑기 경품 행사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하니 양양으로 가을 나들이를 떠나도 좋겠다. 문의 033-671-7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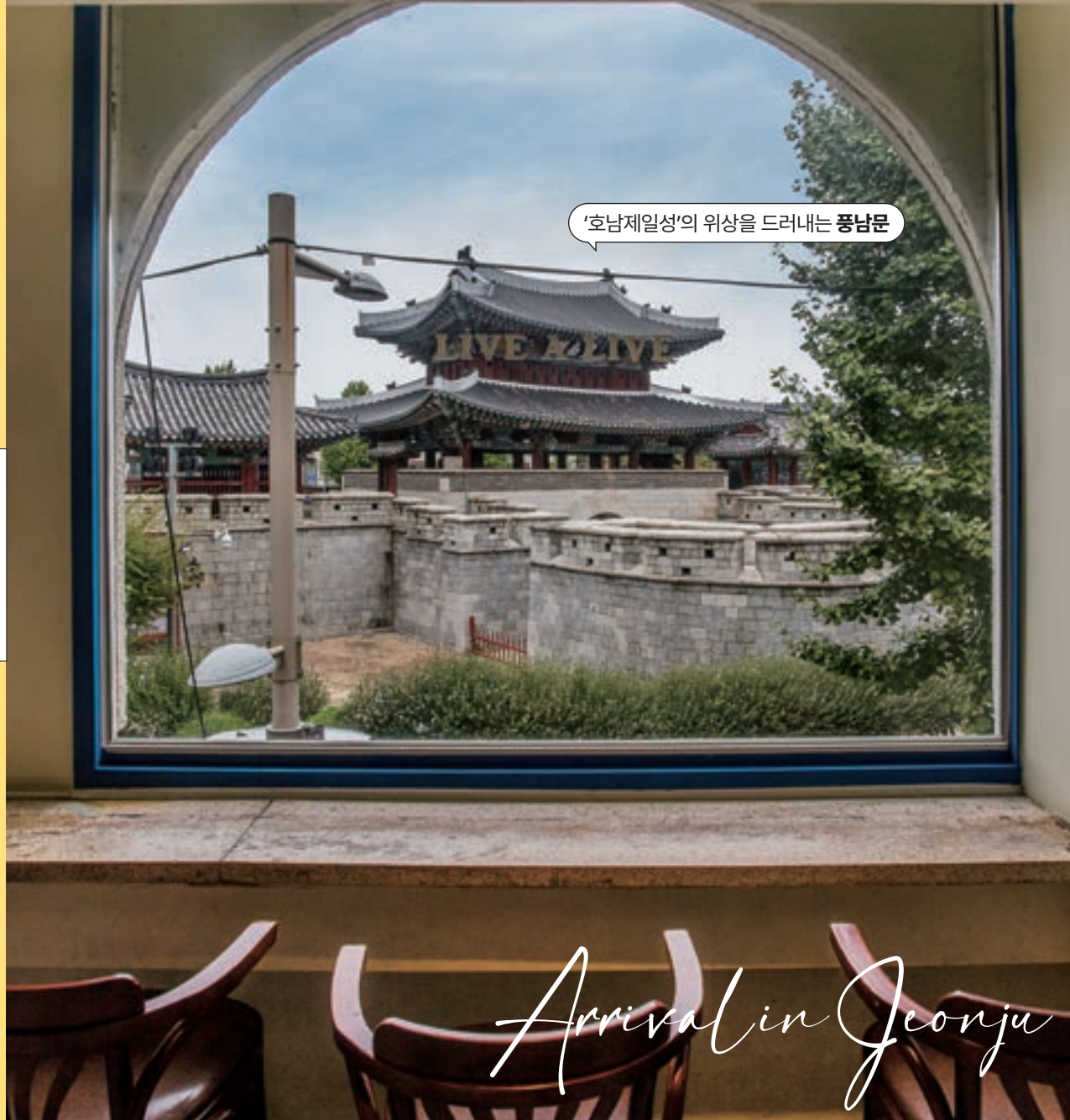


축제 같은 하루, 전주 24시

10월, 불꽃처럼 형형한 축제의 즐거움이 도시를 에워싼다. 온종일 걸어도 가슴 벅찬 땅, '온고을' 전북 전주에서 보낸 하루를 펼친다.



취재 협조 전주시청



Arrival in Jeonju

들쳐 멘 배낭엔 아직 새벽 공기가 배어 있다. 오전 10시, 풍남문과 얼굴을 바짝 맞댄 카페 '라이브어라이브'에 들어섰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숨을 돌리니, 그제야 창문을 가득 메운 문루가 눈에 든다. 견고한 석축부터 호방한 팔작지붕에 이르는 압도적 실루엣. 과연 '호남제일성' 전주에 도착했음을 실감하게 하는 장면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길을 나선다. 천년의 기억을 간직한 거리, '계미'가 흘러넘치는 밥상, 수백 살 먹은

은행나무와 회화나무, 말끝을 늘어뜨리는 다정한 사투리, 전통 예술의 명맥을 지켜 왔다는 곳곳한 자부심... 시간이 물처럼 흐른다 한들 여전할 전주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고 싶었다. 다행히 여행자의 열망은 KTX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실현되었다.

전주다운 장면을 만나는 법

돌올한 땅, 전주를 전주답게 하는 풍경은 무엇일까. 답을 구하기 위해 조선 시대 전라도 관찰사의 눈을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전주역까지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빌리기로 했다. 기록에 따르면, 갓 부임해 전주에 당도한 전라도 관찰사는 조경묘와 경기전에 참배한 뒤 집무실인 전라감영에 다다랐다. 이따금 풍패지관을 찾아 한양의 임금을 향해 망꺽레도 올려야 했을 테다.

풍남문, 풍패지관, 전라감영, 경기전. 조선 왕조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는 네 장소를 두 발로 이어 나간다. 우선 전주를 에워싼 성벽의 남쪽 성문, 풍남문부터 살핀다. 고려 공양왕 원년에 세운 전주부성은 왕조가 바뀌고 전란을 맞으며 무너졌으나, 조선 영

조 때 전라도 관찰사 홍락인이 '풍패의 남문'이라는 의미를 담아 새 이름을 붙인 성문을 복원한다. 풍패는 한나라 고조의 고향을 이르는 말로, '왕조의 본향'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전주부성과 함께 지은 객사 풍패지관이 풍패라는 단어를 사용한 또 하나의 건물이다. 2010년 문화유산 지정 명칭 변경 이전까지 이곳은 '전주객사'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이는 원도심 최대 변화가 객사길의 어원이기도 하다.

풍남문과 풍패지관 사이, 전주가 500년간 전라도



전주 문화 예술의 구심점 전라감영

의 수부였음을 증거하는 전라감영이 자리한다. 감영 터를 점유해 온 전북도청이 이전하면서 대대적인 전라감영 발굴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선화당·관풍각·연신당·내아·내삼문에 이르는 주요 건물이 그대로 재건되었다. 전라감영은 행정기관을 넘어 호남 문화 예술의 구심점이기도 했다. 종이를 제작하는 지소와 책을 찍는 인쇄방을 두고 '완영(전라감영)책판'으로 '완영본'을 펴냈으며, 선자청을 설치해 임금에게 진상할 부채를 생산했다. 그뿐인가. 내로라하는 소리꾼의 경연인

10월 한 달 내내 전주 전역에서 축제를 즐긴다. 주요 축제를 포함한 전주페스타 2024는 물론,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펼쳐질 전주문화유산야행도 주목할 만하다. 문의 www.jeonjufesta.com(전주페스타 2024), www.jeonjunight.com(전주문화유산야행)



전주대사습놀이를 감영의 통인청이 주관하기도 했다. 비옥한 전주 땅은 백성들의 배를 불렀고, 문화와 예술도 살찌웠다.

'조선 팝'의 신명 나는 풍경

10월, 전주는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 예술 콘텐츠를 모아 초대형 축제 '전주페스타 2024'를 연다. 천년을 이어 온 전주의 공예, 출판, 미식, 공연의 멋과 흥을 한자리에서 만끽할 기회다. 전주, 나아가 전라도

문화의 근간인 전라감영에서 전주페스타를 미리 엿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통음악과 대중성을 접목한 조선 팝 뮤지션 '살롱드국악 선율모리'(이하 선율모리)에게 만남을 청한 것이다. "전통 박자인 '모리'에 서양의 선율 악기를 실어 청년의 삶을 이야기하는 음악을 창작, 연주하고 있어요." 선율모리를 이끄

살롱드국악 선율모리는 전북 지역 청년으로 이루어진 복합 장르 창작 단체다. 여러 장르의 선율 악기로 전통음악에 기반한 실험적이고 다채로운 무대를 펼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선율모리'와 인스타그램(@sunyu_mori_official)을 통해 이들의 음악 세계를 경험해 보자.





조선 왕조의 시작 경기전



는 김혜련 대표가 달뜬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가야 금병창인 저 김혜련과 기타리스트 임채성, 첼리스트 김성민, 전통 타악 연주자 이민혁. 저희는 전북 권역에서 활동해 온 청년 음악가예요. 전북, 특히 전주는 전통음악의 중심지이자 여러 예술 장르가 공존하며 융합하는 도시라고 생각해요.” 지역의 예술 유산은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선율모리의 모든 곡은 순수 창작곡인데, 그중 전라도 사투리에서 착안한 ‘아따, 거시기’라는 곡에서 지역성을 살려 보았어요.” 제목처럼 ‘아따, 거시기’로 시작해 ‘어깨춤 들



<KTX매거진>×MBC 라디오 <노중훈의 여행의 맛>

전북 전주에 다녀온 <KTX매거진>이 MBC 표준FM <노중훈의 여행의 맛>을 통해 독자, 청취자 여러분과 만납니다. 기자의 생생한 목소리로 취재 뒷이야기, 지면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여행 정보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 2024년 10월 5일 오전 6시 5분(수도권 95.9MHz)
* QR코드를 스캔하면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씩들씩하게 불러 볼랑께/ 일어나 추임새 한마디 해 보소”라며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노래로, 만남과 인연을 축복하는 가사가 절창을 이룬다. “내년엔 선율모리의 첫 앨범을 발매하고 네 번째 콘서트를 열 계획이에요. 춘향이의 꿈을 표현한 ‘갈까 보다’와 심청가를 편곡한 ‘청, 두리둥’에서 시도했듯, 판소리와 동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봉안한 경기전, 어진 진본과 어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 어진박물관에서 조선 왕조 500년의 자취를 살핀다.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건물과 정원이 눈을 편안하게 한다. 문의 063-281-2788(경기전), 063-231-0090(어진박물관)

시대적 목소리를 엮은 선율모리만의 실험적인 음악을 보여 드릴 거예요.” 이들의 꿈결 같은 화음과 이야기 동심원을 그리며 고막을, 마음을 파고든다.

경기전에서 오목대까지, 조선을 걷다

오후 1시, 훑날리는 가랑비가 기와지붕을 질은 먹빛으로 적신다. 흐린 날의 정취마저 근사한 곳, 전주한옥마을에 다다랐다. 고아한 돌담을 따라 걷는 동안 낮익은 풍경을 맞닥뜨리고, 변하지 않아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하며 위로를 얻는다. 방문객과 상업 시설이 늘어나 시골벽적해졌어도, 전주한옥마을은 경기전과 오목대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첫손에 꼽힐 도시의 랜드마크다. 한 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한옥을 중심으로 한복, 한식, 한지, 한방 등 한국 전통 문화가 축적되어 2010년 국제슬로시티연맹이 지정한 슬로시티로 공인받기도 했다. 이 마을이 일제에 맞서고자 1910년대부터 조성한 한옥 주거 지구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은, 의외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복잡복잡한 태조로를 뒤로한 채, 우리의 걸음은 경

기전으로 빨리 들어간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보관한 경기전과 전주 이씨 시조의 위패를 모신 사당 조경묘. 두 장소의 공통점은 '경사 경(慶)' 자를 품었다는 데 있다. 여기서 경사란 조선 왕조의 창건을 의미한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의 어진을 봉안하기 위한 전각 어용전을 전주, 경주, 평양에 지어 올렸다. 세종 때 전주의 어용전에는 실록을 보관하는 전주사가 들어섰고, 태조 어진을 봉안하던 진전의 이름도 경기전이라 새롭게 명명했다. 빗물을 머금은 경기전의 녹음은 어느 때보다도 질푸



르고 무성했다. 하늘을 다 가릴 듯한 아름드리 나무와 신비로운 대나무 숲, 아직 꽃을 채 떨구지 못한 분홍빛 배롱나무... 청량한 풀 향기와 따뜻한 흙 내음이 뒤섞여 코를 찔렀다. 정문과 홍살문을 지나 태조 어진을 알현하고, 수복청·마청·서재·제기고·조과청 등 부속 건물을 둘러본 뒤 현존하는 유일의 태조 어진을

모신 어진박물관, 조선의 시작을 상징하는 조경묘, 예종대왕 태실비와 전주사고까지 한붓그리기하듯 걸었다. 모든 순간이 인상적이었는데, 경기전의 담장과 전통성당의 이국적인 지붕이 포개어지는 모습만은 유독 오래도록 잔상이 남았다.

전주한옥마을의 보석 같은 공간들

경기전 남동쪽 언덕바지에 오목대가 자리한다. 수백 채 기와지붕이 어깨를 맞댄 그림 같은 장면을 굽어

전주한옥마을에는 매력적인 문화시설이 여럿이다. 전통과 현대가 교감하는 공예의 풍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전주공예품전시관을, 폐공장을 활용한 전시 공간이 궁금하다면 교동미술관을 찾아야겠다.
문의 063-281-1610(전주공예품전시관), 063-287-1245(교동미술관)



City at Night

18:00



전주 시민의 싱그러운 휴식처 **덕진공원**

보는 전망대이자, 이성계가 승전 축하 잔치를 열고 '대풍가'를 노래하며 개국 의지를 천명한 장소다. 경기전부터 오목대까지 이르는 길은 고작 500미터 정도에 불과하나, 골목 곳곳엔 전주한옥마을의 진정한 멋을 경험하게 하는 공간들이 밀도 높게 자리한다. 각별히 손꼽고 싶은 두 곳은 전주공예품전시관과 교동미술관이다. 전주의 공예 문화를 망라한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전북 지역 명인이 제작한 작품을 감상하고 구매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부채와 가방, 모빌과 소반 등 공예품을 손수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즐거울 것이다. 전시관의 사랑스러운 호랑이 캐릭터 '호사원'을 활용한 디자인 소품은 훌륭한 여행 기념품이 되어 준다. 교동미술관은 한때 이 일대에 자리했던 봉제 공장 지구의 기억을 보존하고자 건물 일부를 그대로 살려 조성한 시각 미술 중심 전시 공간이다. 소담한 조각 정원, 노동자들의 지난한

어둠이 내리면 한층 더 아름다운 덕진공원과 연화정도서관을 누빈다. 덕진공원 한편에는 지역 출신 문인들의 시비가 도열해 있고, 연화정도서관 외벽은 화려한 미디어 콘텐츠를 프로젝션 맵핑으로 연출한다.
문의 063-281-8661(덕진공원), 063-714-3527(연화정도서관)



공원 속 독서 낙원 **연화정도서관**



역사를 엿보게 하는 재봉틀, 한지사를 활용한 자체 섬유 브랜드 'GD 아트'의 고운 패브릭 제품들이 마치 하나의 작품인 양 조화롭게 펼쳐져 있다.

반짝반짝, 전주의 밤

전주의 멋은 덕진공원으로 이어진다. “영(嶺) 넘어/ 구름이 가고/ 먼 마을 호박잎에/ 지나가는 빗소리/ 나비는 빈 마당 한 구석/ 조으는 꽃에/ 울너머/ 바다를 잊어/ 흐르는 천년이/ 환한 그늘 속 한낮이었다”.

산책로 한편에 놓인 전북 출신 시인들의 시비를 살펴보다가 이철균 시인의 '한낮에'에 마음이 머문다. 오후 6시. 어느덧 한낮에 내리던 비가 멎더니, 구름 사이에 저무는 햇빛이 아른거린다. 연잎이 너울을 이루는 덕진호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전주 8경 중 하나로 꼽는 '덕진채련'의 풍광이 이런 것이리라. '큰 나무'라는 뜻을 지닌 덕진(德津)이란 이름은 덕진호에서 왔다. <동국여지승람>과 <택리지>에 등장할 만큼 유구한 역사를 지닌 호수다. 후백제의 견훤이 방어 전략을 위해 만든 늪이라는 설, 풍수에 따



라 지맥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방을 쌓고 물을 가득었다는 설 등 호수의 기원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 오지만 무엇 하나 명쾌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 전주 사람들은 그저 이 호수와, 호수를 둘러싼 공원을 사랑했다. 창포와 연꽃, 벚꽃이 수놓는 계절이면 낭만은 증폭된다. 호수 한가운데 놓인 연화교를 건너 연화정도서관으로 간다. 전통 한옥의 건축미를 살린 건물 외벽은 때때로 눈부신 미디어 파사드 배경이 된다. 편안한 좌석에 앉아 문살 너머 덕진공원의 풍경을 마주한 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팔복예술공장 일원에서 '미래문화축제 팔복, 새로운 시작'을 개최한다.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와 인문학 강연, 플리마켓 등 미래로 나아가는 실험적 전시와 공연, 행사를 만나 볼 기회다. 야간에도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70-7711-3748(미래문화축제)

카세트테이프의 추억 **팔복예술공장**



전북 출신 문인들의 책을 뒤적이는 여유를 즐겼다. 특히 <원미동 사람들>과 <모순>을 쓴, 전주에서 나온 자란 작가 양귀자의 소설은 줌처럼 손에서 떼기 어려웠다. 눈 깜짝할 새 밤이 찾아왔다. 전주는 지난해 국제명소형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됐다. 밤이 낮만큼이나 화려한 도시라는 뜻이다. 어둠이 완전한 오후 8시.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면모를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다. 공장을 개조한 복합 문화 공간인 팔복예술공간에서 남은 밤을 보내기로 했다. 카세트테이프 모양으로 불 밝힌 네온사인 가로

등, 조명에 휩싸여 꽃망울을 틔운 듯한 이팝나무 가로수, 광선 검처럼 기묘한 빛을 발하는 굴뚝... 한때 방치되었던 폐공장이 이렇게나 휘황한 밤의 놀이터가 됐다. 카세트테이프에서 흘러나올 법한 흥겨운 음악이 귓가에 맴도는 기분이다. '팔복예술공장'이라 커다랗게 써 붙인 기름 탱크마저 근사해 보인다. 비로소 전주가 지닌 아름다움의 연원을 알 듯하다. 이 도시엔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변함없이 지켜 내려는 마음이 있다. 또다시 천년이 흐른다면 그대로일 전주다. **㉠**





A Day of Festivities in Jeonju

Jeonju in Jeollabuk-do Province is a vibrant city that fills your heart. After walking all day, the lively joys of the city coursed through me like sparks of fire.

There are things that remain unchanged, even after many years. It is to encounter those very things that we willingly set out on a journey. Streets that carry memories of a thousand years, tables overflowing with local delicacies, centuries-old ginkgo and pagoda trees, the affectionate dialect that lingers at the end of each word, and the unshakable pride of preserving traditional arts.... I wanted to witness for myself the timeless beauty of Jeonju, and fortunately, this longing was realized as quickly as the speed of the KTX train.

Meeting the Essence of Jeonju

In the heart of the street connecting Pungnammun Gate and Pungpaegigwan Guesthouse, stands Jeolla Gamyeong, a testament to Jeonju's 500-year history as the capital of Jeolla-do Province. Jeolla Gamyeong, once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the provincial governor, was more than just a government building—it also served as a cultural and artistic hub. It housed a paper-making workshop and a print shop that produced the famous Wanyong edition, and had a fan-making facility that crafted fans for the king. Moreover, Jeolla Gamyeong played host to the Jeonju Daesaseupnori, a renowned competition for Korea's top singers. The fertile lands of Jeonju not only fed the people but also nourished culture and art.

In October, Jeonju gathers its representative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for the grand festival—Jeonju Festa 2024. This is an opportunity to enjoy the crafts, publishing, cuisine, and performances that have contributed to Jeonju's charm for



over a thousand years. Before the official Jeonju Festa kicks off, we were offered a preview of it at Jeolla Gamyeong, the cradle of Jeonju and Jeolla culture. Seonyulmori, a musical group blending traditional Korean music with modern pop, gave a splendid performance. “We create and perform music that reflects the lives of young people, using instruments that bridge tradition and modernity, East and West,” said Kim Hye-ryeon, leader of Seonyulmori. “Jeonbuk, especially Jeonju, is a hub of traditional music. It's a city where various artistic genres coexist and blend harmoniously.”

From Gyeonggijeon Shrine to Omokdae

A light drizzle darkens the tiled roofs with a deep ink-like hue. Even on a cloudy day, the charm of Jeonju Hanok Village is captivating. As you walk along the elegant stone walls, you encounter familiar sights, and find comfort in the beauty of things that remain unchanged. Although the increase in visitors and commercial establishments has made the area more bustling, the village will forever be the top landmark for as long as Gyeonggijeon Shrine and Omokdae exist.

The alleys of Jeonju Hanok Village are densely packed with places that exude irresistible charm. Two particularly notable spots are the Jeonju Crafts Exhibition Hall and the Gyo Dong Museum of Art. At the Jeonju Crafts Exhibition Hall, which showcases the entirety of Jeonju's craft culture, visitors can admire and purchase works created by master artisans from the region. There are also hands-on programs where you can create your own crafts—such as fans, bags, mobiles, and traditional wooden tables. The Gyo Dong Museum of Art preserved part of the building's original structure to retain the memories



of its past as a factory. A cozy sculpture garden, sewing machines that hint at the workers' arduous past, and textile products from the museum's fiber brand GD Art all coexist harmoniously in well-balanced spaces.

Jeonju's Glittering Night

Last year, Jeonju was selected as an International Night Tourism Specialized City, meaning that it's just as dazzling by night as it is by day. As the darkness settles around 8 p.m., it's the perfect time to admire the city's nighttime splendor. I spent the rest of the night at the Factory of Contemporary Arts in Palbok, a multi-cultural space repurposed from an old factory. Neon streetlights shaped like cassette tapes illuminated the path, chimneys emitted beams of light reminiscent of lightsabers, and the vibrant, rainbow-colored walls of the buildings added to the whimsical atmosphere. Once a factory producing cassette tapes, the Sorex Factory has now transformed into a brilliant nighttime playground. I finally understood why Jeonju is so beautiful—there are things here that remain unchanged despite the passing of time, made possible by a strong commitment to preserve tradition. No matter how many millennia may pass, Jeonju will remain as it is. 📍



전주에서 여기도 가 보세요



즐길 거리



전주페스타 2024 맛, 멋, 흥. 전주 하면 떠오르는 세 단어다. 10월 한 달 동안 전주비빔밥축제·국제한지산업대전·전주독서대전·전주조선팝페스티벌·전주막걸리축제에 이르는 다섯 개 통합 축제와 전주한바탕어울림공연, 드론 쇼, 달콤스토어, 전주페스타 맛자랑, K뮤지컬 마당창극 등 각각각색 프로그램이 전주의 맛, 멋, 흥을 제대로 발산한다. 첫째 주는 '전주를 비벼라!', 둘째 주는 '전주의 멋, 그리고 맛', 셋째 주는 '맛깔나는 전주 소리', 넷째 주는 '전주의 추억에 취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주가 지닌 문화 콘텐츠를 펼친다. 화려한 개·폐막 식도 놓치면 아쉽다. 문의 www.jeonjufesta.com



문화공판장 작당 풍남문 너머 남문장의 역사를 계승하는 남부시장. 앞서 청년몰의 활기가 남부시장을 주목하게 했다면, 이제 '문화공판장 작당'이 배턴을 넘겨받아 새로운 문화적 동력을 일으킨다. 시장 한편, 옛 원예 공판장 부지를 활용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이곳은 서브컬처 중심의 콘텐츠를 더 많은 이와 향유하기 위한 전시, 행사,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청년 스트리트 아티스트의 저력을 보여 준 개관전 <희망의 그래피티: 스트리트 아트의 힘>에 이어 현재는 참신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다음 행사를 기획 중이다. 인스타그램 (@jaktang118)을 통해 소식을 확인해 보자. 문의 070-4219-2100

먹거리



가족회관 대한민국 식품 명인이자 전라북도 무형유산, 전주 음식 명인 1호에 빛나는 '가족회관'의 김년임 대표가 완성한 비빔밥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주비빔밥의 원형이다. 반지르르한 노그릇에 갖가지 나물과 채소를 신선로 형태로 담아 재료 본연의 미감을 극대화한 전주비빔밥. 흐드러지는 꽃밭처럼 풍요로운 한 그릇이다. 이제 김 대표의 딸 양미 대표가 2대째 손맛을 잇고 있다. "어머니는 비빔밥이 인생이라 하셨지만, 제게 비빔밥은 어머니예요." 가족회관의 또 다른 내력은 해마다 전주비빔밥축제에서 초대형 비빔밥을 선보여 온 것. 올해도 2024인분의 비빔밥을 준비한다. 문의 063-284-0982



옛촌막걸리 상다리가 부러진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2002년 완산구 서신동에서 '옛촌막걸리'를 시작한 최인덕 대표는 푸짐하고 맛깔스러운 한 상 차림 안주를 내걸고 막걸리 문화의 판도를 바꾼 인물이다. 기본 상 '한상'을 주문하면 김치찌개와 들깨삼계탕, 생선구이와 김치전에 막걸리 한 주전자를 넉넉하게 차려 주는 이곳 인심이 전북대학교 학생들과 전주 문화계 인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소문났다. 막걸리 또한 자체 기술로 고집스럽게 양조하는데, 김치유산균과 해독순으로 발효하고 스테비아로 당도를 맞춰 건강하고 속 편하게 즐길 수 있다. 문의 063-272-9992(옛촌막걸리 본점)

BRENTWOOD

프로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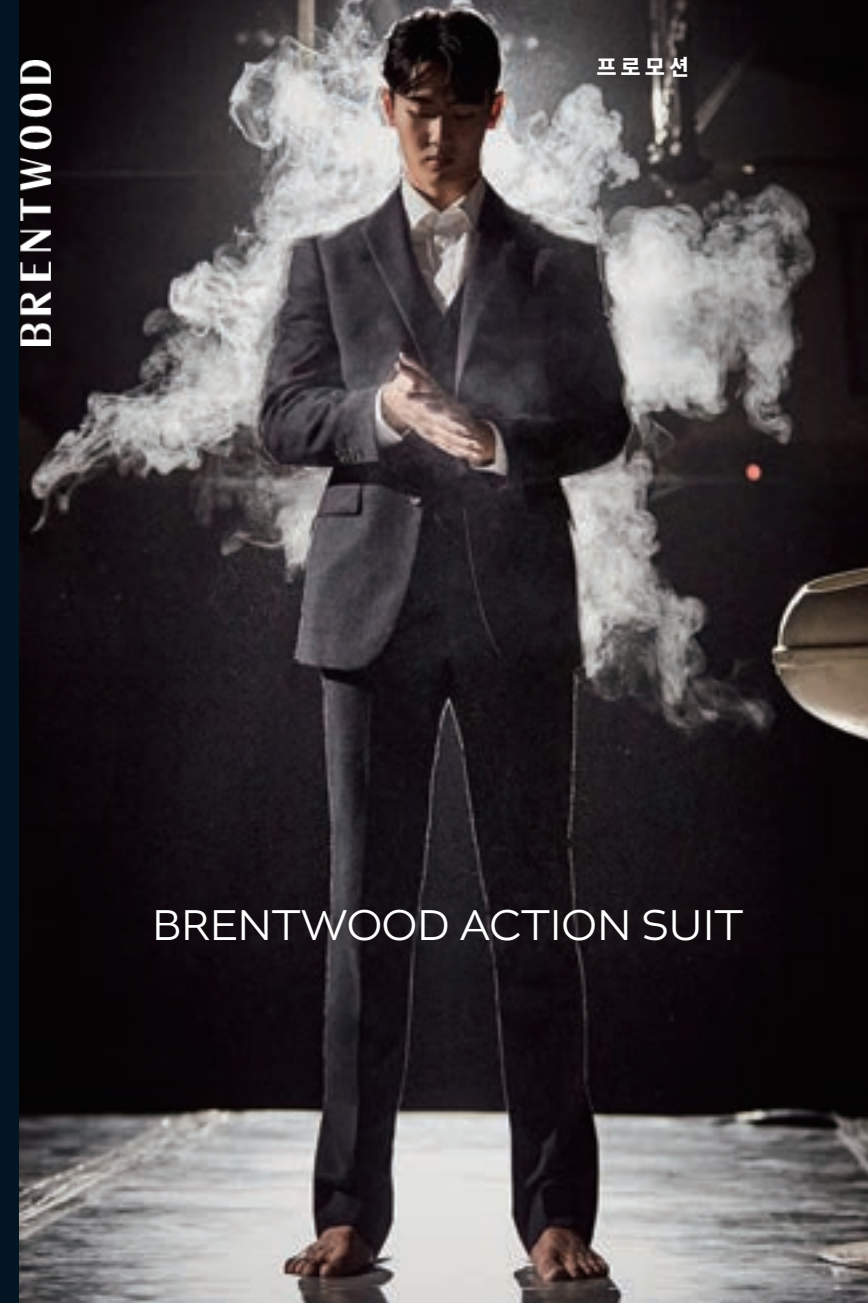
유연한 우아함, 브렌우드 액션수트

올 혼방 소재를 적용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브렌우드의 액션수트. 활동성과 보온성, 완벽한 착용감을 경험할 때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남성복 브랜드 브렌우드가 올가을 한층 업그레이드된 '액션수트'를 출시했다. 활동적인 비즈니스맨을 위해 2020년 탄생한 액션수트는 특허받은 액션 밴드를 적용해 월등한 스트레치 기능을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움직임이 잦은 어깨 부분에 스트레치 메시 안감을 덧대 활동성을 극대화한 재킷, 파워 스트레치 소재와 히든 밴드를 적용한 팬츠는 장시간 입고 있어도 가볍고 편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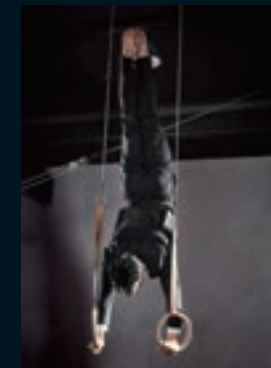
이번 시즌 브렌우드는 울마크와 협업해 메리노 울 혼방 소재를 적용한 프리미엄 액션수트를 출시했다. 보온성과 통기성이 우수하고 주름 회복성이 높은 메리노 울은 날마다 착용하는 스마트 캐주얼 룩에 제격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섬유 품질 로고 울마크가 신뢰감을 높인다.



BRENTWOOD ACTION S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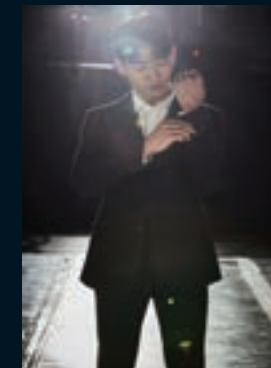
기계체조 김재호 선수와 함께한 '액션수트 챌린지'

액션수트 챌린지는 브렌우드가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 매년 한 가지 스포츠를 선정해 선보이는 시그니처 캠페인이다. 지금까지 테니스, 카포에이라, 마살아트, 파쿠르, 비보잉 등 다양한 챌린지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시즌에는 김재호 선수가 액션수트의 뛰어난 기능성과 활동성을 보여주는 챌린지를 완성했다. 기계체조 같은 극한의 움직임 속에서도 완벽한 착용감과 기능성을 제공하는 액션수트의 진가를 확인해 보자.



액션밴드 ACTION BAND

특허받은 액션 밴드를 적용해 활동성과 착용감이 뛰어나다. 어깨선 안쪽 절개 부위에 스트레치 메시 안감을 덧대 움직임이 자유롭다.



스트레치 소재 STRETCH

재킷 등판과 어깨, 팬츠 허리 부분에 신축성이 우수한 스트레치 소재를 사용했다. 유연하게 몸에 감기는 옷감이 기동성을 높여 준다.



히든밴드 HIDDEN BAND

팬츠 허리 부분 양쪽에 히든밴드를 넣어 깔끔한 디자인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뛰어난 탄성으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유유자적

해남 기행

투명한 햇살이 드리운 날, 자연과 맛, 역사 세 가지 주제로 전남 해남을 여행했다.



때아닌 늦더위가 일으킨 눅눅한 바람이었다. 살갓에 닿는 공기와 달리 구름 몇 점 흐르는 하늘은 청명하다. 맞닿은 두 계절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날, 발 딛고 선 곳은 한반도 남단 하고도 가장 끝자락에 자리한 전남 해남이다. 조선 성종 때 지리서 <신증동국여지승람>, 1946년에 발간한 문답서 <조선상식문답> 등 여러 문헌이 한반도의 출발 지점을 해남으로 삼았다. 대륙으로부터 뻗어온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고장, 끝과 시작의 경계에서 여정을 펼친다.

두륜산 자연 아래에, 대흥사

해남 삼산면 구림리를 들머리 삼는다. 두륜산 여덟 봉우리에서 흘러내린 물줄기가 구곡수를 이루고 숲이 우거졌다 하여 붙은 지명이다. 과연 산 아래부터 편백나무, 측백나무가 줄지었다. 숲 사이에 난 계곡을 따라 걸음을 재촉하니 사방이 푸르다. 나무와 꽃이 많아 언제나 녹음이 가득해 봄이 길게 머무른다는 뜻을 가진 장춘숲길에 들어섰다. 포장된 길과 물소리길이라는 표지판을 세운 흙길 시작점에서 고민하다, 계곡을 곁에 둔 물소리길을 선택한다. 1.5킬로미터가량 이어진 길을 느릿느릿 걷는 동안 조르르 물 흐르는 소리와 풀벌레의 합창이 뒤따른다. 이 길로 곧장 오르면 두륜산이 품은 보물, 대흥사와 만난다. 오솔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서정이 가득 차오른다. 봄이 오래 머문다는 길에 어느 계절인들 어울리지 않을까. 봄꽃만큼이나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 길을 상상하던 찰나 부도전이 시야에 들어온다.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탑을 모은 곳인데, 신기할 만큼 개수가 많다. 의문을 해결할 열쇠는 길 끝에 있다.

이따금 땀을 식히는 바람을 반갑게 맞으며 해탈문 근처에 당도했다. 나무가 견고하고 너른 뜰이 드러난 가운데 천년 고찰이 고요하다. “삼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요, 만년 동안 훼손되지 않는 땅이다.” 서산대사 휴정이 이곳 대흥사를 두고 남긴 말이다. 임진왜란으로 혼란하던 조선 중기, 황폐해지는 고국과 왜적에게 목숨 잃는 백성을 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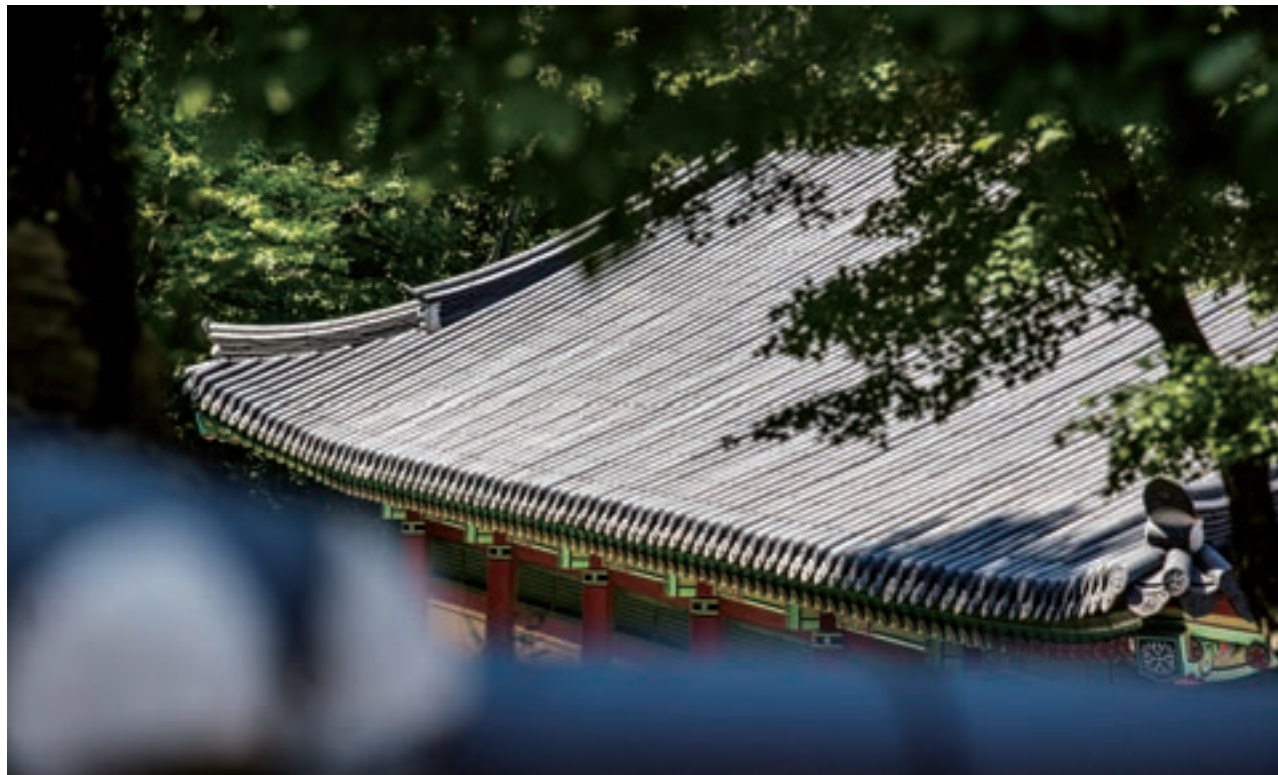


해남과 가까운 기차역은 목포역과 나주역이다.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목포역까지 2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고려 시대 이전에 창건한 대흥사는 2018년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이라는 명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상시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는데 1박 2일 자율형, 주말 체험형, 2박 3일 특별 체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61-535-5775



볼 수 없어 승려가 무기를 들고 나섰다. 서산대사 역시 그중 하나로 승병을 조직해 나라와 백성을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못 백성과 승려의 존경을 받던 대사는 입적하며 자신의 의발을 대둔산, 즉 지금의 두륜산에 전하라고 했고, 제자들은 그의 유족을 받들었다. 신라 시대 법흥왕이 통치했던 514년, 현강왕이 재위하던 895년 등 문헌마다 일컫는 때가 달라 정확한 건립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고려 시대 이전부터 대둔사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것은 확실하다. 대흥사는 서산대사 입적 뒤에 13명의 대종사를 배출하는 등 크게 흥해 이름을 바꾼다. 조선 후기, 차를 다루는 다도에 능통하고 정약용과 깊이 교류했다는 초의선사가 머문 일지암도 대흥사에서 맨눈으로 보이니, 두륜산이 품은 보물은 한둘이 아닌 셈이다.

사찰에 깃든 이야기를 되새기며 안으로 든다. 삼존불을 모신 대웅보전, 불심으로 옥을 하나하나 깎아 만든 1000명의 부처가 자리한 천불전, 서산대사를 기리는 표충사... 500년이 넘는 수령을 자랑하는 연리근 그늘 아래 멈춰 숨을 고른다. 문득 돌이키니 불법을 수호하는 사천왕상을 본 기억이 없다. “눈치채셨나요? 대흥사는 동서남북에 천관산, 선은산, 달마산, 월출산이 자리해 그들의 뭇을 대신합니다. 또 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보호한 서산대사를 모신 표충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자연과 선조가 대흥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다. 오랜 시간 버텨 왔다는 것은 술한 고난에도 변하지 않을 만큼 굳건하다는 의미다. 언제까지나 두륜산 자락을 수호할 곳. 대흥사의 처마와 기둥을, 강인한 그 모습을 눈과 마음으로 쓸었다.

남도의 맛, 해남 산채정식

여행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꼽으라면 단연 음식이다. 찬란한 풍경과 애달픈 이야기도 허기를 이기기는 어렵다. 맛으로는 전국 팔도에서 으뜸이라는 남도에 왔으니 백반 한 상이 더욱 간절하다. 여행의 즐거움을 북돋아 줄



미식을 찾아 길을 되짚어 두륜산 아래로 간다. 김성환·박미순 부부의 35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전주식당’은 늘 해남에서 나온 자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손님상에 낸다. 도시에서 쉬이 볼 수 없는 노각무침, 고춧가루를 가미한 멸치볶음, 파래무침, 애호박볶음 등 정성스러운 반찬에 이어 고사리, 미역, 도라지, 취나물 등을 아낌없이 곁들여 얹은 산채비빔밥이 가운데를 차지한다. 해남 8미 중 하나인 산채정식이 상위를 꼭 채웠다. 윤기 도는 쌀밥을 퍽 털어 넣고, 양념이 잘 섞이도록 비빈 후 크게 한 술 뜬다. 여러 재료가 어우러지다 표고버섯 향이 존재감을 드러낸다. “아따, 반찬도 그렇고 비빔밥 재료들은 손수 농사지어 기른 것들이요. 우리 집 표고버섯은 향긋해서 자꾸 입맛이 당긴단께. 어머, 맛있지라?” 식사에 여념 없을 때 김 대표의 정겨운 사투리가 날아든다. 비빔밥이라면 어딜 가도 밀리지 않는다는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맛깔스러운 비빔밥 한 술에 주인장의 인심, 해남 찹쌀과 멥쌀로 빚은 삼산막걸리까지 곁들이니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해남미남축제가 열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는 식당 인근과 두륜산도립공원이 한층 북적인다. 산채정식



+ 2024 명량대첩축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울돌목 일원에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명량해전 승리를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 해전 재현 행사와 해군·해경 해상 퍼레이드는 축제의 백미이니 놓치지 말 것. 문의 061-286-5265



을 포함한 닭 코스 요리, 삼치회, 보리쌈밥, 떡갈비 등 해남 8미가 총출동하는 데다 특산물인 고구마, 쌀, 향토 음식과 지역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맛보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눈앞에 놓인 밥상이 축제의 예고편 같아서 덩달아 신이 난다. 시원시원한 인심과 손맛이 담긴 음식이 그리울 적엔, 단풍으로 물든 이곳을 다시 찾게 되리라.

바다가 들려주는 역사, 우수영국민관광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장은 남쪽으로 갈수록 그 매력이 더욱 깊어진다. 바다가 일렁이는 해남 끝자락에는 충무공 이순신이 이룩한 역사가 서렸다. 관옥선 열세 척으로 왜군을 무찌른 명량대첩의 무대가 바로 해남과 진도를 가르는 좁은 바다다. 충무공이 승리를 거둔 울돌목을 바라보는 위치에 1990년 명량대첩기념공원을 조성하고 탑을 세웠다. 뒤를 이어 3층 규모로 개관한 명량대첩 해전사 기념 전시관에는 명량해협에서 벌어진 전투의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전법을 쉽게 풀어 쓴 데다 관옥선 내부를 재현한 체험 공간과 게임, AR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관람자가 역사를 생생하게 느끼게 한 점이 인상적이다.

과거를 훑아보는 동안 금세 해가 기울었다. 공원 바로 앞 산책로에 들면 얼마 걸지 않아 울돌목 근처에 닿는다. 소금기 어린 바람을 헤치고 만조를 맞이한 바다가 가까이 다가간다. 유속이 가장 빠르다는 시간을 훌쩍 넘긴 때였으나, 울돌목 스카이워크 주변의 물살은 여전히 거셌다. 고뇌하는 이순신 동상도 거친 파도에 맞서 바다를 지키고 있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다면 국가 또한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란 뜻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란 중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보내는 편지에 적은 글이다. 갑옷이 아닌 관복을 입고, 칼 대신 지도를 든 채 바다를 응시하는 장군의 모습이 어쩐지 처연해 오래도록 머물렀다. 한반도 끝이자 출발점이기도 한 곳. 모든 것이 움트는 지점에 노을이 물든다. 끝과 시작이 또 다시 맞물리는 순간이었다. ㉠





기차 타고

세종

editor. 남혜림 photographer. 신규철



공공 기획 세종시문화관광재단 <KTX에가진>

조치원? '힙'치원!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정수장과 정겨운 테마 거리가 여행자를 부른다.
세종시 조치원에서 시간을 넘나들며 놀았다.



옛 조치원정수장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정수 처리 시설이라는 독특한 내력을 품은 조치원문화정원은 매달 다른 전시,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린다.



쓰임을 다해 버려진 물건도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면 새 생명을 얻는다. 공간도 마찬가지다. 인파로 북적이던 옛 도심, 바쁘게 돌아가던 공장이 잠시 생기를 잃었다가 문화 예술 분야의 상징적 장소로 거듭나 주목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이번 여정의 목적지, 세종 조치원 역시 도시 재생 프로젝트에 힘입어 최근 ‘힙’한 여행지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여행자의 눈길을 끄는 놀이터를 찾아 KTX를 타고 세종시로 향했다.

조치원 여행의 중심, 조치원문화정원

조치원의 역사를 짚기 위해 약 120년 전으로 시간을 돌린다. 철새가 갈대밭 사이를 노닐던 한적한 땅에 철길이 놓인다. 1905년 1월, 경부선 준공 후 조치원역이 영업을 개시하자 일대는 일찍부터 도시로 성장했다. 많은 사람이 오고가니 학교·병원·우체국·은행이 세워지며 도시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갖췄고, 산업이 발달해 역을 기점으로 경공업이 융성한다. 1935년에는 조치원 평리에 물 5000톤가량을 끌어 사용하는 정수장을 설치했다. 당시 조치원이 교통과 산업의 요충지로서 위상이 얼마나 높았는지 짐작이 가능한 지표다.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원도심 조치원은 또 다른 분기점을 맞는다. 교통과 행정의 중심지가 대전 등 인근 도시나 정부

세종청사 근처로 바뀌며 외면받다가 도시 재생 프로젝트와 청년 크리에이터의 유입으로 젊은 감성을 입고 색다른 여행지로 변모하기에 이른 것이다.

변화의 구심점에 조치원문화정원이 있다. 오송역에서 차로 10분, 조치원역에서는 도보 15분 정도 거리에 놓인 공간은 1935년부터 2013년까지 시민에게 물을 공급했던 조치원정수장을 리모델링해 탄생했다. 지역 예술가에게 레지던시를 제공해 전시와 공연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방문자를 위한 정원 내부 투어,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마련한 데다 회의, 세미나, 행사 공간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사용하도록 대관도 한다. 이제 조치원문화정원 이정주 대표와 입주 작가인 장승아 작가의 안내를 따라 구석구석 살핀다.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첫 인상이 아기자기하다. 잔디밭을 앞에 둔 붉은 벽돌 건물 뒤로 6미터가 넘는 높이의 거대한 침전기와 여과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커뮤니티 공간 ‘뜰’, 창작 공간 ‘원’ 등 공간 대부분 정수장 시설과 건물을 고스란히 살렸다.

과거 정수장이었음이 단번에 느껴지는 곳은 전시 공간 ‘샘’. 정수 시설이 있던 지하 공간을 적절히 보수해 작품 전시나 소규모 음악 공연을 열도록 했다. 일상 속 공간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장을 채웠다. 은은한 조명과 무채색 벽 덕분인지 작품에 빠르게 몰입한다. “천장 근처를 자세히 살피면 물때가





조치원을 재현한 곳인데, SNS와 인터넷에서 조치원의 숨은 여행지이자 포토 스폿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친근한 구멍가게와 작은 공방, 카페에서 정겨운 분위기가 흐른다. 옛 교복을 빌려 입은 채 골목에서 사진을 찍고 수다를 떨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하다. “1970년대까지는 이 자리가 시장의 중심이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변화가 생겨 지금은 시장 끝자락에 놓이게 되었죠. 창고처럼 여겨지던 공간이 주민의 힘과 노력으로 생기를 얻어 뿌듯합니다.” 세종전통시장에서 20년간 과채 가게를 운영해 온 세종소상공인협동조합 김성근 대표가 빙그레 웃는다.

조치원의 매력을 알리려는 움직임은 여전히 활발하다. 원도심 일원에 자리한 로컬콘텐츠타운에서도 청년 크리에이터들이 힘을 모아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거나 지역 특산주를 빚는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오래된 도시의 이야기와 예술, 창작자의 열정은 언제까지나 조치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K**



세종전통시장 안 조치원테마거리에서는 시장 투어 프로그램 '전통시장 런닝맨', 플리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44-867-7950



© 조치원문화정원(올라에방X 좋은 길 쉼터)

남긴 얼룩덜룩한 흔적을 발견할 거예요. 벽면의 커다란 파이프도 재미있습니다. 한때 물로 가득 찼던 곳임을 기억하길 바라 남겨 두었어요. 꼭 물속에 들어온 듯하다는 방문객도 많습니다.” 이 대표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린다. 10월에는 도자기와 고양이 초상화 그림을 다루는 전시가 예정되었다니 기대가 부풀다. 일제강점기 근대 건축물의 구조가 뚜렷한 기억 공간 ‘터’는 단장을 마친 뒤 10월 중에 카페가 들어선다. “정수장이라는 정체성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도록 늘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합니다. 학생, 주민과 함께 작업하면서 지역에 녹아들 때 감회가 새로워요. 조치원은 저에게 작업실이자 놀이터입니다.” 도시에 매료되어 아예 거주지를 이곳으로 옮겼다는 장 작가가 덧붙인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조치원문화정원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상기한다. 조치원, 예술, 영감. 하나인 듯 자연스레 어우러지는 단어들에 고개를 끄덕였다.

레트로 감성 가득, 조치원테마거리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러 세종전통시장으로 걸음을 옮긴다. 시장 안, 소박하지만 아늑한 조치원테마거리에서 추억 여행을 떠난다. 세종소상공인협동조합과 지역 주민, 대학생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시장 내 52미터의 짧은 유희 공간에 옛



© 세종시문화관광재단

피넛, 복숭아 등 조치원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세종전통시장에서 만난다. 매월 4, 9가 들어가는 날짜에 오일장이 선다.



세종 여행에서 놓치지 마세요



볼거리



조치원1927아트센터 옛 제지 공장을 재해석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에서 콘서트, 영화, 전시, VR 체험 등 각종 문화 행사를 누리는 경험이 특별하다. 다목적 홀과 연결된 카페 '헤이디'에서는 낮에는 커피와 브런치를, 저녁에는 수제 맥주와 와인을 즐길 수 있다. 문의 044-862-1927



침산추월 조치원 도심에서 캠핑을 만끽한다. '침산리에서 바라본 가을 달'이라는 뜻을 가진 캠핑 체험 이색 카페이자 마을 야영장이다. 소시지, 옥수수, 가래떡, 마시멜로 등 간식을 구워 먹고 야영장과 옥상에서 캠프닉, 오토캠핑을 하며 색다른 추억을 만든다. 캠핑 도구도 대여한다. 문의 070-7777-8649



먹거리



조치원 파닭 가마솥에 바삭바삭하게 튀긴 닭고기에 잘게 썬 파채를 올려 함께 먹는 파닭은 세종전통시장에 위치한 '왕천파닭'과 '신흥파닭'이 원조다. 열기에 파가 익어 매운맛이 덜하고, 파 특유의 향이 닭고기와 어우러져 쉽게 물리지 않는다. 어느 가게를 가도 큰 닭을 사용해 양이 상당하니 놀라지 말 것.



조치원 복숭아 이 고장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명물, 바로 복숭아다. 조치원은 기름진 토양과 충분한 일조량이라는 최적의 생육 조건을 갖춰 1910년대부터 복숭아 재배가 활발했다.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과육으로 이름 높은 복숭아를 원물은 물론 빵, 와인, 디저트 등 다양한 형태로 맛본다.



즐길 거리



2024 세종축제

세종대왕과 그와 관련한 역사 속 인물을 주제로 세종호수공원 일원에서 축제를 연다. 세종대왕의 한글, 장영실이 이룩한 과학, 박연의 음악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WT 태권도 시범, 한글놀이터, 과학놀이터, 시민대합창 등을 알차게 준비했다. 축제 기간 내내 맛보기 불꽃 쇼가 펼쳐진다.

기간 10월 9일~12일



2024 세종보헤미안뮤직페스티벌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보헤미안 정신을 추구하는 음악 페스티벌이 세종중앙공원 도시축제마당을 찾는다. 김창완밴드, 나상현씨밴드, 선우정아, 장기하, 최유리 등 현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역동적인 공연을 선사한다. 예년보다 스탠딩 존을 확대했으며, 서울·부산·대구 등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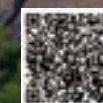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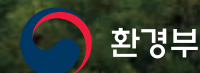
기간 10월 12일~13일

사진 제공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여행을 떠나요,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생태체험

- ♡ 국립공원+농산촌체험
- ♡ 도심인근 자연+문화체험
- ♡ 반달가슴곰+여우 관찰
- ♡ 섬마을+해변길 여행
- ♡ 숲치유프로그램



국립공원 생태체험 연중 일정 확인과 신청은
국립공원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가능



생태 여행

광주

editor. 김현정 photographer. 신규철



생명의 향연 무등산

취재 협조 국립공원공단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은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그 아래 호수와 정자에 잠시 기대었다.

어느새 가을, 뭔가 두고 온 듯
뒤를 돌아보게 되는 계절에 무등산 아래
호수를 걷는다. 산처럼 물처럼,
이만큼만 지혜롭고 어질어지길 꿈꾼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했다. 공자가 말하고 250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회자되는 이유는 그 안에 진리가 들었기 때문일 테다. 덤다는 한탄만 반복하다 어느새 가을, 뭔가 두고 온 듯 뒤를 돌아보게 되는 계절이다. 두고 온 것이 지혜와 어질은 아닌가 하여 물과 산에 기대기로 했다. 광주, 전남 담양과 화순에 걸친 큰 산 무등산 아래 호수가 있다. 물과 산, 지혜와 어질이 공존하는 곳으로 떠난다.

싱그러운 생명의 향연, 광주호호수생태원

등급이 없는 산, 등급을 논할 필요조차 없는 산이라는 이름부터 매혹적이다. 해발 1187미터 무등산은 2013년 대한민국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약 1000미터 고지대에 형성된 서석대, 입석대의 주상절리는 세계에서 희귀한 사례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목록에도 올랐다. 거대한 산은 수많은 생명을 품어 수달, 상체나비 등 멸종 위기종을 포함해 4100여 종 동식물이 살아간다. 산이 머금은 물이 골을 타고 계곡을 이루어 흘러내리니 그 줄기가 호수의 씨앗이 되었다. 자연 호수는 아니고 1976년 댐을 완공해 생긴 광주호다. 1740만 톤을 저수해 광주와 담양 논밭에 물을 대어 우리를 먹여 왔다.

무등산 아래 호수는 풍광을 아까워한 사람들의 노력에 힘입어 2006년 광주호호수생태원으로 거듭났다. 흔한 '공원' 대신 '생태원'이라 부를 만큼 사람보다는 자연 생태에 초점을 맞춘 곳이다. 자연이 자연이도록 사람이 다닐 최소한의 덕만 놓고, 밤이 밤이도록 조명을 설치하지 않아 오후 6시엔 문을 닫는다. 빛도, 사람도 없이 그들끼리 오롯이 보내는 밤을 보장한다는 사실이 새삼 감동스럽다.



무등산국립공원 아래 광주호호수생태원은 1976년 댐을 건설하면서 만들어진 호수를 단장해 2006년 개장했다. 덕을 걸으며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동식물 보호를 위해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한다. 문의 062-613-7892



+ 무등산생태탐방원 & 생태 탐방 프로그램
국립공원공단은 전국의 국립공원 가운데 아홉 곳에 숙소와 강의실, 강당을 갖춘 생태탐방원을 운영한다. 광주 무등산생태탐방원이 진행하는 생태 탐방 프로그램은 해설사가 동행해 광주호호수생태원을 돌아보고, 환벽당에서 액자를 만드는 체험 등으로 알차게 구성했다.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사이트를 통해서도 무등산 사무소의 '천년고찰과 함께하는 숲길 여행' 같은 생태 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간편하게 떠나고 싶다면 코레일관광개발과 협업해 마련한 '기차로 떠나는 국립공원 생태관광' 패키지를 살펴보자. 문의 reservation.knps.or.kr, www.korailtravel.com

생태원에 들어서자마자 저 앞의 호수와 더불어 버드나무와 고마리의 향연이 펼쳐진다. 물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버드나무가 자박한 물을 밟고 서서 몸을 쪽쪽 뻗었다. 자기 개성대로 자란 나무는 단독으로나, 서로 어우러져서나 아름다워 덕을 걷는 속도는 자꾸 느려진다. 검은색 나비가 사람 걸을 스쳐 제집인 양 날아다녀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 보니 제집이 맞다. 제비나비, 암끝검은표범나비, 네발나비 등 이름처럼 예쁜 나비를 연달아 만났다. 딱따구리와 꾀꼬리에 멸종 위기종인 팔색조도 생태원을 터전 삼아, 철 따라 노랫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한편에는 세계 최대 정원 박람회인 영국 첼시 플라워 쇼에서 수상한 황지해 작가가 수상작 '고요한 시간: DMZ' '해우소'를 직접 재현해 놓았다. 걷는 동안 자연을 대하는, 나아가 생명과 삶을 대하는 관점을 돌아보게 된다. 풍경 자체로도 먼 데서 찾아올 만하지만, 산과 물이 생명을 키우고 생명은 그 산과 물을 바라보며 생을 꾸리는 모습은 더욱 장관이다. 지혜와 인자함의 실마리를 얻어 가는 기분이다.

풍경을 사랑하여 짓다, 환벽당과 식영정

광주호호수생태원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에 환벽당이 있다. 푸름을 돌렸다는 이름이 호기심을 부른다. 배롱나무를 줄지어 심어 자미탄이라고도 불렀다는 창계천 옆 언덕에 들어선 정자는 16세기 중반에 사촌 김윤제가 지었다. 노년에 접어든 선생이 벼슬에서 물러나 낙향해 고른 터는 제법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야 한다. 그래 봐야 오늘날의 험란한 전망대와 비교는 불가능하나 계단을 거쳐 만난 전경은 과연 옛 선비가 이걸 두고 두고 누리고 싶어 했구나 하는 감탄이 나온다.

백발의 선비가 정자 마루와 아담한 방에서 글을 읽고 쓰다 문득 눈을 들어 산과 물을 감상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오늘, 건너편 무등산은 꼭대기에 구름을 얹었다. 오늘은 그랬다고, 언젠가는 맑았다고, 눈이나 비가 내렸다고 매일 달라지는 산을 시로 읊었을 것이다. ‘환벽당’ 현판 글씨는 17세기에 우암 송시열이 썼다. 사촌 선생을 이어 정자를 돌보았을 이를 손이 찾아와서는 서로 생각을 나누고, 글씨를 청하고, 부탁을 받아들여 붓을 잡는 모든 과정을 환벽당 마루에 앉아 상상한다. 지금은 거의 멸종했다 할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지, 가을바람이 통과하는 마루에서 내내 웃음이 샌다.

여기서 또 몇 분 걸으면 환벽당과 비슷한 시기에 지은 식영정이다. 가는 길엔 짙막한 충효교가 광주와 담양을 가른다. 이는 행정상 편의를 위한 경계선일 뿐 일대가 같은 생활권이라 수많은 인사가 환벽당, 식영정, 소쇄원 등을 넘나들며 교류했다. ‘쉼 식(息)’에 ‘그림자 영(影)’. <장자>에서 따온 이름인데, 그림자란 사람에게 늘 따라붙는 욕심을 의미한다. 그늘에 깃들여야 그림자가 사라지므로, 양지만 좇아 뛰지 말고 그늘에서 탐욕을 쉬게 해 본질을 궁리하라는 뜻이다.

욕심을 내려놓은 작은 세계, 식영정 마루에 앉아 무등산과 그 아래 호수, 무성한 숲을 감상한다. 터를 내어 주고 빌리고, 생의 조건을 주고받고, 함께 어울려 생태계를 이루는 현장이다. 지구가 아름답다는, 생명은 지혜롭고 어질다는 증거가 장엄하게 펼쳐진다. 선인들도 이 조화를 목격했기에 욕심을 접어 놓고 다만 ‘식영정 20영(詠)’ 같은 시를 썼겠다. 전통 건축의 백미가 차경이라는 말을 증명하듯, 네모난 문을 액자 삼은 경치도 으뜸이다. 마루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한세월이었다.

푸르고 커다란 품에 안겨

환벽당 마당 한쪽 가장자리에는 벽오동나무가 우뚝하다. 이름처럼 나무껍질이 오묘한 옥색을 띤다. 자연의 푸름을 돌렸다는 환벽당에 벽오동나무라! 심은 이가 누군지는 몰라도 그 덕분에 오래도록 즐거워할 기억이 남았다. 멀고 가까운 모든 곳이 푸를 벽(碧)으로 가득 차 사람도 싱그럽게 물든다. 하루 동안 물과 산을 양껏 담았다. 차분히 사색해야 할 이 계절에 이만큼만 지혜롭고 어질어지기를 꿈꾼다. 등급 없는 산, 무등산이 꿈꾸는 사람을 차별 없이 안아 주었다. **㉔**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용산역에서 KTX를 타고
광주송정역까지 1시간 50분
정도 걸린다.

+ 무등산 평촌명품마을

무등산국립공원 내 동림·담안·우성·달피 등 네 개 마을을 묶어 평촌명품마을이라 부른다. 수달과 남생이,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생태 환경이 우수하고, 무등산과 함께하는 경관이 아름다워 가히 명품이라는 이름이 아깝지 않은 마을이다. 2013년 국립공원공단이 명품마을로, 2015년 환경부가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했으며, 광주호호수생태원·환벽당·식영정과 가까이 일정을 계획하기 좋다. 이 지역 농산물로 조리한 자연밥상은 보약이나 다름없다. 생태 숲길 걷기, 도예 체험, 수확 체험 같은 프로그램 또한 풍성하게 준비했다. 무등산을 한 바퀴 도는 51.8킬로미터의 옛길, 무돌길이 마을을 지난다. 문의 blog.naver.com/bandi3287





시장으로 온 청년들 × 울산 청년몰 키즈와 맘



울산 남구에서 지역을 향한 애정이 가득한 청년 상인을 만났다. 무더위가 가신 가을에도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키즈와 맘'은 상인들의 열정으로 뜨겁다.





아이도 편하게 놀러 오는 곳 울산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키즈와 맘

한국 최대 공업 도시로 불리는 울산이지만 남구를 생각하면 조금 다른 이미지가 떠오른다. 여름에는 수국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고래를 테마로 축제가 열려 활기찬 기운이 모여드는 풍경. 울산에 처음으로 생긴 청년몰도 비슷한 느낌을 준다. 1985년 상가형 시장으로 문을 연 신정평화 시장에 2019년 12월 12일 청년몰 '키즈와 맘'이 들어섰다.

키즈와 맘은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청년 창업 지원 목적으로 진행한 청년몰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신정초등학교 바로 앞에 자리해 인근 초등학교 학생과 아

파트 단지 주민을 주 고객으로 정했고, 이층처럼 아이와 보호자 모두 편히 머무르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입맛을 고려한 식당과 카페, 아동복·여성복 상점 등이 입점하고 수유실·놀이방 같은 편의 시설을 마련한 이유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완료해 결제 편의도 제공한다. 이뿐 아니라 키즈와 맘 상인들은 울산을 더 널리 홍보할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획한다. 가게 한 곳 한 곳을 넘어 청년몰 전체가 주목받길, 나아가 울산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어나길 바라며 힘차게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는다.

+ 청년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 공간을 가꾸어 청년몰을 조성하고, 39세 이하 청년을 선발해 가게를 내어 준다. 창업과 관련한 경영 교육은 물론 제품 개발 및 홍보, 점포 운영 등 사업 전반을 돕는다. 청년몰 사업으로 청년은 기회를, 시장은 활력을 얻는다.



울산 신정평화시장 청년몰 키즈와 맘 더 알차게 이용해 보세요

공용 공간

상인들은 청년몰의 공용 공간이 넓은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아이를 등교시킨 보호자 또는 수업이 끝난 학생들이 모임 장소로 활용한다.



체험 프로그램

키즈와 맘에서는 희망하는 상인끼리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해 두 달에 한 번 플라마켓을 연다. 10월에는 12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공동 판매장

공용으로 이용 가능한 판매 공간이다. 수제 어묵 가게 '수레어묵'의 경우 제조실은 별도로 있고, 이곳에 제품을 진열해 손님에게 선보인다.



놀이방

2층 입구 쪽에 놀이방을 마련했다. 8세까지만 입장할 수 있고, 시설 내 취식은 금지한다. 한쪽에 책과 아가 의자도 비치했다.





나를 위한 앞치마

#포인어포인

패브릭 제품

@poin_en_poin



퇴사 후 여러 분야를 배우던 박은정 대표가 가장 흥미를 느낀 건 바느질이었다. 취미를 창업으로 확장시키고자 마음먹었을 때, 마침 청년을 상인 모집 소식을 들었다. '포인어포인'에서 그는 손수 제작한 앞치마, 손수건, 파우치 등을 선보인다. 그중 박 대표가 두른 앞치마가 눈에 띈다. "평범한 옷을 입었더라도 그 위에 예쁜 앞치마를 걸치면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앞치마를 입고 일하니 단순히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으로 다가온다고. 그에게 앞치마는 하루의 많은 시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작업복이다. 앞치마와 파우치 모두 기존 디

자인에서 원단, 사이즈 등을 변경해 주문 제작도 가능하다. 종종 선물용으로 제품을 구매한다는 손님을 만날 때 설렘과 고마움, 보람에 마음이 일렁인다. 울산 여행객을 위한 기념품도 준비 중이다. 고래, 간절곶의 해 등 울산에서 기억에 남았던 장면을 도안화해 자동으로 자수를 놓는 기계를 한쪽에 마련했다. 패브릭 전문 가게이니만큼 한 번 쓰고 버리지 않도록 튼튼한 원단을 고심해서 고른다. 오래 사용할수록 부드러워지는 광목, 흡수성이 좋은 이중 거즈(요루) 원단을 사용하는 이유다. 샘플로 제작한 손수건엔 능률한 고래 장식이 존재감을 드러낸다.



새로운 디저트의 탄생

#경한송젤리



수제 젤리

@hansong_jelly

떡처럼 쫄득한 식감에 초콜릿 맛이 나는 독특한 젤리는 이곳의 시그너처 메뉴, 키젤(Key Jelly)이다. 경한송 대표는 해외의 개성 넘치는 젤리 제품을 자신의 스타일로 소화해 한국 시장에 소개하고 싶었다. 청년몰에 들어와 메뉴 연구에 매진한 끝에 레시피 개발에 성공했고 특허출원까지 마쳤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디저트라고 생각해요." 경 대표가 구축한 '키젤 세계관'에 따르면, 마녀의 마법으로 탄생한 키젤은 본인이 마법을 부린다고 착각한다. 젤리를 먹는 이들이 재미와 맛을 동시에 느끼길 바라는 경 대표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콘셉트다. 정육면체 형태의 키젤은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지만, 곰돌이 모양은 펀딩 커뮤니티를 통해 곧 공개할 예정이다.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이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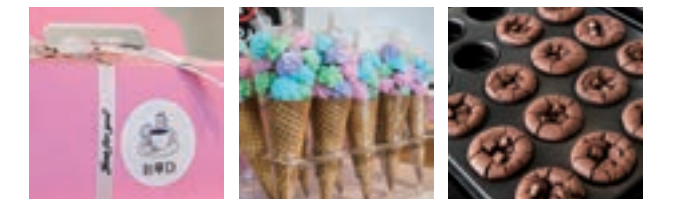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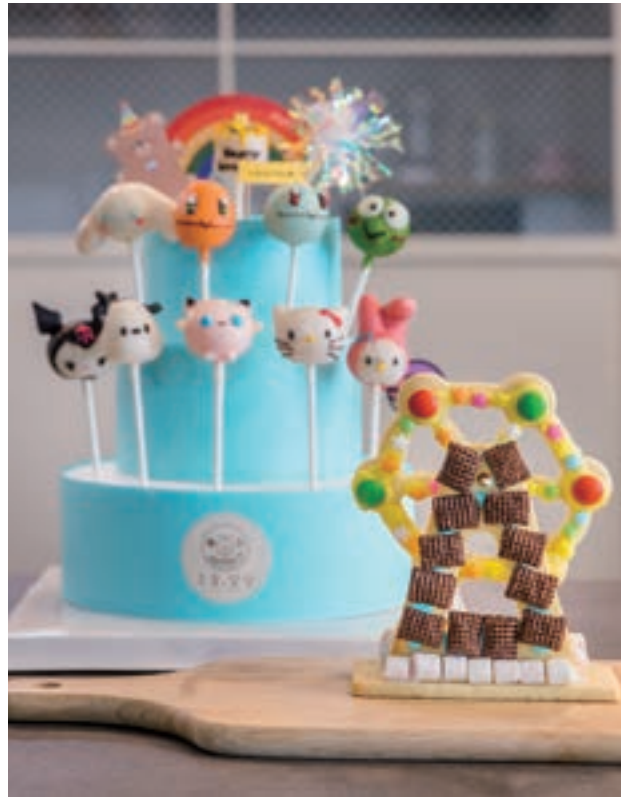
음료·디저트 판매 및 체험

@eluda8859



같은 반 아이들의 학부모로 처음 만나 사업 파트너로 발전한 송혜미·송지민 대표. 송혜미 대표는 결혼 전 직업이 바리스타였고, 송지민 대표도 한때 요식업에 종사했기에 청년몰 입점 상인 모집 공고에 두 사람은 반색했다. "엄마, 뭐 만들어?"라고 물으며 다가오는 아이들은 첫 고객이자 메뉴 결정에 확신을 주는 든든한 지원자다. 이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메뉴 중 하나가 구움 찰떡이다. 달달한 팥 앙금을 넣은 썩 맛 찰떡은 특히 인기가 높다. "신정초등학교 등교 시각에 맞춰 문을 열어요." 아이 등교를 마친 보호자들이 이곳에서 달콤한 바닐라 크림을 올린 아인슈페너 '이루라떼'를 마시며 한숨 돌리고 기운을 얻는다.





달콤한 만들기 시간

#오늘, 달당

발효 식품 및 베이킹 체험

@daldang_day



서승희 대표는 한국장류문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발효 식품을 공부한 뒤, 더 많은 이와 발효 식품의 매력을 나눠야겠다고 결심했다. 이후 성인을 대상으로 고추장, 맛 간장, 보리 썬장, 만능 양념장, 에이드·라테 청 만들기 교육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저를 만나고 그날 하루 기분이 달콤해졌으면 해요." 가게 이름에 '달당'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간 이유다. 수강생의 밝은 기운에 힘을 받는다며 운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의 표정에 깃든 배려와 상냥함이 먼저 전해졌을 테다. 어린이 대상으로 베이킹 클래스도 진행한다. 한 입에 먹는 팝 케이크, 아이싱 쿠키, 관람차 쿠키, 과

자 집 중 팝 케이크를 제외한 세 종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DIY 키트로도 판매한다. "팝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우려고 추천까지 다녀왔어요." 울산에서 유일하게 팝 케이크 수업을 진행한다다는 사실에 자부심이 크다. 자신이 선택한 캐릭터 모양으로 만든 케이크를 그 자리에서 바로 먹어 치우는 아이, 차마 먹지 못하고 들여다보는 아이.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는 시간도 즐겁다. 청년몰에 수업할 공용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은 늘 만족스러운 부분이다. 클래스가 열릴 때마다 그 자리를 지키는 아들도 동력으로 작용한다.



울산을 향으로 기억하는 법

#바림



제조 향수, 커스텀 향수

@balim_perfume



지역명이 들어간 향수 패키지가 눈길을 끈다. 울산향유고래향, 울산심리대숲향, 울산들장미향, 울산포니소금향... "향에 민감하지 않은 것을 장점이라 생각해요." 정보희 대표는 그 덕에 감각을 따르기보다 공부하고 이야기를 입혀 향수를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한다. 1층에는 공방이, 2층에는 작업실이 있어 제조, 손님 응대, 판매가 모두 청년몰 안에서 이루어진다. 울산 곳곳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향에 반해 재방문하는 손님이 여럿이다. 한 인도네시아 바이어는 울산향유고래향이 매력적이라며 울산에 꼭 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 대표의 애정이 담긴 향이 전국 각지, 해외에까지 퍼져 많은 사람을 울산으로 이끌겠다.



울산 대표 어묵을 향해

#수레어묵



수제 어묵

@sure023_odeng



고향 부산의 어묵 공장을 다니면서 광명민 대표와 어묵의 인연이 시작됐다. 일을 배우는 동안 수제 어묵 만드는 기술과 맛에 매료된 그는, 같은 바다 도시임에도 어묵이 유명하지 않은 울산에서 퀄리티 높은 상품을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반죽하고 튀기는 공간과 판매하는 공간이 따로 필요했는데, 청년몰에서 마련한 공용 판매장 덕에 부담을 덜었다. 광 대표는 해외 식재료 조리법에 어묵을 접목하는 등 시장 조사와 연구에 여념이 없다. 같은 어묵이라도 색깔과 식감을 차별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울산 최고 어묵 가게가 목표예요." 매운맛의 인기를 반영해 개발한 청양고추 넣은 매운 어묵 핫바는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이다.





청년 추천 가을 여행지



© 울산연구원



© 울산연구원



© 울산연구원



궁거랑

무거천의 또 다른 이름이 궁거랑이다. 무거천은 2013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후 울산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로 이름을 알렸고, 매년 봄에 궁거랑 벚꽃 한마당 축제를 연다. 만발한 벚꽃 외에도 궁거랑 별빛터널, 유등, 포도 존을 마련해 축제 기간 동안 사람들로 북적인다. 꽃피는 봄이 아니어도 천변을 산책하다 맛집, 카페, 독립 서점 등에 들르기 좋다. 울산대학교와 가까워 학생들이 삼삼오오 노니는 길이기도 하다.

포인어포인 박은정 대표

“벚나무를 심어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한껏 여유로워져요. 벚나무 단풍도 멋지답니다.”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고래를 테마로 한 마을이다. 1986년 포경업을 금지하기 전까지 고래잡이는 장생포의 주 수입원이었다. 그 시절 주민들의 실제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복원했다. 낡은 간판과 전당포를 통해 당시 풍경을 짐작한다. 9월에는 울산 최초의 국가공인 한의사 고 안무원 한의사의 유가족에게 관련 물품을 기증받아 장생포 한의원이 새로 들어섰다. 방문객은 당귀, 감초, 황기 등 40여 종의 한약재를 만지고 향도 맡아 본다.

경한송젤리 경한송 대표

“볼거리가 다양해 아이와 노는 장소랍니다. 걸어도 좋지만 모노레일을 타고 공원을 둘러보세요. 많이 가 본 곳이라 자신 있게 추천해요.”



울산대공원

울산은 196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면서 환경오염을 겪었지만 시와 시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태화강을 1급수로 되돌리는 기적을 이뤄냈다. 울산의 청정한 환경을 보여 주는 대표 명소가 바로 울산대공원이다. 메타세쿼이아길, 느티나무 산책로, 장미원, 연못과 분수 등 자연 생태에 집중한 공간뿐 아니라 다목적 운동장, 물놀이 공간, 키즈 테마파크 등을 갖추어 모두의 휴식처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루다 송혜미·송지민 대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 타고 공원 한 바퀴 어떠세요? 현충탑에 둘러도 뜻깊은 시간이 될 거예요.”



태화강 동굴피아

울산역에서 차로 30분 이동하면 태화강 국가정원에 다다른다. 그 맞은편에 위치한 동굴피아는 일제강점기에 각종 군수물자를 보관하려고 만든 인공 동굴이다. 아픈 수탈 현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접목한 이색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인공 폭포와 분수는 보기만 해도 시원하다. 장생포 앞바다에 사는 고래를 표현한 환한 조명, 미디어아트 등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오늘, 달당 서승희 대표

“동굴 내부가 시원하니까 여름에 자주 찾긴 하지만, 사진 찍기도 좋고 동굴 역사를 알 수 있어 사계절 내내 방문하는 곳이에요.”



태화강 철새공원

울산의 자랑, 태화강의 조류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조성한 철새공원이다. 직박구리,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수십 종의 텃새와 철새를 포함해 여러 동물의 보금자리가 공원에 자리한다. 생태보존이 목적인 곳이라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근처에 태화강 전망대와 철새홍보관이 아쉬움을 달랜다. 철새홍보관에서는 겨울 철새 떼까마귀가 울산을 찾는 과정을 5D 영상으로 생생하게 관람한다.

바림 정보희 대표

“공원 근처 삼호동 공예거리도 멋져요. 무색소쿠기를 파는 ‘아스터’ 등 지역 상점 곳즈와 기념품 가게가 많거든요.”



선암호수공원

선암저수지를 둘러싸고 산책로가 4킬로미터가량 이어진다. 봄에는 수선화,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꽃무릇이 개화해 공원을 아름답게 꾸민다. 무지개 놀이터에서는 미니 기차를 운영하는 등 아이의 호기심을 끌 각종 놀이 시설을 마련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가 높다. 호수 결산책로를 따라 야생화 단지와 장미 터널, 자연학습장, 축구장, 야외 무대 등이 있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좋다.

수레어묵 광영민 대표

“도심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아요. 큰 호수를 보며 생각을 정리하곤 하죠. 겨울에는 철새를 마주치니 반갑고요.”





뿌리 길은 맛, 인삼을 찾아서

인삼엔 인생의 달콤쌉싸래한 맛이 배어 있다.
깊고 오묘한 인삼의 풍미를 제대로 느끼고 싶어서 강원도 홍천으로 떠났다.

홍천

취재 협조 홍천 명품인삼 향토인삼 사업단

신묘한 효험이 있는 풀 '신초', 땅의 기운이 모인 결정체 '토정', 사람이 받들어 모시는 존재 '인합'. 세 단어 모두 인간의 사지를 닮은 약초 인삼을 일컫는 표현이다. 한국에서는 오랜 세월 '심'이라는 고유어가 쓰였다. <동의보감>과 <제중신편> 등 의서에서도 인삼을 '심'으로 적었다. 그런가 하면 산삼을 캐러 산에 가는 일을 뜻하는 '심메',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심마니'는 사전에 등재된 어엿한 표준어다. 한국인의 삶과 삼.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구한 관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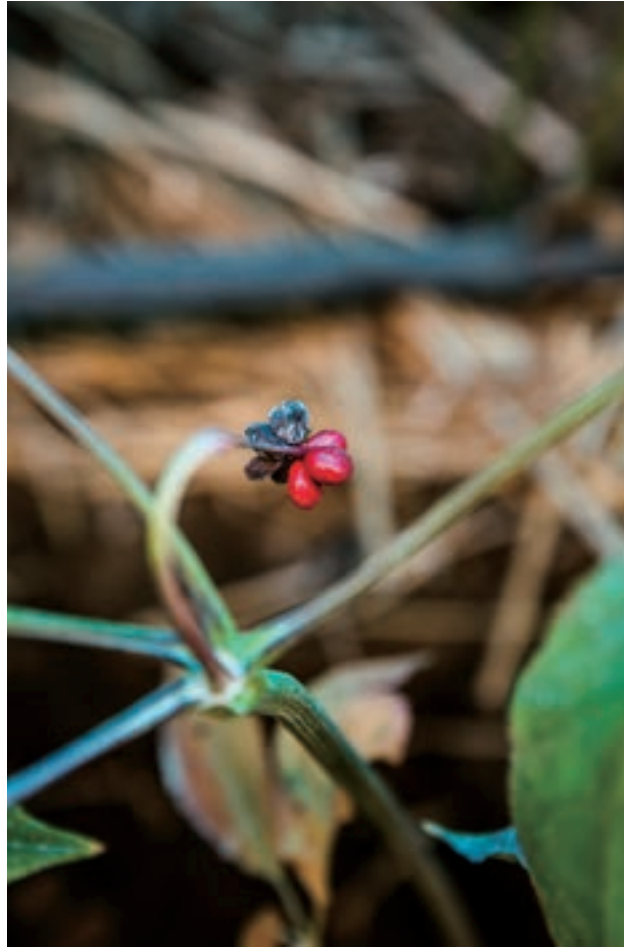
홍천 인삼을 만나러 가는 길

한국 인삼을 고려인삼이라 한다.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온 고려인삼의 발상지 한반도는 예부터 인삼을 생육하기에 좋은 곳으로 이름 높았다. 한국 땅에서도 특출한 인삼 산지를 꼽으라면 어디일까. '특출'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식물학적 완숙기에 해당하는 6년근 인삼의 주산지를 묻는다면, 답은 강원도 홍천이다. 강원 지역은 전국 최대 인삼 산지이며, 조선 시대 의관들이 가장 선호하던 '왕실 인삼'의 산지이기도 하다. <조선왕조실록> '영조실록'에서도 강원 인삼의 약효를 칭송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홍천은 도내 인삼 생산량의 30퍼센트가량을 차지하는 고장이다.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천삼과 지삼의 생산율도 높다. 천삼은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삼이다. 매끈한 표면에 치밀한 조직을 지닌 상위 1퍼센트의 개체이며, 600그램 기준 6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귀하디귀하다. 지삼은 땅의 기운이 충천해 잘생긴 인삼을 가리킨다.

별 좋은 아침, 내비게이션에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를 입력했다. 목적지는 홍천군인삼경작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상 대표의 '마부농원'이다. "마부'라고 하니 말이 어디 있냐고들 하더라고요. 실은 마부작침, 즉 도끼를 갈아서 바





늘을 만든다는 뜻의 사자성어에서 가져 온 상호예요. 인삼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이 꼭 그렇거든요. 무엇보다 은근과 끈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아무렴, 약초 중의 약초를 기르는 것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을 터였다.

푸른 차광지가 파도처럼 넘실거리는 인삼밭에서 최 대표를 만났다. 음식식물인 인삼은 빛에 예민한 편이라 5월에서 8월까지 검은 차광막과 차광지를 함께 친다.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의 차광막을 벗겨 차광지만 씌운다고 했다. 차광지와 차광막은 생육 최적 온도 25도를 유지하고, 빗물이나 습설로 인한 병충해를 막는 필수 도구다. 가만히 인삼을 관찰하던 최 대표는 흙을 파내어 한창 여물고 있는 인삼 뿌리를 보여 주었다. “동물은 아프면 어떻게든 티가 나는데 식물은, 특히 인삼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면 아래 삼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 도리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가끔 성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행히 하얗고 단단한 삼이 자라는 중이네요.” 강원 지역의 토양은 잔돌이 섞여 있어 뿌리가 잘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다림의 미학, 인삼 재배

배추와 무 같은 작물은 땅에 심어 거두기까지 3개월가량 소요된다. 인삼은 어떨까. 무려 8년이 걸린다. 2년 동안 땅을 고르고 비옥하게 만든 뒤에 비로소 6년근 인삼을 숙성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땅은 못 속입니다. 인삼을 심기 전에 예정지를 선정하고 관리하는데, 이때 토양 관리가 작황의 50퍼센트 이상을 좌우합니다. 인삼이 수분을 적절히 흡수하면서 자라도록 유기물을 주입하고, 트랙터로 흙을 갈아 햇볕 아래 살균 소독을 해

야 하는 이유죠.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좋은 습관을 들이듯, 인삼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전에 흙을 잘 길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홍천 인삼의 특징 중 하나는 씨를 직접 뿌리지 않고 1년생 묘삼을 이식 재배한다는 데 있다. 사포닌 함량이 높은 잔뿌리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함이다. 묘삼을 45도 각도로 기울여 심고 나면 중력에 의해 뿌리가 양쪽으로 고르게 발달하고 모양과 품질이 월등해진다.

이처럼 지난한 인삼 재배 과정엔 철저한 안전성 검사도 따라붙는다. 토양 검사를 통과하면 4·5·6년근 인삼을 검수한다. 약 3300제곱미터(1000평)당 열 뿌리를 무작위로 골라 살피는 식이다. 인삼은 재배 기간에 비해 개체 크기가 작기에 안전성 검사를 보다 면밀하게 수행하는 편이다.

과연 인삼 농사와 인간사가 다르지 않다. “제게 두

아이가 있어요. 인삼은 셋째 아이 같은 존재예요. 인삼 농사를 갖 시작했을 때, 열 살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 수확할 거라 생각하니 애절한 감정이 솟구치더라고요. 마침내 8년이 흐르고 인삼을 수확하던 순간을 여전히 잊지 못합니다. 트랙터가 지나간 자리에 뚝뚝 떨어지는 뽕얀 인삼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인삼, 사람, 누구에게든 사랑만큼 훌륭한 양분도 없을 테다.

인삼, 잘 고르고 잘 먹는 법

가을은 인삼이 월동 준비를 하기 위해 영양분을 뿌리로 내려보내는 시기다. 바깥 말하면, 가장 많은 영양분이 뿌리에 머무는 수확의 적기라고도 할 수 있다. 최현상 대표의 마부농원은 9월 초 이미 수확을 시작해 10월에 본격적으로 결실을 거둔다.



지난여름 더위가 극심해 작황을 걱정했지만, 다행히 튼실하고 기다란 삼이 많이 나와 한시를 놓았다. 해마다 10월이면 홍천군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인삼과 한우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홍천 인삼한우 명품축제'를 열어 전국의 건강식품 애호가를 불러 모으기도 한다.

아침저녁으로 차가워진 공기에 기력이 쇠하는 때, 잘 여문 인삼 한 뿌리가 건강을 지켜 준다. 면역력은 증진하되 피로와 스트레스 증상은 완화하고, 각종 통증을 경감하며 간 기능을 개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인삼은 항산화, 항노화에 주효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한다. 약초의 왕 답다.

홍천 사람들은 수삼을 홍천 한우와 함께 구워 먹거나, 홍삼을 달여 즙으로 간편하게 섭취한다. 최근에는 음용하기 간편한 농축액 스틱도 다양한 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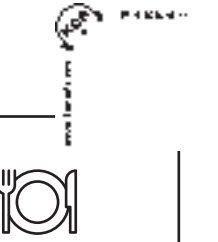
과 형태로 출시된다. 홍천 명품인삼 향토산업 사업단은 브랜드 '홍천인'을 통해 첫 제품 '홍삼 담은 배도라지 스틱'을 선보였다. 홍천인은 질 좋은 인삼 가공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건강한 인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많은 이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매일 아침 저를 인삼밭으로 데려다 놓는 건 책임감과 보람입니다." 최대표가 인삼에 담은 진심이다. ❶

✓ 인삼, 인공의 여정

- 1 **예정지 선정 및 토양관리** 흙을 고르고 삼을 심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 2 **채종 및 개간** 7월 중순경 열매가 붉게 여물 때 종자를 채취해 껍질이 벌어지도록 개간 처리하고 파종한다.
- 3 **본포 이식** 파종 후 2년 차 3월경 묘포에서 묘삼을 캐어 본포에 45도 각도로 심는다.
- 4 **수확** 인삼이 6년근 되는 해, 9월 중순 이후 수확한다.



홍천 인삼 이렇게 즐기세요



홍삼 담은 배도라지 스틱 배와 도라지의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는 스틱형 홍삼 제품이다. 홍삼 본연의 풍미는 살리되 특유의 쓴맛을 대추 농축액으로 희석해 누구나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다. 대추 외에도 기관지에 좋은 도라지, 배, 생강, 모과 등 다양한 농축액을 담아 맛과 영양 성분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최적의 음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내용물 그대로 먹는 것. 입안에 넣고 바로 삼키는 게 가장 좋지만, 물 또는 다른 음료와 섞어 섭취해도 무방하다. 1회 음용분을 스틱 하나에 담아 휴대하기에 간편하다. 문의 033-439-3000(강원인삼농협)



꿀인삼 인삼에 꿀을 더했으니 금상첨화다. 꿀인삼은 말 그대로 인삼을 꿀에 재운 것으로, 따뜻한 물에 넣고 저어 마시거나 우유에 섞어 셰이크처럼 갈아 먹는다. 물론 무엇을 더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해도 된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우선 열탕 소독한 병에 잘게 썬 삼 한 주먹을 넣고 꿀을 채운다. 이때 삼은 깨끗하게 손질한 뒤 썰어서 한 시간 정도 습기를 날린다. 병이 가득 찼 때까지 삼과 꿀을 번갈아 넣었다면, 뚜껑을 꼭 닫아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완성한 직후보다는 인삼에 꿀이 완전히 배도록 한 달 정도 뒤에 맛보기를 권한다. 기력을 보충하는 데 그만이다.



홍천 한우와 홍천 인삼 '늘푸름 홍천 한우'는 특별 사료를 급여해 1등급 육질을 자랑하는 홍천군 혈통 등록우를 가리킨다. 고소하고 부드러운 홍천 한우와 달콤쌉싸래한 홍천 인삼의 풍미가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불판에 고기와 함께 인삼을 썰어 구워 먹는데, 가열한 인삼은 쓴맛이 약해지고 단맛이 올라 밤처럼 향긋하게 느껴진다. 게다가 파근파근하게 씹히니 쫄깃한 고기와 더없이 잘 어울린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가공하기 전의 인삼은 약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 홍천 한우뿐 아니라 삼겹살, 제육볶음, 닭볶음 등 요리에 넣어 다채롭게 즐겨 본다.

음악 도시, 고령

1500년 역사를 지닌 가야금의 본고장 경북 고령은 전통악기의 명맥을 이어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우륵과 가야금

가야, 그리고 음악 하면 떠오르는 도시 고령은 남해안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다. 지리적 이점 덕분에 예부터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선진 문물 또한 다른 가야국보다 빨리 흡수해 5세기 후반에는 가야의 여러 소국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성장했다. 가실왕은 이 같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두고, 천재 예술가 우륵을 통해 가야국의 문화적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우륵은 가야국 가실왕 때 악사로 활약한 가야금 명인이자 시조다. 가야국 성열현(省熱縣)에 살다가 왕의 부름을 받아 대가야(고령)로 옮겨 궁중 악사로서 가야의 음악과 춤, 노래 등을 통합·발전시켰다. 한국에서는 '3대 악성'으로 우륵, 왕산악, 박연을 흔히 꼽는다. 그중 한 명인 우륵의 업적은 찬란하다. 대가야 말기 가실왕의 주문으로 12현 가야금과 더불어 '가야 12곡'을 만들었다. 왕이 여러 지역에서 사용한 악기를 가야금 형태로 통일하고, 우륵에게 각 지역의 음악 특성을 담은 12곡을 짓게 한 것이다. 고령 대가야금 캐빈리(금곡, 쉼골)에는 우륵이 왕명을 받아 가야금으로 12곡을 작곡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우륵의 가야금 연주 소리가 정정하다 하여 마을 이름도 '정정골'이다. 그 결과, 당시 대가야(상가라도)의 영향력이 미치던 지방과 소국의 음악 등을 가야금 음악으로 하나 되게 함으로써 정신적 결속을 다질 수 있었다.

가야국이 혼란해지자 신라로 망명한 우륵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뒤 신라에 가야금을 전수했다. 신라 진흥왕은 우륵이 편곡한 음악을 궁중음악으로 삼았고, 지금껏 가야금이 한국 전통악기로서 자리매김해 왔다.

조선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현 고적조 금곡'에는 "가야국 가실왕의 악사 우륵이 중국의 진쟁(秦箏)을 본떠서 거문고를 만들어 가야금이라고 불렀다. 현의 북쪽 3리에 있는 땅 이름에 금곡이 있으니 세상에 전하기를 '우륵이 공인(工人)을 거느리고 거문고를 익힌 곳이라'"라고 기록했다.

한국 박물관 중 우륵과 가야금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은 고령의 우륵박물관이 유일하다. 전국우륵가야금연주대회를 비롯해 각종 공연을 진행하는 640석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인 대가야문화누리 또한 2015년에 개관해 지역 예술의 새로운 산실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우륵과 가야금을 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가얏고 전수관도 건립했다. 한 사람이 만들어 1500년을 이어 온 전통악기 가야금. 고령은 우륵과 가야금, 전통 음악의 가치를 새기는 고장이다.

#가야금 연주단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고령에서는 그야말로 전체 군민이 가야금을 배운다. 고령은 이처럼 대가야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가야금이 세계적 현악기의 반열에 오르는 데 크게 공헌한 국악 도시이자 음악 도시다.

고령의 청소년은 가야금과 함께 자란다. 우륵청소년가야금연주단은 고령군 초·중·고 학생으로 이루어진 가야금 전문 연주 단체로 우륵의 음악을 잇고 인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 2012년에 창단했다. 지역의 재능 있는 청소년을 선발해 15명의 단원으로 구성했으며, 매주 2회 기초부터 심화 연주법까지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특강 및 워크숍을 열어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넓히며, 미국·이탈리아·몽골 등 해외 교류와 지역의 크고 작은 초청 연주를 토대로 더 큰 꿈을 펼쳐 간다.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은 가야금의 고장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고 가야금의 계승·발전과 전통 문화 예술 창달을 선도하기 위해 2015년에 창단했다. 음악감독을 비롯해 가야금 9명, 가야금병창 4명, 타악 2명 등 총 16명으로 이루어진 연주단은 국내외에서 활동을 펼치며 고령군민의 전통 문화 예술 향유에 기여하고 문화 사절단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창단 기념 공연 <대가야의 울림>을 시작으로 KBS <국악 한마당>과 <1대 100>, 서울문화재단 초청 공연, 부산 순회 공연, 대구시립국악현악단 초청 공연,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 특별 공연, 베트남 호찌민-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특별 공연 등 중요한 무대에 연달아 올랐다.

우륵국악기연구원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가야금을 널리 보급하고 전승하는 데 뒷받침하는 기관이다.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만들고 연주하던 금곡(정정골)에 설립했다는 점도 의미가 깊다. 이곳에서 연구원은 가야금 제작과 제작 체험 등 국악기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고령은 1500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국악기 가야금의 고장으로서 1979년부터 악성우륵추모제를 병행하고 이와 더불어 우륵의 창작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차원에서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륵의 위업을 기리고, 전통의 맥을 이어 가는 자긍심을 고취하며, 그의 예술혼을 계승하고자 개최하는 행사다.



#고령 세계현페스티벌

고령군은 2014년 바이올린의 도시 이탈리아 크레모나시와 자매결연을 했다. 크레모나는 이미 16세기부터 바이올린 명산지로 떠오른 곳. 두 도시가 가야금과 바이올린, 양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 현악기를 매개로 교류를 나눈 것이다. 이후 우호 증진의 의미로 크레모나 '몬도뮤지카' 초청 공연 등을 선보이며 전통악기와 한국음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중이다.

2018년 시작해 올해 6회째를 맞은 '고령 세계현페스티벌'은 가야금을 중심에 두고, 각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현악기 연주자와 팀을 초청해 생생한 현악기의 향연을 펼치는 행사다. 일반 음악 페스티벌과 달리 현(string, 絃)이라는 명확한 주제로 차별화해 고령문화원의 지휘 아래 가야 문화와 가야금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각국 전통 현악기 연주를 감상하는 자리인데, 초청 연주팀의 수준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지금까지 독일·이집트·인도네시아·중국·러시아·베트남·터키·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가 연주팀을 초대했다. 고령군민의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고령이 글로벌 문화 도시로 발돋움해 나가는 기반이다.

제6회 고령 세계현페스티벌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대가야문화누리과 대가야박물관 광장 등 곳곳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24일 포럼과 프리지스스테이지, 25일 본공연 외 26일 전국 현악기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고령 현(絃)대인 버스커 프로젝트'도 새롭게 기획했다. 상세 내용은 고령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4-950-7170(고령문화원)



#고고 스트링 밴드

고령군과 경북콘텐츠진흥원이 공동 기획한 '2021년 지역특화콘텐츠 개발사업'으로 음악 밴드 캐릭터 그룹이 탄생했다. 이름하여 '고고 스트링 밴드'. 고령의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관련한 콘텐츠와 상징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했다. 특히 악기 중 가야금을 연주하는 캐릭터 '푸림이'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6인조 밴드 멤버는 유일한 사람인 미스터백(구름인간, 베이스 담당, 밴드 단장)을 비롯해 푸림이(고령 군조 왜가리, 가야금 담당), 고고(고령 딸기가 애착 과일인 삼, 피아노 담당), 가야토(가야토기를 쓰고 다니는 토끼, 드럼 담당), 크림(이탈리아 유학파 출신 늑대, 바이올린 담당), 부기(수달, 기타와 비트 박스 담당). 2022년 6월 '서울국제관광전'에서 고령군 홍보 무대에 '데뷔'해 존재를 알렸고, 박람회장에서 롯데홈쇼핑 라이브 방송에 출연한 데 이어 대구시 어린이교통안전공단 홍보 영상에도 등장해 큰 관심을 받았다.

고고 스트링 밴드 캐릭터를 활용한 이모티콘을 출시하고 카카오톡 채널에서 2회에 걸쳐 무료 배부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는 2회분 5만 개가 하루 만에 소진되어 인기를 실감했다. 고령군은 캐릭터 6종을 활용한 인형, 손거울, 스티커, 양말, 볼펜, 부채, 메모지 등 다양한 굿즈를 기획하고 있다.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군이 2022년 9월 1일 이들을 관광홍보대사(관광행정직 9급)로 위촉하기도 했다.

이들의 활약은 계속된다. 지난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최대 종합 관광 박람회인 제38회 서울국제관광전에서 국내외 지자체의 캐릭터가 지역을 홍보하는 '쇼미더마스콧' 특별 행사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이날 6인조 밴드는 어린이날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뜻밖의 즐거움을 선사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마스콧 퍼레이드상'도 수상했다.

#청년마을, 뮤즈타운

최근 정부는 저출생 추세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2024년 9월 현재 3만 명 초반대 인구를 기록 중인 고령군도 인구 감소 지역이다. 이에 다양한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으로 청년 단체 발굴과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1호 청년 기업'이 사업장 운영을 시작했다. '젊은 고령'을 향해 첫발을 내딛음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지역 청년 유출을 방지하고, 외지 청년 유입 및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고령군은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도전했다. 행안부는 선정된 청년 단체에 첫째 사업비 2억 원을, 이후 사업 성과를 평가해 연 2억 원씩 3년간 국비 총 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공모에는 전국 161개 청년 단체가 응모해 1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고령군의 청년마을 '뮤즈타운'도 최종 선정되었다.

뮤즈타운은 1500여 년의 역사적·문화적 정통성을 지닌 고령의 '음악' 콘텐츠를 주제로 사업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음악에 관심이 있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청년을 초청해 일정 기간 머무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탐색, 일거리 실험, 지역사회 관계 맺기 등을 하면서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에게는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 고령군에는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일거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기회가 된다.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2년 차 중반을 넘긴 뮤즈타운은 지난해에 외지 청년 3명이 정착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지역 문화 공연 프로젝트 '뮤직캔버스'를 진행하고 있다. 가야금을 토대로 한 국악을 포함해 힙합·보컬·댄스 등 다양한 장르를 실험 중인데, 특히 유희 시설(비닐하우스) 활용 재생 프로젝트 '하우스 오브 바이닐(House of Vinyl)'이 화제를 모은다. 지역 청년과 외지 청년이 함께 파티를 열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고 교류하는 장이다. 고령군은 인구 3만 명의 소도시지만 1500년 전통을 지닌 국악의 고장으로서 문화 역량은 이미 세계적 음악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대가야의 고도 고령은 악성 우륵의 영감이 서린, 대한민국 전통악기 가야금의 명맥을 이어 가는 음악 도시다.



프로모션



올해도 갈대와 함께 춤을

전남 강진만 생태공원에 선선한 바람이 분다.
갈대가 춤추니 방문객의 마음도 함께 일렁인다.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누리는 가을의 낭만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리는 곳, 강진만 생태공원은 1131종의 동식물이 사는 남해안 최대 규모의 생태 서식지다. 올해는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방식을 알리고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자연생태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공원을 둘러보는 '갈대숲 생태 탐험대', 캠핑과 피크닉을 즐기는 '힐링 캠프닉', 환경을 위한 실천을 다짐하는 '갈대 로드 환경 발자국 남기기' 등 풍성한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가을 낭만을 더하는 공연도 여럿이다. 가수 백지영과 오유진의 목소리가 가을밤을 적시는 갈대 추억 콘서트, 어린이를 위한 버블&매직 쇼, 샌드 아트 공연 등 모든 연령층을 고려한 구성이 돋보인다. 그저 바람에 몸을 맡긴 채 걷는 것도 좋다. 낮에는 양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니 뜨거운 햇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람 세기에 따라 움직임이 달라지는 갈대를 보고 있으면, 그 자체로 힐링이다. 마음이 풍성해지는 이 계절, 강진의 가을이다.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갈대의 추억, 살아 있는 생태,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슬로건으로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열린다.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휴식과 즐거움을 누린다. 문의 061-430-3358



2024 강진 누구라도 반값 여행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THE 9TH GANGJINBAY REEDS FESTIVAL

2024.10.26.(토) ~ 2024.11.3.(일)
강진만 생태공원



주최 | 강진군 주관 | 강진군축제추진위원회

전설의 풍기 인삼을 찾아서



© 신구현

2024. 10. 5~13.

향긋하고 맛 좋은 풍기 인삼을 따라 길을 나선다.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2024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가 우리를 기다린다.

물 맑은 소백산 자락에 안긴 경북 영주 풍기읍. 이곳은 누구나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인삼의 고장이다. 예부터 기후가 서늘하고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를 지녀 질 좋은 삼이 나기로 유명했으니, 조선 중종 때 풍기군수를 지낸 주세붕은 백성으로 하여금 소백산에서 자생하는 산삼 종자를 여기 심어 인삼을 재배하도록 했다.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는 이 지역을 일군 인삼 문화에서 출발한 문화 행사다. 인삼을 수확하는 가을에 찾아오는 이벤트로, 올해는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총 9일간 풍기읍 남원천 일원에서 화려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개막에 앞서 열리는 경북 우량 인삼 선발대회와 풍기인삼대제가 시선을 사로잡고, 치열한 인삼 깎기 경연대회와 풍기 인삼 경매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빠져들 인삼 인형극, 목청 좋은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제6회 영주시민가요제, 영양분이 풍부한 풍기 인삼을 주재료로 진행하는 쿠킹 클래스도 색다른 즐거움을 안긴다. 올가을, 경북 영주 풍기인삼축제와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여정을 계획해 보자.



+도전, 풍기 황금 인삼을 찾아라!
축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합계 5만 원 이상 영수증을 제시하면 추첨을 통해 소금 1돈을 증정하는 '황금 인삼을 찾아라'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황금 인삼 덕분에 축제가 더 짜릿해진다.

한 발짝 더, 영주 여행 코스



#소수서원

최초의 사액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보존하는 건축물과 주변 풍경이 아름답다.



#용마루공원

영주댐에 조성한 공원으로, 물문화관, 영주 어드벤처 캐슬 등 체험거리가 여럿이다.



#관사골

영주역 뒤편 언덕에 조성한 철도 관사촌이 오늘날 벽화 마을로 탈바꿈했다.



#무섬마을

옛 모습이 고스란한 물들이 마을이다. 10월 5일~6일 무섬외나무다리축제가 열린다.



#부석사

목조건축의 미감이 깃든 무량수전을 비롯해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다.



2024 YEONGJU PUNGGI GINSENG FESTIVAL
경북영주

풍기 인삼 축제

2024. 10. 05. 토
9일간 10. 13. 일

장소 |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및 남원천 일원

주최 |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영주시

주최 | 영주시청 관광진흥과 (054)639-6612

주최 |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054) 635-0020

www.ginsengfestival.co.kr



지구에서 우주여행

미지의 공간 우주를 꿈꾸는 지구인을 위해 안내서를 준비했다. 화려한 조명과 미디어아트로 신비로운 우주 세계를 만난다.

우주드림

전남 나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다섯 행성을 여행한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한 미디어 아티스트 조홍래가 총감독을 맡아 몰입도 높은 공간을 구성했다. 아치형 터널을 따라 들어서면 우주 공항이 모습을 드러내고, 여권을 발급받아 우주선 NJ-083에 몸을 실어야 여행 준비가 끝난다. 처음으로 도착한 엘리시온에서 빛을 내는 심해 생명체 루미네 젤리피쉬와 교감하고, 코스모 아이에서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 A-EYE(에이아이)가 관람객을 맞이한다.

주소 전남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로 558-314
문의 061-339-6100

광세벌빛우주과학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도심 속 천문 우주 과학 교육 시설. 지하 1층에서 천문학 강의를 들은 후 천체 사진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태양계에 더 가까워진 다음 2층에 위치한 돔 형태의 천체 투영실로 향한다. 우주 영화를 보고 그 날 밤 관측 가능한 별자리에 대해 들으니 밤하늘이 더욱 특별해진다. 영상 전시실인 우주 판타지아에서 신비로운 화면을 눈에 담고 돌아가는 길, 계단 옆 문구에 힘을 얻는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하지."

주소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78
문의 02-2661-3346

르 스페이스

지난 5월 인천 영종도에 문을 연 르 스페이스. 빛, 경험, 공간을 결합해 전시관 이름을 지었다. 관람객은 우주정거장에서 출발해 열일곱 개의 공간을 방문한다. 라인 LED 조명과 반사 유리를 활용한 곳은 시공간이 뒤틀리는 원홀을 마주한 듯 착시를 일으키고, 벽면 여섯 개를 프로젝터 화면으로 구성된 장소에서는 무한한 평행 세계를 만난다. 모션 인식, 소리 감지 등 인터랙티브 기술과 홀로그램 등 복합 기술을 사용해 실제 우주를 여행하는 기분을 선사한다.

주소 인천시 중구 공항문화로 127
문의 1533-3660



우리 집에 딱, 슬림 안마의자 EP-MAC3

파나소닉이 기능과 효율을 모두 고려한 새 안마의자를 선보인다. 다재다능한 안마의자 EP-MAC3를 소개한다.



EP-MAC3
라이트그레이

슬림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를 대폭 높인 안마의자 EP-MAC3가 등장했다. 전문가의 마사지 기법을 재현하는 자사의 뛰어난 안마의자 기술에 세련된 디자인을 결합해 미감을 끌어올렸다. 게다가 블루투스 오디오, 체질량 지수 측정 등 다양한 편의 기능까지 탑재했다. 진정한 휴식으로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활기 넘치는 하루를 맞이해 보자. EP-MAC3와 함께하는 삶의 단면이다.

슬림한 크기, 깔끔한 인테리어

평상시 공간 제약으로 안마의자 구입을 망설였다면 EP-MAC3가 고민을 말끔히 해결할 해법이 될 것이다. 기존 자사 안마의자 모델보다 아담한 사이즈로 거실뿐 아니라 침실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해 1~2인 가구에 적합하다. 고급스러운 라이트그레이, 브라운레드 색상이 인테리어를 한층 화사하게 한다.

지능형 감지 메커니즘이 선사하는 마사지

지능형 감지 메커니즘을 활용한 마사지 기술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 중 84가지 손 마사지 기법을 조합해 전문 마사지사의 손길을 정교하게 재현,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한다. 인체 곡선에 맞게 설계한 SL 프레임 역시 한뼉한다. 목부터 발바닥까지 전신을 편안하게 감싸고, 안마의자 전체에 에어백을 적용해 부드럽게 근육을 압박하며 사용자의 긴장을 풀어 준다. 안마의자를 135도에서 162도까지 기울이는 무중력 스윙 모드, 사용자의 키에 맞춰 14센티미터가량 조정 가능한 발판 등이 최적의 마사지 환경을 조성한다.

기본 좋은 온감, 온열 마사지

3단계 허리 온열 마사지는 사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온도를 직접 선택해 마사지를 받는 기능이다. 허리 주변 근육에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전달해 긴장을 효과적으로 이완시키고 동시에 스트레스를 완화해 사용자를 편안하고 깊은 휴식에 도달하게 한다. 아울러 종아리와 발을 부드럽게 감싸는 에어백, 발바닥에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뭉친 근육을 풀어 주는 롤러가 하체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어루만진다.

다재다능, 똑똑한 안마의자

조작하기 간편한 7인치 터치스크린, 블루투스 오디오, 스마트폰이나 액세서리 등 작은 물건을 보관하는 팔걸이 수납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안마의자 사용을 더욱 즐겁게 한다. 또 키와 몸무게를 입력하면 체질량지수(BMI)를 자동으로 계산해 건강관리를 돕는 기능을 지원한다. 프리미엄 마사지 기술은 기본, 편리함까지 놓치지 않은 다재다능한 제품이다.

파나소닉 안마의자 가을맞이 이벤트

- 혜택 1 파나소닉 안마의자 MAN1 구매 시 최대 50만 원 할인 및 상품권 20만 원 증정 기간 10월 31일까지
- 혜택 2 MAN1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하이원 리조트 숙박권 또는 무선 청소기 MC-A10 증정 기간 재고 소진 시까지

문의 www.panasonic.co.kr

EP-MAC3
브라운레드





언제라도, 전주

찬란한 천년을 지나 온 도시, 전북 전주. 전통과 문화를 동력으로 전주의 미래 천년을 꿈꾸는 우범기 시장을 만났다.



Q. 전주가 '천년을 내다보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시장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전주가 어떤 잠재력을 지닌 도시인지 소개해 주세요. A. 전주의 지난 천년은 어느 도시보다 화려했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정한 도읍,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본향, 500년간 전라좌·우도와 제주도까지 관할해 온 전라도의 수부가 바로 전주니까요. 그뿐인가요. 판소리를 위시한 전통 예술과 한옥, 한지, 한식으로 대표되는 전주의 문화유산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합니다. 도시 전체를 '왕의 정원'으로 가꾸어 글로벌 문화 도시로 거듭나려는 까닭이죠. 다가올 천년, 전주는 보다 젊고 강한 도시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종합경기장 자리에 여행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호남제일문과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스포츠 타운을 세울 계획입니다. 첨단 기술 또한 적극 도입 중입니다. 2019년 수소 시범 도시가 된 전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수소 시내버스를 전국 최초로 운행해 왔으며, 2025년에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열어 도시의 새로운 면모를 알릴 겁니다. 문화와 기술을 토대로 나아가는 전주의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Q. 전주는 5개 축제를 통합한 초대형 이벤트 '전주페스타 2024'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 무엇이 특별한가요? A. '10월, 더 맛있는 전주'를 주제로 전주비빔밥축제, 한지축제, 독서대전, 조선팝페스티벌, 막걸리축제가 이어집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드론 쇼가 밤하늘을 수놓는가 하면 풍성한 잔치 음식과 전주페스타 한정판 메뉴를 마련한 '맛잔치, 맛자랑', 전주 전통 다과와 전주 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페어 '달콤스토어', 197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는 대중음악으로 이루어진 '레트로 DJ클럽' 등 각각각색 프로그램이 가득하죠. 축제장인 전주종합경기장은 머지않아 60여 년 긴 역사를 뒤로하고 마이스 산업의 중심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예정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의 마지막을 아로새긴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축제가 될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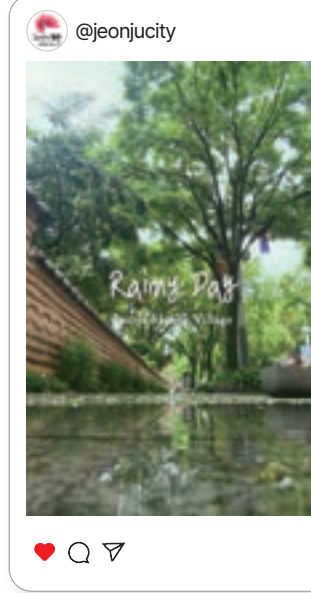
Q. 올가을에도 많은 여행자가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할 텐데, 어떻게 둘러보면 좋을까요? A. 아름드리 나무가 가을빛으로 물드는 10월

은 전주한옥마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수백 년 수령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온 경기전과 전주향교의 은행나무를 눈여겨보고, 울긋불긋한 나무와 돌담으로 이어진 골목을 찬찬히 살피세요. 크고 작은 문화 공간에 둘러도 좋습니다. 전통술박물관은 모두 거르기 체험을 제공하고, 세 가지 전통주(청주, 탁주, 소주)를 예쁜 술잔에 담아 맛보는 '술잔애티' 취향 저격'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주완판본문화관에선 목판 인쇄, 목판화 한지 엮서, 옛 책 만들기, 목판화 한지 벽걸이 등 전주의 기록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죠. 전주부채문화관에 들러 나만의 부채 그리기, 디림선 만들기 등 상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즐겁겠네요. 마침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2024 한옥마을 문화시설 특화축제'가 열리니 기억해 두세요. 하나 더, 오전 11시와 오후 3시 경기전 정문에서 출발하는 도보 해설 투어를 권합니다. 걷고 난 뒤엔 경기전 여행자 라운지나 종합관광 안내소 누마루에서 쉬어 가시기를. 700여 채 한옥 지붕을 한눈에 굽어보는 누마루는 붉은 해넘이가 특히 아름답습니다.

Q. 전주 하면 맛, 음식 하면 전주죠. 남다른 애착을 지닌 전주의 음식이나 식당을 추천해 주세요. A. 전주 사람들은 '개미(개미)'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맛있다'를 넘어, 간이 딱 맞고 자구 입에 당기는 음식의 풍미를 이르는 표현이예요. 누가 뭐래도 전주는 개미의 고장입니다. 익히 알려진 전주백반, 비빔밥, 콩나물국



PHOTO PICK 전주 여기서 한 컷



비 오는 날 전주한옥마을 풍경

익숙한 거리지만, 비가 내릴 때 더 고즈넉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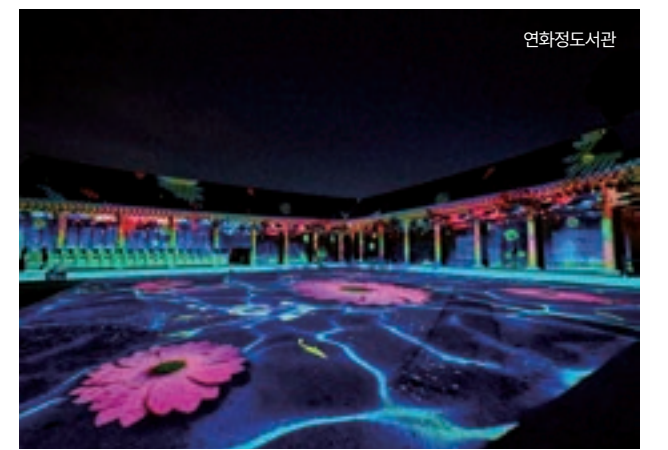
#전주 #비_오는_날_여행 #한옥마을 #rainydays #jeonju #hanokvillage #부슬부슬 #추적추적 #자박자박

밥도 좋지만, 길을 걷다 마음 내키는 식당 어디든 들어가 전주의 손맛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무수한 맛집 중 몇 곳만 손꼽아야 한다면, 전주역 근처에 자리한 장어 식당 '오마니'를 권합니다. 요리가 나오기 전 상에 오르는 장어즙 한 잔이 식욕은 물론 기운을 제대로 돋웁니다. 백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등 재미진 밑반찬도 훌륭하죠. '윤가네 감자탕'도 질 좋은 재료를 쓰기로 유명한 집인데,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의 농밀한 끝 맛이 일품입니다. 푸짐한 시래기를 올려 먹으면 더할 나위 없답니다.

Q. 여행하기 좋은 도시 전주,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 지난해 야간관광특화도시로 선정된 전주는 새로운 야간 명소를 발굴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예컨대, 카세트테이프 공장에서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팔복예술공장은 흥겨운 'DJ 레트로 나이트 파티', 음식과 함께 하는 '전주 심야 극장'을 진행합니다. 풍패지관에서는 야간 연회가 펼쳐지죠. 팔복예술공장 옆 이팝나무 철길과 전주천 한벽교 일원엔 경관 조명을 설치해 운치를 자아냅니다. 향후 오목대 근방 산책로도 야간 볼거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10월 한 달간 전통성당에서는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미디어 파사드 쇼를, 연꽃으로 유명한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에서는 프로젝션 매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밤낮없이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지켜봐 주세요.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전시·신간

EXHIBIT



제7회 창원조각비엔날레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김혜순 시인의 시 '잘 익은 사과' 한 구절에서 따온 제목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45일간 16개국 86인의 국내외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동시대 조각의 수평성에 주목하며 여성과 노동, 도시 역사와 변화, 공동체의 움직임 등 첨예한 주제를 사려 깊게 다룬다. 창원의 지역성을 반영한 작품도 놓치지 않고 챙겼다. 사과 껍질이 나선형으로 깎여 나가듯, 도시·조각·관객이 스스로 길을 내어 나아가갈 시간이다.
기간 9월 27일~11월 10일 문의 055-714-1971(창원조각비엔날레)

<생명광시곡, 김병중>

동양화와 서양화, 미술과 문학을 아우르는 예술가 김병중의 평생에 걸친 작품 세계를 아카이브로 구현한다. 회화, 문학, 지필묵, 오브제 등 다채로운 콘텐츠는 광시곡 형식을 빌린 여섯 개의 '악장'에 펼쳐진다. 신작 '풍죽'에서 출발해 <화첩기행>과 <시화기행>을 경유하고, 연작 '바보예수'로 맺는 구성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문화 정체성을 탐구하는 기획 'K-판타지아 프로젝트'의 첫 전시다.

기간 10월 24일까지 문의 02-3407-3500(문화역서울284)

* <KTX매거진> 인스타그램에서 전시 초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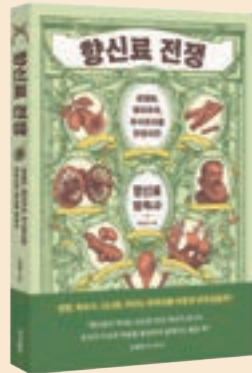


BOOK



<술맛>

사람 이야기, 문학, 술. 이토록 잘 어울리는 조합이 있으랴. 오늘의작가상을 수상한 김혜나 작가는 글을 쓰러 전국을 다니고, 지역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역 술에 관심을 가졌다. 이육사의 시어를 구현한 '264 청포도 와인', 아들을 뒤로하고 눈길을 걷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청주 '서실' 등 술에 문학을 녹여 내 책을 빚었다. 맛이 그윽하다. 김혜나 지음 은행나무 펴냄



<향신료 전쟁>

좀 더 맛있게 먹고 싶다는 인류의 욕망이 향신료를 향한 갈망을 낳았다. 정향, 육두구, 시나몬을 찾아 유럽 열강은 앞다투어 향로를 개척하고 서로 견제했다. 주식회사가 등장한 계기도 위험성 큰 향신료 무역이다. 후추 한 알이 진주보다 비쌌던 시대의 치열한 싸움부터 원주민의 고난까지, 묵직한 역사가 박진감 넘치게 펼쳐진다. 최광용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이제 진짜 제주로 갑시다>

깊이 들여다보는 여행이 트렌드가 된 지 오래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실제 이런 여행을 하기란 어렵다. 저자는 수많은 제주도 입도민이 그랬듯 여행 왔다가 이주하자고 마음 먹고 2013년 제주에 정착했다. 동네에 친한 '삼촌'이 생기고, 삼촌들과 섬 구석구석을 탐험하면서 진짜 제주도를 알아 갔다. 사람 사는 섬, 사람이 살아온 섬 제주를 다시 만난다. 정다운 지음 남해의봄날 펴냄

프로모션

줄기세포로 젊어진다! 올가을엔 부모님께 '젊음'을 선물하세요

젊고 건강한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소식.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A to Z를 알아봤다.

과거엔 생소했던 단어 '줄기세포'가 요즘 익숙하게 들린다. 줄기세포라는 단어부터 몸을 젊게 만들어 주리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명절이나 생신 같은 날 부모님께 줄기세포 주사로 젊음을 선물하려는 자녀도 증가세다. 단, 줄기세포가 어떻게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이가 대부분이다. 조찬호 청담셀의원 대표원장의 도움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모든 것을 알아봤다.

줄기세포란 어떤 개념인가요? 줄기세포는 자가 복제 능력이 있어 적절한 신호에 따라 특정 세포로 분화되는 세포를 통칭한다. 줄기세포가 자신의 특성인 '다분화능'을 유지하면서 무한히 동일한 줄기세포를 재생산한다는 의미다. 이 다분화능이라는 기능 덕분에 손상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재생시킬 수 있다. 당뇨병, 척수 손상, 뇌·심장 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줄기세포 연구가 발전해 치료 적용 범위가 더욱 확장됐다. 피부 재생, 탈모 치료 등 여러 분야에 이를 활용하는 분위기다.

줄기세포의 장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줄기세포 유형과 치료가 필요한 부위의 상태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이 큰 장점이다. 심장병, 신경 장애, 자가면역 질환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잠재적 치료법으로 활용 중이다. 당장 아프지 않은 사람도 줄기세포를 적용할 수 있다. 대체로 정맥주사를 통해 몸의 재생 능력을 높인다. 이 밖에 행해진 피부, 잔주름이 늘어난 피부, 통증이 생기는 부위, 성기능 저하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소적으로 쓸 수 있다. 무엇보다 줄기세포는 항염증 분자를 분비해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촉진한다. 면역체계를 조절해 면역 반응을 완화하고 자가면역 반응 위험을 줄인다. 이때 손상된 조직으로 통하는 혈류를 개선해 치유와 조직 복구를 촉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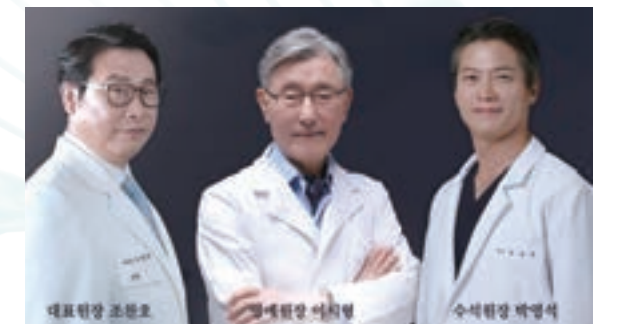
어떻게 줄기세포가 필요한 부위로 이동해서 작용하나요? 줄기세포는 '호밍 효과'를 일으킨다. 호밍 효과란 정맥주사로 투여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로 스스로 찾아가는 능력을 말한다.

단점은 없나요? 줄기세포가 다양한 질환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쓰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은 전무하다. 잠재적인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종양 생성이다. 줄기세포가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면 종양이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다. 다행히 성체 줄기세포는 종양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임상에서 활발히 사용된다. 면역원성 문제도 있다. 환자의 면역체계가 줄기세포를 이물질로 인식해 염증 반응이나 조직 손상을 유발하는 것이다. 다만 환자 본인의 세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관건은 어떤 의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치료받느냐다. 치료비가 저렴한 곳을 우선순위에 두기도 하지만 안전하면서도 만족도 높은 치료를 위해서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찾아야 한다.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나서 언제부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 시술 후 2주 내외로 치료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치료 효과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줄기세포 시술 후에는 금주·금연은 기본이고 소염제 사용도 삼가야 한다.

줄기세포 은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줄기세포 은행은 환자의 줄기세포를 보관하는 곳이다. 이를 '셀뱅킹(Cell Banking)'이라고 하는데, NK세포와 줄기세포를 영하 200도의 액체질소 탱크에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해동해 시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본원의 경우 줄기세포 연구소도 운영하고 있다. 이는 환자에게 최적화된 줄기세포를 이식하기 위해 연구하는 공간이다. 줄기세포는 환자로부터 혈액, 골수, 지방을 통해 추출한 후 병변 부위에 이식한다. 또 추후 치료까지 염두에 두고 환자의 줄기세포를 줄기세포 은행에 보관 중이다. 본원은 이곳에서 양질의 세포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청담셀의원 | 조찬호 대표원장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의료기관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로 주목받아 왔다. 특히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극소수의 국내 의료기관 중 하나로,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줄기세포치료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했다. 병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 의학 전문가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대학병원 브리검여성병원에서 항노화 분야를 공부했으며, 현재는 대한 줄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한 학술 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영상 콘텐츠·공연

MOVIE



<바벨과 아다마>

세네갈에 사는 바벨과 아다마는 열렬한 사랑에 빠지지만, 구습을 강요하는 마을 사람들과 충돌한다. 결국 둘은 살던 곳을 떠나기로 한다. 실제 세네갈에서 촬영해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돈다. 흑인 여성 감독 라마타 툴라에 사이의 데뷔작으로, 제 76회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10월 2일 개봉. **감독** 라마타 툴라에 사이 **출연** 카디만, 마마두 디알로



<보통의 가족>

물질적 욕망을 우선시하는 변호사 재완과 프리랜서 번역가 연경 부부, 자상한 소아과 의사 재규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지수 부부는 각자 평범한 가정을 꾸려 살아간다. 그러나 아이들의 범죄 현장이 담긴 CCTV 영상이 발견되고, 완벽했던 모든 것이 무너진다. 네덜란드 작가 헤르만 코흐의 소설 <더 디너>가 원작이다. 10월 9일 개봉. **감독** 허진호 **출연** 설경구, 김희애



<긴긴밤>

지구상 유일한 흰바위코벨소 노든과 버려진 앞에서 태어난 어린 펭귄이 함께 바다를 찾아가는 여정을 담았다. 드넓은 사막을 지나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과 연대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제21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 수상작 <긴긴 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작곡가 박보윤과 연출가 황희원이 만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공연을 펼친다. **기간** 10월 15일~2025년 1월 5일 **장소** 서울 링크아트센터드림문의 070-4190-1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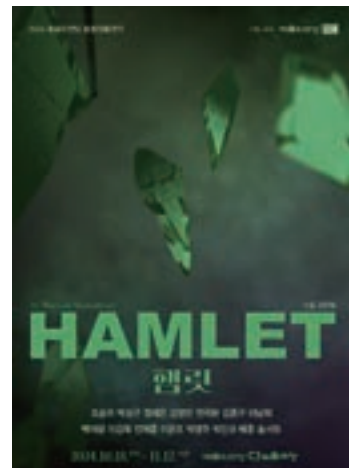
<2024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정명훈, 기돈 크레머,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 등 세계 정상급 클래식 음악가와 단체가 대구를 찾는다.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올해 프로그램에서 눈에 띄는 건 지휘자 겸 연주자를 한자리에 모았다는 점. 정명훈이 피아노와 지휘를 오가며 모차르트를 들려주고, 기돈 크레머는 바이올린을 잡은 채 크레메라타 발티카를 이끈다. 여러 지역 악단은 작곡가의 창작곡을 선보인다. **기간** 10월 10일~11월 27일 **장소** 대구콘서트하우스 문의 053-430-7700



<햄릿>

복잡한 인간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시대를 초월해 울림을 주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이번에는 제56회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 백상연극상을 받은 신유청이 연출을 맡았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준 배우 조승우의 연극 데뷔작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박성근·정재은·김영민·전국환 등 15명의 배우가 단일 캐스팅으로 극을 책임진다. **기간** 10월 18일~11월 17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문의 1668-1352



SHOWS

Living sense INSIGHT.



왜 리빙센스일까?
34년간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관찰하고 기록해 온 로컬 매거진으로
브랜드가 전하고픈 가치와 이야기를
남다른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what we do.

Brand Contents

-단행본, 브로슈어, 출판물 제작
-브랜드디 콘텐츠기사영상 제작

Promotion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컨설팅
-브랜드 팝업 행사 기획&운영

Viral Marketing

-디지털&바이럴 광고 운영
-인플루언서 협업



협업 문의
livingsense@living-sense.co.kr
010-5555-7055



Treasure of Korea



지붕 위의 우아함 - 백제 왕흥사지 치미

치미는 높은 권위를 가진 기와 건물에 사용한 특수 기와다. 용마루 양 끝에 하나씩 올리는 장식 기와로, 모양이 새의 날개나 물고기 꼬리를 닮았다. <삼국사기>를 보면 신분에 따라 가옥 크기는 물론 사용 가능한 기와 또한 규정했다고 나온다. 한국에서 치미가 출토되는 곳은 주로 불교 사원이다. 물론 궁궐과 관청 지붕에도 치미를 올렸을 것이다. 백제 왕흥사지 치미는 윗부분이 활처럼 휘었으며, 옆면에는 계단 모양 주름이 있다. 앞쪽은 용마루 위 기와와 연결하기 위해 볼록하고, 곳곳을 연꽃과 구름무늬가 장식한다. 이 치미는 왕흥사 창건 시기인 6세기 후엽에 만들어졌다 추정하는데, 실물로 발견된 삼국의 치미 가운데 가장 오래되었다. 만둣새가 우아하고 완숙해 백제인은 이보다 일찍 치미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소장한 귀한 유물을 현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백제실에서 전시 중이다.

Elegance on the Roof - Baekje Chimi From the Wangheungsa Temple Site

A *chimi* is a special type of roof tile used in buildings of high status. The decorative tiles, placed at both ends of the roof ridge, resemble a bird's wings or a fish's tail. According to the *Samguk Sagi*, regulations governed not only the size of houses based on social rank but also the types of tiles allowed. The *chimi* from Baekje's Wangheungsa Temple has an arched upper part and stepped folds on its sides. The front is convex to connect with the ridge tiles, and its surface is adorned with lotus and cloud patterns. This precious artifact, which roughly dates back to the late 6th century, can be admired at the Baekje Gallery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엄선한 경제정보 믿을 수 있는 뉴스 재테크 지킴이 시사저널이코노미

SISA JOURNAL ECONOMY

국내외 투자 정보 주식부터
신뢰할 수 있는 기업정보와 스타트업, 부동산,
바이오·NFT까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

www.sisajournal-e.com

기사제보 02-6716-4400 | webmaster@sisajournal-e.com



<생각의 힘이 커지는 미로찾기>

보석을 찾는 탐험가, 말을 타고 시합하는 기사, 지구와 우주, 사람과 동물 등 흥미로운 주제로 만든 미로찾기 70편을 수록했다. 미로찾기 놀이뿐 아니라 숨은그림 찾기, 숫자 세기에 관한 질문 등 구성이 알차다. 밝고 생동감 있는 그림 덕에 놀이 시간이 더욱 신난다.

노란우산 유아 콘텐츠 연구소 지음 노란우산 펴냄

Puzzle

editor. 남혜림 자료 협조 노란우산



*다음페이지에서 타는 친구도 도전할 수 있게 되어만 찾아봐주세요.

*전면이 140쪽에 있습니다.



프로모션



굽이굽이 열두 굽이, 속리산둘레길

국가숲길 속리산둘레길에 완벽한 가을이 왔다. 산속을 거닐며 알록달록한 자연을 마주한다.



사진 제공 국립수목원(권순영)

<삼국유사>에 의하면 통일신라 시대 승려 진표율사는 계시를 받들어 미륵불을 세우기 위해 세속을 떠나 속리산으로 향한다. 아홉 개 봉우리가 활처럼 휘어진 형상이라 옛날엔 구봉산이라고도 불렀다. 이곳에 조성한 국가숲길 속리산둘레길은 충청북도 보은·괴산과 경상북도 문경·상주에 걸쳐 있다. 네 가지 길 총 열다섯 구간, 길이 206.1킬로미터를 자랑하는 숲길을 소개한다.

가을 단풍이 색칠한 길

네 가지 길 중 여행자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은 1~4구간인 보은길이다. 특히 보은길 2구간 '말티재 넘는 길'을 추천한다. 길이 약 13.5킬로미터로 산행에 4시간 30분가량 소요된다. 구불구불 흰 말티재는 드라이브 명소로 이름 높인데,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과 코스모스, 국화가 어우러져 여행자의 심상을 자극한다. 시작점인 장안안내소가 속리산C에서 차로 3분 거리라 방문하기에 용이하다. 안내소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세조가 머물렀다는 행궁터를 마주하니 주변을 잘 살펴라. 지난 3월 개통한 문경길도 주목할 만하다. 38킬로미터 코스로 석탄박물관, 둔덕산 수리봉, 문경 화산리 반송을 경유해 볼거리가 다양하다. 이 밖에 수백 년 된 노송을 품은 보은 속리산면의 구병리 아름마을에서 산촌 체험을 하거나 속리산둘레길 걷기 축제에 참여해 반가운 가을을 맞이해도 좋겠다. 산행하기 맞춤형 이 계절, 속리산으로 가자. 문의 www.songnisangil.com(속리산둘레길 홈페이지)

9~10월경 분홍색과 자주색이 섞인 꽃이 핀다. 메마르고 건조한 자갈밭 등지에서 자생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향료나 약으로도 쓴다.

Letters from Readers



<KTX매거진>을 보고 나서



고래와 만나는 땅, 울산 남구

초등학생 아이와 부산 여행을 가는데, <KTX매거진> 표지가 단번에 시선을 끌었어요. 멋진 고래 조형물 사진을 보며 울산 남구에 꼭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특히 울산항 부항장 자리에 앉아 보고 싶다고 하네요.

민정기 경기도 시흥시 목감중앙로



원주 나무기행

출장길에 <KTX매거진>을 보다가 전남 목포, 경기도 수원 등 올해 제가 방문했던 여행지들을 소개한 글과 사진을 마주하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10월 강원도 원주에서 열릴 만두축제는 더욱 기대되네요!

최서정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독자 편지를 보내 주세요!

<KTX매거진>을 읽은 소감과 독자님의 여행 사진을 기다립니다. KTX@seoulmedia.co.kr로 독자 평과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내 주세요(사진은 600KB 이상). 메일에 이름, 연락처, 주소를 꼭 기재해 주세요. 마감은 10월 15일입니다.

기차로 여행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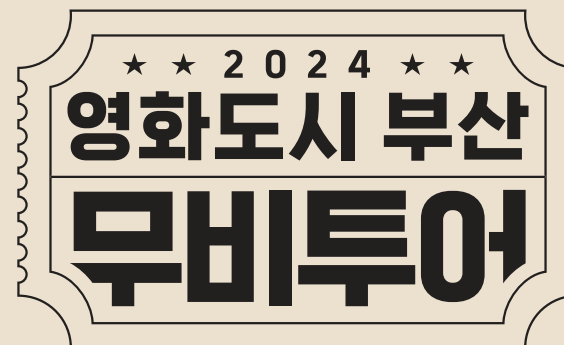
아들과 단둘이 강원도 강릉으로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즐거움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서울행 기차에 올랐어요. <KTX매거진> 가을맞이 특별 부록을 함께 들여다보며 전북 전주를 다음 여행지로 정했습니다. 이유진 서울시 마포구 광성로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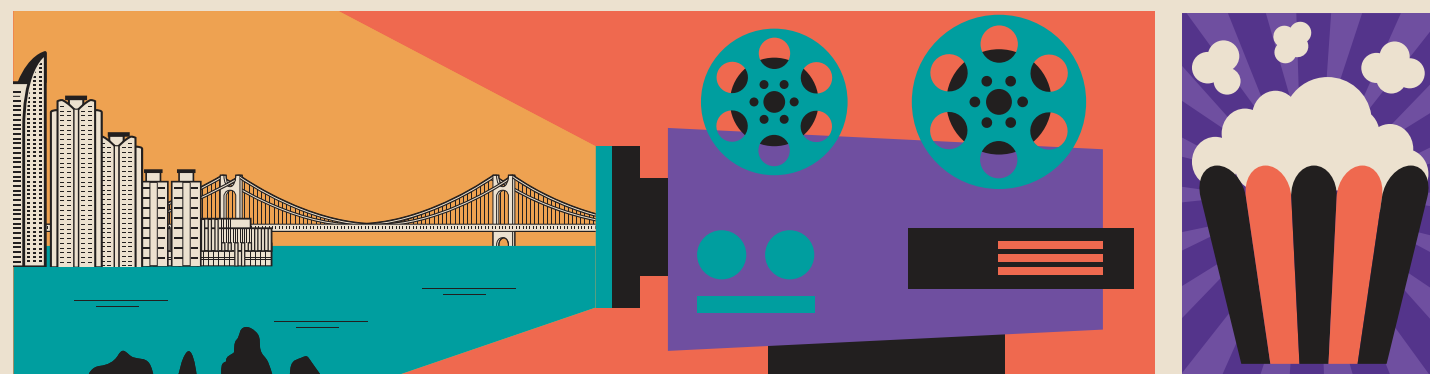


<KTX매거진> 독자 편지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일로의 '10주년 스카프'를 선물로 보내 드립니다.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만든 제품으로, 꽃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스카프입니다. 심플한 코디에 화사한 포인트가 됩니다.

제품 문의 02-2256-7901



부산에서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레트로 감성부터 밤하늘 야경까지, 부산의 매력적인 영화 촬영지로 떠나는 특별한 무비투어!



여행일	2024년 10월~
여행 경비	280,000원~
포함 내역	서울-부산 왕복 KTX, 행사 차량, 전문 가이드, 조·중식, 호텔, 여행자보험, 일정상 입장료, 무비투어 기념품
불포함 내역	석식, 기타 개인 경비
최소 출발 인원	4명 이상

카카오톡 상담채널 기차여행센터
대표전화 1899-2550
평일 10:00 ~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 * 승·하차역 및 인원 조정 문의는 상담 부탁드립니다.
- * 성수기의 경우 예약 날짜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기차 운행 조정, 기차 잔여 좌석 사정으로 인해 기차 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화도시 부산 무비투어 일정표 (1박 2일)

1일 차

08시경 서울 출발
11:00 부산역 집결
A코스 레트로 무비투어
차이나타운(영화 음식 체험: 올드보이 오마주 세트) → 영화박물관 → 보수동 책방 골목 → 부산항전망대 → 영도 흰여울마을 → 로케이션 드라이브 투어 (광광이마을, 영도다리, 비포광장, 국제시장)
석식: 생선구이 돌솥밥정식
C코스 레트로 무비투어
감천문화마을 → 부산항전망대 → 무비나이트 드라이브 투어 → APEC누리마루, 데베이101 → 황령산 파노라마 나이트 투어 → 광안리 해수욕장
호텔 체크인 (코모도호텔, 라베디아틀란)

2일 차

호텔 조식
10:00 호텔 체크아웃
B코스 영화의바다 무비투어
부산역 → 브리지 드라이브 투어 → 영화 음식 체험: 부산 바다 모음 세트(연하리 해산물 모듬+전복죽) → 로케이션 드라이브 투어 (대변항-아난티코브-송정해수욕장-달맞이길) →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 미포&해운대해수욕장 → 마린시티 영화의거리 → 요트 경기장 → 영화의 전당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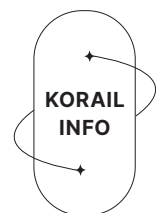
WWW.KORAIL.COM



- 128 코레일 소식
- 134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36 열차 이용 안내
- 138 비상시 행동 매뉴얼



© 박정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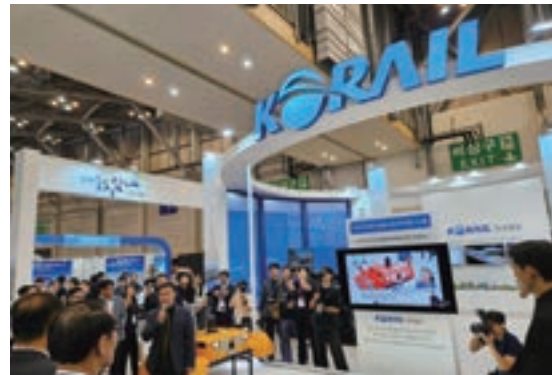


KTX-청룡 이용객 95퍼센트 만족



한국철도공사가 KTX-청룡 이용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퍼센트가 시설과 서비스에 만족한다. 특히 목적지까지 단축된 소요 시간과 좌석별 독립 창 구조를 높이 평가했고, 좌석별 충전 시설 또한 만족도가 높았다. KTX-청룡을 이용한 승객은 지난 4개월간 약 39만 명에 달한다.

한국철도공사, 2024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참가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한국철도공사가 참여해 인공지능 철도 시설물 자동 점검 장치를 선보였다. 작업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자율주행 로봇을 투입해 선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장치로, 개막식에서 2024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전 본사에 디지털 허브 개소



8월 28일 한국철도공사 대전 사옥에 디지털 허브가 문을 열었다. 한 층 전체를 리모델링해 VR 체험실, 3D 프린터실, 여덟 개의 프로젝트 랩 공간을 조성했다. 미팅 라운지와 디지털 시제품 및 추진 과제 현황을 확인하는 전시 공간도 마련했다. 디지털 허브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맡는다.

주요 협력국과 파트너십 강화 협약



한국철도공사가 'GICC 2024'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협력 국가 철도 기관 대표와 면담했다. 탄자니아철도공사와는 중앙선 표준궤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 보수, 철도연수센터 건립 등을 논의했다. 또 말레이시아고속철도공사에 KTX 운영 기술력과 노하우를 소개하고, 말레이시아 고속철도 프로젝트 협력 방안을 얘기했다.

맘편한 코레일, 모든 열차로 확대 운영

10월부터
KTX 일반실과
일반 열차까지
40% 운임
할인

'맘편한 KTX'가 '맘편한 코레일'로 이름을 바꿨다. 기존에는 임산부와 동행하는 1인까지 KTX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KTX(일반실)와 새마을·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임을 40퍼센트 할인하는 혜택까지 더했다. 할인 기간은 임산부로 등록된 날부터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에서 1년 후까지다. 정부24 홈페이지의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거나, 임신확인증과 신분증을 소지한 후 코레일 역 창구에서 신청해 혜택을 이용한다. 임산부의 날이 있는 10월에 운행하는 열차부터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로
확인하세요

관광택시로 떠나는 특별한 여행

친구끼리 떠나는 설레는 여행,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베테랑가이드가 모시는 이야기가 있는 여행

지금 **코레일톡**에서 예약하세요



EVENT 01

정기관광열차 왕복 무료이용권 2매 증정

인구감소지역 관광택시 이용고객 총 20명에게
정기관광열차 왕복 무료이용권 2매씩 제공해드립니다

EVENT 02

영주시 관광택시 3만원 상당 지역 특산물 증정

대상: 영주시 관광택시 이용후기 작성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9명 (3명/월) 선정

EVENT 03

다자녀 가정 10가구 정기관광열차 왕복 무료이용권 증정

코레일 MaaS 서비스를 이용한 다자녀 가정 10가구를 선정하여
가족 구성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정기관광열차 왕복 무료이용권 제공

KORAIL SNS



#한국철도공사 #KTX #기차 #기업홍보

한국철도공사 기업 홍보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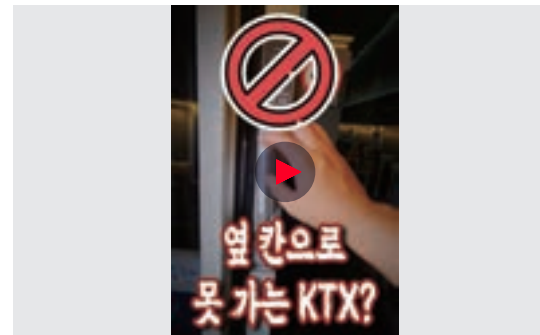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마음을 더 따뜻
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더 빠르고 스마트하게.
한국철도공사는 사람, 세상, 미래를 잇습니다.



#한국철도공사 #1호선 #지하철 #철도박물관

50년 전 그 열차, 비밀의 문을 활짝 열다

2024년은 수도권 전철 개통 50주년을 맞는
해. 1974년 도입된 최초의 전동차를 경기도
의왕 철도박물관에서 만나 보세요.



#KTX #복합열차 #이동불가 #서울역

옆칸으로 못가는 KTX?

복합열차는 중간에 위치한 운전실 때문에 통
로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기차에 탑
승하기 전 몇 초차인지 확인은 필수!



#새벽2시 #드론 #광명역 #한국철도공사

새벽 2시 광명역

전지적 드론 시점으로 보는 새벽 2시 광명역
의 모습. 건물 외부부터 넓은 내부 공간까지
역 곳곳을 빠르게 살펴봅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고장, 전북 순창

전라북도 순창에는 전국 최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이 있다. 울창한 숲과 시원한 계곡이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전하는 강천산이다. 생김새가 용이 꼬리를 흔들며 승천하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용천산이라고도 불렀다. 강천산 입구에 자리한 강천호 수면에 물결구름이 비칠 때면 마음이 일렁이고, 병풍폭포 앞에서는 웅장한 소리에 잠시 말을 잃는다. 이 외에도 탁 트인 풍경과 함께 스릴을 즐기는 채계산 출렁다리,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담긴 향가터널, 온천수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강천 힐링스파, 호기심을 자극하는 체험과 함께 발효 문화의 가치를 배우는 발효테마파크 등 눈길을 끄는 명소가 여럿이다. 순창장류축제가 열리는 10월, 순창의 곳곳을 눈에 담는다.



제19회 순창장류축제

장류 문화의 역사가 깃든 순창에서 장을 테마로 열리는 대표 축제다. 잊혀 가는 전통 장 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14년 연속 문화 관광 축제로 선정됐다. 체험 프로그램뿐 아니라 해바라기, 여행스케치 등 뮤지션의 낭만적인 공연도 준비했다. 멋스러운 전통 가옥의 정취와 깊은 장맛을 느끼고 순창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기회다. 붉게 물든 풍경과 고추장이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이다.

기간 10월 11일~13일 장소 전북 순창고추장민속마을, 발효테마파크 일원

순창군 열차 연계 상품



한국철도공사 전북권 여행센터가 제19회 순창장류축제 연계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 KTX와 투어 버스를 결합한 상품으로 편리하게 순창 여행을 떠난다. 익산역에 하차한 후 투어 버스에 탑승해 순창으로 이동한다. 산경가든에서 남도의 푸짐한 백반 한 상을 점심으로 먹었다면 축제를 알차게 즐길 시간. 마지막 코스인 채계산 출렁다리에서 시원한 바람과 함께 걱정을 날리며 여행을 마무리한다.

상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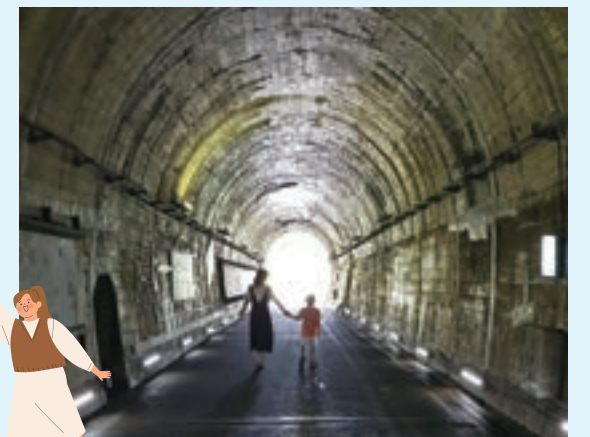
KTX 왕복 탑승권 + 순창 투어 버스 + 점심 식사

순창 투어 버스는 축제 기간 동안 예약 인원 15명 이상일 때 운행한다. 예약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앱에서 여행 3일 전까지 가능하다.

*용산역 출발 기준 최저 금액 6만 8000원

여행 코스(투어 버스 익산역 출발 10:15, 익산역 하차 17:20)

익산역 → 점심 식사(산경가든) → 순창장류축제장 → 채계산 출렁다리 → 익산역



문의 063-855-7715(한국철도공사 전북권 여행센터)

편의 시설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p>좌석 간격 Seat Space</p>  <p>KTX 93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p>  <p>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	<p>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p>  <p>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p>
--	--	--	--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p>좌석 간격 Seat Space</p>  <p>KTX 1120mm</p>	<p>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p>  <p>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p>	<p>식음료 Refreshment</p>  <p>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 4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에 있으며 특실 생수 자판기는 KTX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p>  <p>단행본은 KTX 4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잡지·신문은 KTX 3, 5호차와 KTX-산천 3, 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p>
--	---	---	--

AMENITIES

편의 시설

Amenities

<p>화장실 Restroom</p>  <p>KTX 1, 2, 4, 6, 8, 11, 13, 15, 17, 18호차와 KTX-산천 3, 5, 6, 8, 13, 15, 16, 18호차와 KTX-이음 1, 6호차와 KTX-청룡 1, 4, 6, 8호차와 ITX-새마을 1, 4, 6호차와 ITX-청춘 3, 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p>  <p>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 11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KTX-청룡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p>	<p>수유실 Breast-Feeding Room</p>  <p>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이 KTX 8, 16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4호차와 KTX-청룡 6호차와 ITX-새마을 6호차와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p>	<p>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p>  <p>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p>
<p>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p>  <p>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 10, 15호차와 KTX-산천 4, 14호차와 KTX-이음 3호차와 KTX-청룡 3호차와 ITX-새마을 3호차와 ITX-청춘 3호차에 마련되어 있습니다.</p>	<p>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p>  <p>음료 및 스낵 자판기가 KTX 5, 9, 11, 13, 16호차와 KTX-산천 2, 6, 12, 16호차와 KTX-이음 3, 4호차와 KTX-청룡 3, 5호차와 ITX-새마을 3, 4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p>	<p>의약품 First-Aid Medicine</p>  <p>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p>	<p>금연 No Smoking</p>  <p>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 (ITX-새마을, ITX-마을,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료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99-787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 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광명역) 약 55분, (T2↔광명역) 약 8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터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코레일톡 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일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 (Android, iOS)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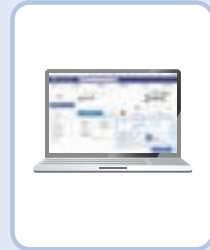


railplus.korail.com
QR코드를 스캔하면
레일플러스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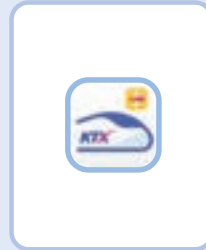
열차 이용 안내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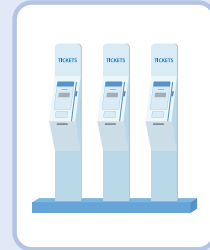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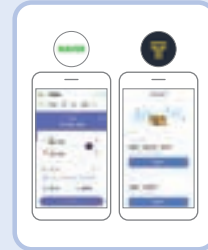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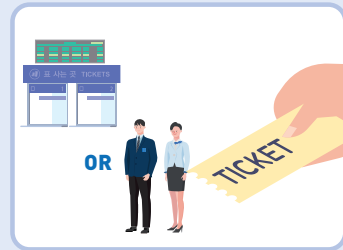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
스마트폰 앱

승차권 분실

-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금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입석과 자유석 승차권, 분실한 승차권이 변경 또는 반환된 경우, 재발행한 승차권을 반환 또는 변경하거나 도착역 전에 내린 경우 승차권 반환 불가능



역 창구, 열차승무원에게 운임·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분실한 승차권 재발급



열차승무원에게 분실 승차권
미사용 확인 요청



역 창구에서 승차권 금액 반환
(최저 반환 수수료 제외)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구분	출발 전		
	1개월~출발 1일 전	당일~출발 3시간 전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월~목요일	무료		5%
금~일요일, 공휴일	400원(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5%	10%

구분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20분까지	20분 경과 후~60분	60분 경과 후~도착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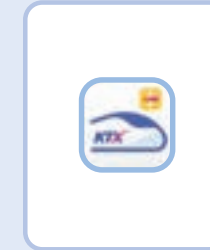
PASSENGER GUIDE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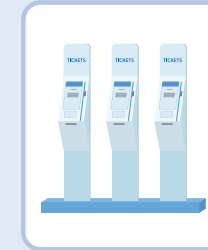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 (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Let's KORAIL Website
(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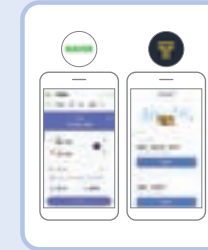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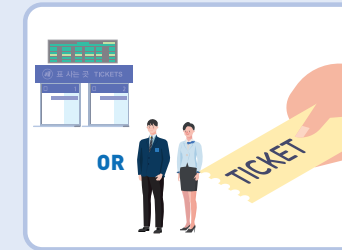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Loss

- Refunds may be provided for ticket purchases made using the KORAIL membership number or a credit card.
Not applicable to standing tickets, change of lost tickets, change of reissued tickets, and unused sections from alighting before the destination station.



Pay fees at the ticket booth
or to the on-board crew to
reissue your ticket.



Check with the on-board crew that
your lost ticket is unused.



Receive a refund for your lost
ticket at the ticket booth.
(excluding service charge)

Ticket Ref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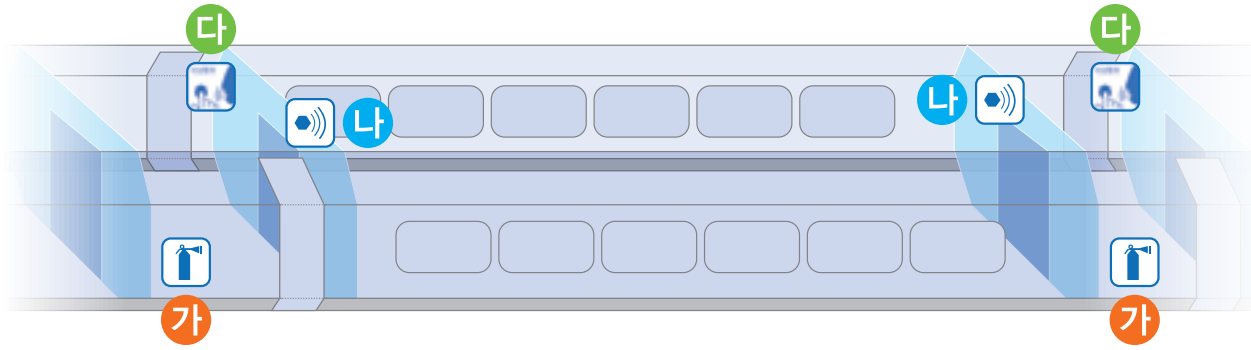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Mon-Thu	Free		5%
Fri-Sun, holidays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5%	10%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Up to 20 minutes	20-60 minutes	60 minutes-arrival time
Mon-Thu			
Fri-Sun, holidays	15%	4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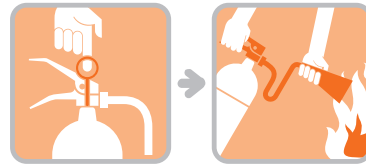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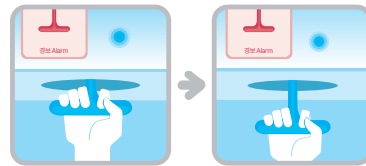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수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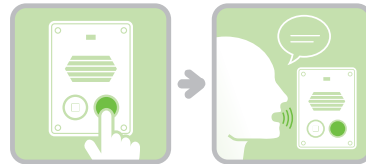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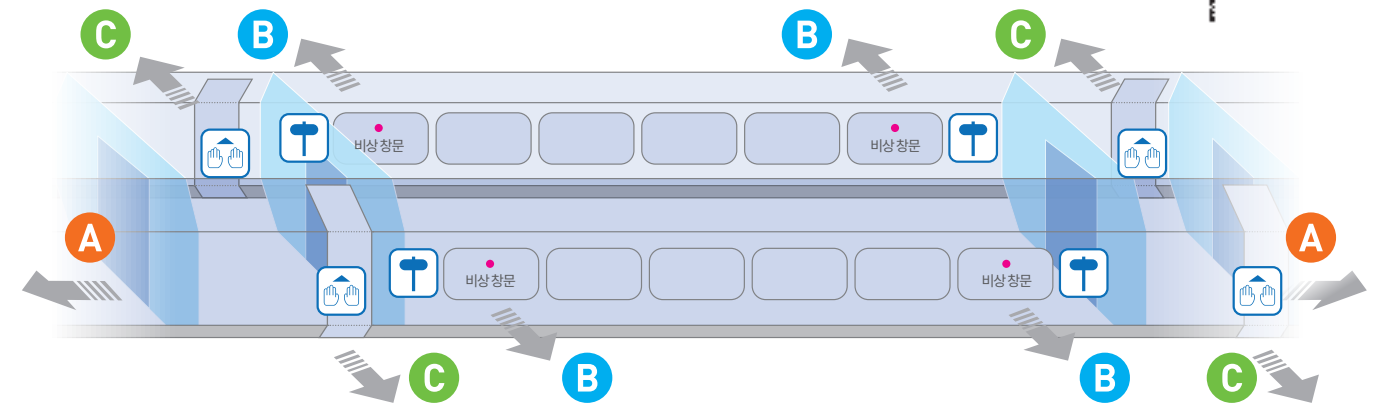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신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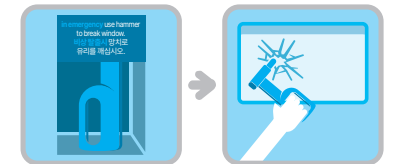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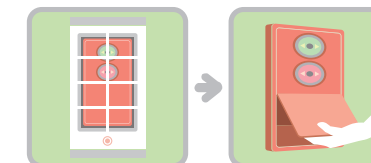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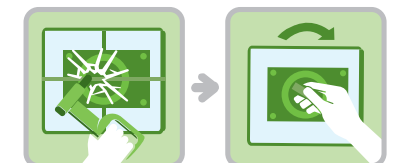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춘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Epilogue



일보이도(一步二都)

서울 아차산과 경춘선 숲길은 걷다 보면 구리로 주소가 바뀐다. 서서울호수공원은 부천과 달고, 안양천은 서울이다가 광명이다가 몇 걸음 지나 다시 서울인 구간이 있다. 한강 고덕 쪽을 산책하면서는 하남과 경계를 밟았다(심지어 건너편에 구리와 남양주가 같이 보인다). 이럴 땐 두 발을 다른 도시에 두고 뿌듯하게 기념 촬영을 한다. 이달엔 무등산 아래 광주호호수생태원을 취재했는데, 여기는 담양과 경계가 아니겠는가? 광주 환벽당과 담양 식영정은 걸어서 10분 거리다. 충효교에서 한 발자국 차이로 광주와 담양을 왕복하며 신나 했다. 무등산·호수·정자는 아름답고, 경계를 넘나드는 즐거움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남는 장사, 아니 남는 여행이다. 더운 날 세 시간을 내리 함께 걷은 무등산생태탐방원 조혜원 계장님과 양현 해설사님께 '남는 여행'의 영광을 돌립니다! **김현정**

나의 산딸기 오믈렛, 전주

발터 베나민의 '산딸기 오믈렛' 이야기를 좋아한다. 옛날 옛적 임금이 전쟁 중 한 노파에게서 얻어 먹은 산딸기 오믈렛을 잊지 못해, 궁에 돌아와서도 요리사를 불러 그 맛을 재현해 달라 주문했다는 이야기. 이때 요리사의 답변이 일품이다. 전쟁의 절박함, 부역의 온기, 노파의 온정을 어찌 따라 하겠느냐는 것. 스물셋, 봄, 온몸이 기억하는 그 시절 전주는 내게 산딸기 오믈렛 같은 존재다. 경기전 흠배덕에 스미던 연한 햇살, 한들거리던 초록빛 나뭇잎, 늦은 밤까지 가맥집에서 친구와 기울이던 술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만난 페르루 코스타의 영화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와 잔발리바르의 목소리, 심야 상영 프로그램 '불면의 밤'... 다시는 그보다 아름다운 전주를 만나지 못할 줄 알았는데, 틀렸다. 여러분도 올기를 전주에서 자신만의 산딸기 오믈렛을 맛보시길. **강은주**

들뜸 금지?

매달 전국을 취재하며 다짐하는 것이 있다. 바로 현장에서 너무 들뜨지 않기. 기자가 되기 전에도 "너 정말 반응이 좋다!"라는 말을 술하게 들었다. 작은 것에 감동을 받고, 온 마음을 끌어다 반응하느라 체력이 금세 바닥났다. 또 흥분하면 취재 대상의 본질을 보지 못할까 걱정스러워서라도 평정을 유지하려고 한다. 늘 어렵지만 말이다. 하하, 역시나 전남 해남에서도 실패했다. '전주식당' 산채정식 촬영 후 비빔밥을 먹으려는데 표고버섯이 맨 위에 버젓이 놓인 게 아닌가. 별로 안 좋아해서 눈 질끈 감고 넘기자는 생각으로 입에 넣었거늘, 이렇게나 향긋한 버섯은 처음이었다. 너무 맛있으며 정신없이 먹는 중 이 반찬, 저 반찬도 먹으라고 챙겨 주신 사장님 부부의 정 덕분에 눈물겹게 감사하고 행복했다. 음, 가끔은 이렇게 들떠도 괜찮지 않을까. **남혜림**

모두 다 이루어져라

울산 청년몰 키즈와 맘에서 기억에 남는 일화를 언급한다. 첫 번째, '이루다'라는 카페 이름은 송혜미 대표 아이의 태명 '이루며'에서 빌려 왔다는 이야기. 이곳을 찾는 모두가 꿈을 이루길 바라며 지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미소 짓는 두 대표를 형상화한 일러스트가 눈에 든다. 어쩌면 청년몰에서 목표를 이룬 두 사람이 자신들의 기운을 나누어 주고 싶었던 건 아닐까. 두 번째, 청년몰 상인들이 보여 준 크나큰 울산 사랑. '오늘, 달당'은 울산고래축제 행사장에 출품할 고래 모양 아이싱 쿠키를, '이루다'는 고래 젤리를 준비했다. '포인어포인'은 기념품 개발에 한창이고, '바람'의 모든 향수엔 울산의 여행 명소가 깃들었다. '수레어묵'은 울산을 대표할 어묵을, '경한송젤리'는 특별한 젤리를 선보이려 끊임없이 연구한다. 꿈꾸는 이들의 모든 꿈이여, 이루어져라. **김수아**



Puzzle



122쪽 '퍼즐' 정답

해남의 맛에 물들다 해남미남축제

2024. 11. 1. 금 - 11. 3. 일

삼산면 도립공원 잔디구장 일원

해남 고구마 체험존 | 추억의 고구마구이터 | 내품안에 고구마 | 515 김치비빔 | 동국장 체험
고구마떡국나눔 | 미남 경매쇼 | 미남 그림그리기대회 | 우리가족 요리대회 | 해남 막걸리 체험 등



해남미남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haenam.go.kr

